

Transnational Gwangju II: May 18 and Korean Diaspora

트랜스내셔널 광주 II: 5·18 과 한인 디아스포라

Venue: Fürstenzimmer, Schloss Hohentübingen, Universität Tübingen
Date: October 25-26, 2024

장소: 튀빙겐대학교, 호헨튀빙겐 성 내 제후의 방
날짜: 2024년 10월 25-26일

October 25, 2024 | 2024년 10월 25일

09:45-10:00 **Welcome Speech | 개회사:**
Lee You Jae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University of Tübingen)
Kim Byoungin (May 18 Foundation, Board of Directors, Vice Presid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이유재 (튀빙겐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김병인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대학교 부총장)

Session 1 | 세션 1

Moderation | 사회:
Lee You Jae | 이유재

10:00-11:00 **Choe Hyondok** (University of Tübingen):
Annual Event in Germany "May People's Festival" - The Importance of the Memory of the Gwangju Uprising for the Korean Diaspora in Germany
최현덕 (튀빙겐대):
독일의 연례 <오월민중제> -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광주항쟁 기억의 의미

11:00-12:00 **Eoh Soogab** (Former Administrative Manager of the Council of National Democratic Movements in Europe):
5·18 and the Democracy Movement in Germany in the 1980s
어수갑 (전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총무):
5·18과 1980년대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Lunch 12:30-14:30 | 점심 식사 12:30-14:30
(Restaurant Mauganeschtle, Burgsteige 18, 72070 Tübingen)

Session 2 | 세션 2

Moderation | 사회:
Choi Wonjun (University of Tübingen) | **최원준** (튀빙겐대)

14:30-15:30 **Lee Yeonsuk** (Hitotsubashi University): The 5·18 for the Zainichi Koreans: The Pathos of Nonexistence and Nihilism
이연숙 (히토츠바시대) 재일조선인의 5·18: 부재와 허무의 패이소스(pathos)

15:30-16:30 **Seo Hyeokgyo**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The Impact of the May 18 Kwangju Uprising on the Movement in the U.S. for Korean Democracy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5·18 광주민주항쟁의 미주동포 민족민주운동에 관한 영향

Dinner 18:00-20:00 | 저녁 식사 18:00-20:00
(Restaurant Forelle, Kronenstraße 8, 72070 Tübingen)

October 26, 2024 | 2024년 10월 26일

Session 3 | 세션 3

Moderation | 사회:

Lee Suhyeon (University of Tübingen) | 이수현 (튀빙겐대)

09:30-10:30 **Jeong Suna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Gwangju Translocal Network and the Democratization of Life: A Focus on Yoon Han-bong's Post-Exile Experience

정수남 (전남대): 트랜스로컬 광주네트워크와 삶의 민주화: 윤한봉의 망명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10:30-11:30 **Park Kyeongsup**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in the May 18 Foundation): Reflection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5.18: Focus on the Work and Resources of the May 18 Foundation on the Korean Diaspora

박경섭 (5.18 기념재단 국제연구원): 5.18의 국제화에 대한 성찰: 5.18기념재단의 한인 디아스포라 관련 사업과 자료를 중심으로

Pause | 휴식

11:45-12:45 **Round Discussion | 종합토론**

Moderation | 사회:

Kim Byoungin | 김병인

12:45-13:00 **Closing Remark | 폐회사**

Lee You Jae, Kim Byoungin | 이유재, 김병인

Lunch 13:00-14:45 | 점심 식사 13:00-14:45

(Restaurant Neckarmüller, Gartenstraße 4, 72074 Tübingen)

17:30-19:30 **Film Screening „12.12.: The Day“ | 영화 <서울의 봄> 상영회**

Venue | 장소 Kino Museum (Am Stadtgraben 2, 72070 Tübingen)

Dinner 19:30 | 저녁 식사 19:30

(Restaurant 1821, Wilhelmstraße 3, 72074 Tübingen)

Contents/목차

최현덕 (튀빙겐대)

독일의 연례 <오월민중제> -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광주항쟁 기억의 의미	4
--	---

어수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5.18과 80년대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18
------------------------------	----

이연숙 (히토츠바시대)

재일조선인의 5·18: 부재와 허무의 페이스.....	46
-------------------------------	----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5.18의 미주동포 민족민주운동에 관한 영향	60
--------------------------------	----

정수남 (전남대)

트랜스로컬 광주네트워크와 삶의 민주화: 윤한봉의 망명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66
--	----

박경섭 (5.18 기념재단 국제연구원)

5.18의 국제화에 대한 성찰: 5.18기념재단의 한인 디아스포라 관련 사업과 자료를 중심으로	76
---	----

독일의 연례 <오월민중제> -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광주항쟁 기억의 의미

최현덕 (튀빙겐 대학교)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어난 군부 독재의 만행과 시민들의 항쟁은 독일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독일 시민사회의 남한 민주화 연대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5월 22일부터 독일 공영 TV를 통해 방영된 참혹한 장면들은, 특히 과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으려 하지 않았던 많은 재독 한인들조차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고, 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튀빙겐, 보쿰 등 서독의 많은 지역에서 시위, 구국기도회, 단식농성, 성명서 발표, 헌혈, 모금, 서명 운동 등이 잇달았다.

이미 1974년에 <민주사회 건설 협의회>, 1975년 <재독 한인 노동자 연맹>, 1978년 <재독 한국 여성 모임>이 결성되어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기는 했으나, 5월 항쟁을 계기로 훨씬 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조국의 현실에 대해 공부하고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의 수가 늘면서 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많은 단체들, 즉 여성, 노동, 문화, 학술, 인권, 언론/출판, 통일운동 등 부문별로 특화된 운동 단체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결성되고, 1987년에는 연합체인 재유럽 민족민주운동 협의회(약칭 민협)를 결성해 그 아래 뭉치게 된다. 즉,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주도하는, 고국의 인권 실현,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은 1980년 광주 항쟁을 계기로 해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게 된다. 80년대 운동에 참여하게 된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5월 항쟁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독일에서 5월 항쟁을 기리는 행사는 1주기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뤄지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후 최소한 제도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수립했으며, 그 후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항쟁과 진압에 대한 국가적 해석도 급격히 달라졌다. „망각과 무기억이 강요되고, 국가 폭력의 정당성 논리가 공식화되던“ 80년대 전반부를 거쳐¹ 1988년 광주 청문회, 1988년 설립된 <한국 현대사 사료연구소>의 항쟁 참여자 구술 작업, 1989년 <5.18 전야제> 시작, 1995 광주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2002년 국가 기념일 제정, 2011년 5.18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지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돌아 볼 때, „항쟁의 정당성과 국가 폭력의 부당성이 공식화되는 시기에 도달하기까지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그동안 전개된 기억 투쟁은 „국가 폭력에 의해 초래된 수많은 사건들이 적극적으로 기억 투쟁의 장에 나아가도록 추동“한 원동력이었다.² 이러한 국내에서의 기억 투쟁의 전개 과정은 해외의 „5월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³

1981년 5월 광주항쟁 1주기를 맞게 되자, 민건회와 재독한국여성모임, Korea Komitee는 뮌헨에서 공동으로 광주 민중항쟁 1주년 기념행사를 치른다. 이외에도 유학생들, 몇몇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지역에 따라 혹은 단체 별로 각자의 방식으로 기념하는 상황이 1986년까지 계속 되다가, 1987년에 이르러 거의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여 명칭도 <오월민중제>로 확정하고 전 독일⁴ 차원에서 <오월 민중제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통합된 기념 행사를 하게 되고, 행사의 틀도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이 발표문에서는 1981년의 1주기 행사부터 2024년까지 44년의 역사를 일단 각각의 프로그램 별로 그 내용을 살펴본 후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 행사를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기억 문화의 한 형태로서 일종의 정치적 의례로 파악한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¹ 정호기, 2004, 5월 행사 주체로 본 „5월 운동“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 4권 2호, 전남 대학교 5.18연구소.

² 정호기, 2004, 2 쪽.

³ „5월 운동“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정호기, 2004, 4-8 쪽 참조.

⁴ 이 글에서 독일이 통일 되기 이전, 즉 1990년 이전 맥락에서 „전독일“라 쓴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을 뜻한다.

⁵ „의례“의 관점에서 국내의 광주항쟁 기념행사를 분석한 글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이 행사가 독일에서 전개된 한국 민주화 및 통일을 위한 운동 등 한국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해 벌여온 운동사에서 지니는 의미와 독일로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 1세와 2세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광주항쟁 기념 행사 혹은 오월 민중제의 주체 세력

행사를 주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첫째 그룹은 70년대 민건회, 노연, 여성회 등을 통해 이미 사회운동 내지는 남한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도 정치 의식에는 차이가 있어, 남한의 군사 독재체제에 대해 이미 비판의식을 갖고 그 선상에서 국가 폭력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광주 항쟁 진압 역시 파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 운동이라도 자신의 문제와 직결된 체류권 운동에 집중하여 고국의 정치사회적 모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이 두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66년 독일에 온 파독 간호사로서 평생 재독 한인들의 한국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최영숙은 독일 공영 방송에서 나온 광주의 참상을 보면서⁶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겼으며 자신 속에 들어 있던 레드 콤플렉스가 사라졌다고 구술했다.⁷ 학살에 맞선 광주의 민중항쟁을 보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높아졌고 군부 독재에 항거해야 한다는 의식은 더 굳건해졌다“고 한다.⁸

둘째로는 국내에서 받은 반공 교육과 동백림 사건의 경험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내지는 고국의 정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광주의 참상을 보면서 달라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광주 항쟁을 보고 분노하여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여러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한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에서 군부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운동에 나선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 관심, 입장 등에 따라 여러 부문 운동들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써 80년대 독일에서의 한국 민주화 운동은 양적 확대와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분화를 통해 심화된다.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내용적 분화를 통해 전문성이 심화된 측면도 있는 반면, 이념적 혹은 조직 운영상의 불화로 인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광주 항쟁을 기념하는 일은 거의 모든 단체가 그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였고, 1987년 이후 전독적 차원에서 준비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5월 민중제는 실제로 그러한 결집의 장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전 독일적 차원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한인 독일 이주 사상 처음으로 갑오 동학혁명 90주년 기념행사를 거의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단체와 독일인 연대 단체가 함께 치뤘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1985년 독일 오덴발트(Odenwald)에서 400명 넘는 인원이 함께 모였고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독일인들도 함께 했다. 이 행사 중에 신동엽의 시 <금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대본을 가지고 홍세화의 연출로 한인 디아스포라 50여명이 출연한 연극을 무대에 올렸고, 이 연극은 그 다음해 1986년 베를린에서 거행된 광주 항쟁 기념 행사에 다시 상연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새로이 구성되는 차년도 준비 위원회는 개개인을 선정한 경우, 한 단체가 맡은 경우, 단체와 개인이 동시에 선정된 경우, 몇몇 단체가 협력하도록 선정한 경우가

정근식, 2005, <항쟁기억의 의례적 재현 - '5월 행사'와 전야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5-1, 5.18 연구소.

⁶ 5.18 이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한 영상으로 전한 것은 1980년 5월 22일 저녁 독일 공영 방송 ARD 였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 방송의 도쿄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가 광주에 직접 들어가 당시 현장에서의 참상을 촬영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해 9월 이 자료는 <기रो에 선 한국(Südkorea am Scheideweg)>이라는 제목의 50분짜리 도큐멘터리 필름으로 제작되어 독일 제1공영 방송 ARD에서 방영된다.

⁷ 정진현 (역음), 2021,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1 - 독일편, 광주 5.18 기념 재단, 35쪽.

⁸ 최영숙, 2023, 43년의 재유럽 오월민중제와 5.18 정신의 계승. <학술대회 트랜스내셔널 광주 (2023. 7.21-22) 자료집>, 39쪽.

있었다. 1987년 여러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민협이 결성되면서 민협이 한동안 5월 민중제를 주관했다. 그 준비 단체들의 규모도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90년 광주항쟁 10돌 행사처럼, <재유럽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이하 민협)>의 9개 산하단체와 17개의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연대단체들이 참가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1992년 민협이 해체된 후 1990년대의 행사들은,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 모임을 가지되 한 해씩 책임 준비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가 주도적인 준비를 하기도 했다. 예로 1993년에 재유럽 노동자 모임, 1995년에 한국인 민중문화 모임, 1996년에 재독 한국여성 모임, 1997년에 베를린 노동교실이 오월 민중제를 주관했다.

매해 준비위원회 참가 단체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2000년 이후 <한민족 유럽연대>, <사단 법인 한국 민중 문화 모임>, <베를린 노동 교실>, <사단 법인 코레아 협의회>는 지금까지 빠짐없이 매년 준비단체로서 자리를 지킴으로써 준비위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⁹

2. 기념 행사의 기본틀과 내용

2.1. 기본틀

1987년 이후, 기념 행사의 시기는, 5월 중 한 주말을 택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점심까지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유스 호스텔 혹은 연수원 같은 시설을 대여해 함께 합숙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에는 대개 영화를 함께 보고 친교를 나누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토요일 아침에는 추모제, 이어서 강연과 토론, 오후 혹은 저녁엔 문화 프로그램, 저녁 식사는 대개 한식 불고기파티, 일요일 오전에는 평가회와 다음 해 행사 준비를 한 후 점심을 하고 떠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때에 따라 아침식사 전에 기공과 같은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1986년부터는 국내와 해외 인사들도 연사로 혹은 참석자로 참여하게 된다. 독일 전역에서 수십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여 매년 함께 추모제를 거행하고, 연사를 초청하여 광주 항쟁의 역사와 현재의 한국 사회 현실, 해외 운동의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하고, 그때 그때 한국 사회의 문제를 파헤친 문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를 골라 함께 보고 토론하고 문화제를 함께 하면서 일체감을 다지는 역사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행사는,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독일친구들, 이러한 노력에 연대의식을 느끼는 국적을 초월한 젊은 세대들 간에 일종의 대동제로 자리를 잡아 왔다.

2.2. 오월 민중제의 내용

2.2.1. 영화 함께 보고 토론하기

금요일 오후 혹은 저녁, 참석자들이 모임 장소에 도착하면 함께 영화를 보면서 행사가 시작된다. 독일 전역에서 모이다 보니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 많고, 또 금요일 내내 근무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은, 몸과 더불어 마음도 그곳에 도착시켜 주도록 분위기를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한다. 간혹 영화 대신 개막식을 바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 경우 평가회 때 영화가 아쉬웠다는 말이 나오곤 했다. 영화 시사는 5.18 기념 행사가 2박 3일의 <오월민중제>로 틀이 잡히기 이전에도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기념 행사 중 상영된 영화를 보면, 주제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그룹은 물론, 광주 항쟁과 관련된 영화들로서 주로 기록 영화들이다. 국내에서 진실이 국가 권력에 의해 철저히 가려져 있었던 초기에는 독일 언론인들이 제작한 광주 5.18관련 다큐가 많이 유포되었다. 국내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일어난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1988년 국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광주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면서 5.18의 기억이 공식적 담론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공영 방송국에서 그간 억압되어 왔던 진실을 드러내는 다큐멘터리 방송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송들은 바로 독일에서 거행한 오월 기념행사에서도 소개되었다. 1989년 MBC 제작한 <어머니의 노래>가 같은 해 괴팅엔 한국 학생회에서 주최한 기념행사에서도 상영되는 것을 필두로 하여, 2016년 5.18 기념재단에서 제작한 <산자여, 따르라>에 이르기까지 새로 제작되는 5.18에

⁹ 이 단체들의 소개는 어수갑의 발제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관한 영화들은 오월민중제에서 상영되었고, 영화를 통해 보게 되는 5.18 재현의 변화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기억 투쟁의 한 단면을 독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해 주었다. 국내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새로 구성된 과정을 독일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면서 함께 겪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2017년 광주항쟁 기념식을 남다른 감동으로 지켜보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오월민중제 행사중에 <산자여, 따르라>와 함께 시청했다.

기록 영화뿐 아니라, 5.18의 아픔을 미술적으로 표현한 일본 여성 화가, Tomiyama Taeko의 작품은 광주 연대 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특히 <재독 한국 여성 모임>과 일본 여성 회와의 연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토미야마 타에코의 작품 슬라이드 <자유 광주>는 1982년 Heidelberg와 베를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보여졌으며, 그녀의 작품 전시회가 베를린에서 일본 여성회와 협력하여 열리기도 했다.

둘째 그룹으로서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지니는 것은, 한국의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다루거나,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1981년 1주기 기념식에서 <어머니>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여사에 관한 영화로 1978 일본 한통련에서 제작), 1996년 민가협에서 제작한 <어머니 보라빛 수건>, 1997년 역시 민가협에서 제작한 <외출> ; 2004년 장기수들의 출감 후 복송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환송>, 2016년에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5년을 수배생활과 감옥살이를 하고 다시 국가 보안법으로 기소된 이와 그의 가족의 삶을 그린<불안한 외출>, 1998년 <레드 헌트: 4.3 항쟁 다큐>, 2001년 매향리 투쟁 비디오, 2007년 사회 경제적 이유로 농촌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 우즈베키스탄으로 신부를 찾아 떠나는 한국 농촌의 노총각 이야기를 담은 <나의 결혼 원정기>, 2012년 <부러진 화살>, 201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담은 <변호인>, 2018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된 것을 영화화한 <1987>이 상영되었다.

셋째 그룹은 독일 이주민으로서, 특히 고국의 민주화에 헌신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 활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1999년에는 <다시라기, 98 독일 아리랑 고향>의 영상기록, 2005년에는 6.15 공준위 결성식을 함께 보았다. 이 작품들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스스로의 활동상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함께 보면서 객관화하는 의미가 있다. 2000년에는 KBS TV에서 제작한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삶에 관한 다큐를 함께 보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귀국이 어려워진 민주 인사들, 송두울 (경계도시), 윤이상, 이희세(코리언 돈키호테 이희세)에 관한 영화를 각기 2003, 2005, 2007년에 함께 보았다.

넷째 그룹은 독일 이외 지역의 한인 이주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재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2세 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계된 영화들로서 2007년에 김명준 감독의 <우리 학교>, 2024년에는 재일 한인 디아스포라 3세 박영이 감독이 조선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늘색 심포니>를 보았다. 2009년에는 하와이 이민사에 관한 다큐, 2019년에는 한국 전쟁 이후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의 고아들 이야기를 담은 <폴란드로 간 아이들>를 함께 보았다.

다섯 번째 그룹은 한인 디아스포라 2세들이 제작한 영화로서 2006년 간호사 파독 40주년을 맞아 이주와 세대간의 문제를 2세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맥락에서 상영되었다. 2006년 오월민중제 첫날인 5월 19일 다음 세 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 Recolonize Cologne (최선주 감독),
- 교포 2세 (홍세련 감독),
- 세번 2세 (장영수 감독)

2.2.2.추모제

신군부의 참혹한 진압으로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사건이고 보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휴머니티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추모는 이런 측면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광주의 진실이 억압되고 희생자들은 폭도로, 국가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왜곡되어 희생자들의 묘지 참배조차 금지되었던 시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억압으로부터 진실을 해방하려는 노력이고, 망각을 강요하는 세력에 대항해 기억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다. 해외에서의 추모제는 국내의 이러한 기억 투쟁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¹⁰

또한 추모제라는 형식은 정치적, 이성적 발언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감성을 움직이며, 영성을 불러내기도 한다. 독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추모제를 거행하면서 제문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 제사의 요소, 비나리와 같은 무속적 요소를 가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행사는 문화적으로 훨씬 풍부한 것이 되었는데, 이는 독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문화적으로도 한국적 정체성을 가꾸고자 전개한 문화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초기 추모제는 광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이었으나, 세월이 지나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추모하는 희생자가 늘어난 점이다. 세월호 희생자, 이태원 희생자 등을 같이 모시고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운동을 하다 서거하시는 분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추모제의 범위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확장되어 왔으며, 국내와 해외 운동의 영령들이 만나는, 초국적 추모제가 되었다.

2.2.3. 강연과 토론

이 부분은 <오월 민중제> 중에서 이론적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이한 배경과 상이한 입장을 갖고 상이한 활동을 벌여오던, 한국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의 구성원들과 개인들이 모여 같은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하고,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을 하기도 하며 의견들을 조정하기도 하면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최소한의 공동의 무엇을 발전시켜 오는데 기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로 그간의 강연을 나누어 보면, 첫째, 광주 민주 항쟁이 왜 일어났으며,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가 표출된 것인지,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는 강연으로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광주 민주 항쟁 자체를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한 것들이다. 주로 초기의 강연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제 1주기 기념 행사에서 민건회와 Korea Komitee는 (1) 광주 민주항쟁의 배경을 분석하고 전두환 군부독재의 학살 만행을 폭로하는 강연, (2) 광주 학살에서의 미국의 책임에 관한 강연을 한다. 이 강연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억압되어 있는 시기의 것들로서,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비교적 빨리 진상에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다. 이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국내 정치의 폭압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진상에 관한 정보는 국내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투쟁에 도움을 주게 된다.

둘째, 광주항쟁의 의미를 해석하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거듭 거듭 재해석하는 강연들이다. 이 강연들은 80년대 중반 정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부분 셋째 그룹의 강연들 즉, 광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현재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흔히 이 두가지 강연은 짝을 이루어 한 행사에서 함께 행해졌다.

1987	1: 한국 민족사에 있어서의 광주민주항쟁의 의미 2: 광주민주항쟁과 해외운동의 과제	1. 은호기 (조국 민주회복 남가주 국민회의 공동의장, 미국) 2. 이종수 (민건 의장,독일)
1988	1:광주항쟁의 재조명 2: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전망	1. 위인백 (5.18민주항쟁동지회 지 도위원, 한국) 2. 김광남 (재일 한청동 위원장, 일 본)
1989	„5 월에서 통일로“	

¹⁰ 1985년 국내에서 이러한 기억투쟁의 일환으로 <5.18 광주 의거 기념 사업 및 위령탑 기념 사업 및 위령탑 건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독일에서는 같은 해 5월 18일, 동 위원회 유럽지역 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후원회의 결성은 그간 민주화 운동을 해온 교회 밖의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한인교회의 협력 사례로서, <재독 한인교회 협의회> 소속의 한인 교회 목회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해동, 장성환, 박명철 목사는 직접 발기인으로 나섰다.

	1. 해외 2. 국내	1. 유은진 (재독한국여성모임, 독일) 2. 이윤정 (5.18 광주 민중항쟁 동지회 부회장, 한국)
1990	강연: 광주항쟁 10 년의 반성과 우리의 진로 토론 1: 광주항쟁 이래의 민민운동의 진단 토론 2: 광주정신의 계승과 해외 민민운동의 현황과 분석	강연자: 민중자주통일협의회 토론 1: 윤광장 (전교조 해직교사, 한국) 토론 2: 정기열 목사 (재미한청련, 미국)
1991	광주민중항쟁과 민족대단결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독일)
1993	1: 5 월 민중항쟁의 재조명 2: 해외운동 이대로 좋은가?	
1996	1. 5.18 의 현재적 의의와 역사적 과제 2: 오월민중제의 앞날	1. 정종만 -5.18 동지회 부회장 (독일) 2. 이종현 (독일)
1999	518 과 민족 자주	홍 근수 목사 (미국)
2000	1:오월항쟁 20 주년의 역사적 재조명 2:오늘의 대동세상 - 오월민중항쟁 10 일간의 대동세상에 비추어	1. 이희세 - 민주인사 (프랑스) 2. 이우갑 신부 (독일)
2003	„5 월에서 통일로“	통일운동인사 류락진 (한국)
2005	오월항쟁 계승사업의 의의와 과제	조진태 (5.18 재단 사무처장)
2010	1. 5.18 광주민중항쟁과 한반도의 현실 2. 재외한인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현실	1. 문국주 (5.18 기념재단 이사, 한국) 2. 임민식 교수 (덴마크)
2014	민중항쟁 계승	5.18 기념 재단 (한국)
2019	강연: 과거청산과 오월정신 계승 -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위인백교수, 38 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 (한국)
2021	5.18 의 현재적 의미에 관한 강연	명진 스님 (평화의길 이사장, 한국)

위의 강연들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항쟁의 의미를 해석하고 현재적 상황에서 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계승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일까에 관한 구체적 고민을 나눈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국내 운동권 인사들의 해외 여행도 보다 용이해지면서 광주를 비롯한 국내의 운동 단체에서 거의 매년 연사를 파견하여 한 편으로는 그때 그때 광주의 의미를 성찰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독일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그러한 광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의 해외운동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오월 민중제는 국내의 운동과 해외의 운동이 직접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초국적 운동의 장이 되었다. 넷째, 한국 사회의 정세에 관한 강연들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독일에 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일에서 고국의 사회운동과 연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속한 강연들은 다음과 같다.

1990	전노협 결성과 90년대 노동운동	기층민중과 연대하는 모임 (독일)
1992	한국정세분석을 통한 민민운동의 현황과 전망, 해외운동 방향정립	이동희
1995	시국 사건들로 본 국가 보안법의 역사	
1997	1. 김영삼 정권 하의 인권정책	1. 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위원장)

	2.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과 한국법조 3. 해외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사례	2. 차병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이영숙 (재독 양심수후원회)
1998	1. 새정권의 개혁과 전망 2. 재유럽 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과제	1. 이창복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2. 재독 한국여성 모임 (서의옥, 김진향)
1999	1. 21 세기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 좌우 민족주의와 개인의 정체성 2. 여성 교회 - 이야기 공동체 3. 한국 시민 운동에 관하여	1. 진중권 (베를린 자유대학 유학생, 독일) 2. 김영 목사 (한국) 3. 차명제 박사 (한국)
2001	1: 6.15 남북정상회담후 통일의 전망 2: 매항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운동 3: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활동보고 특강: 한국 민중 민족의 과제	1. 송병구 목사 (재독 NRW 기독교한인교회연합회) 2. 김광식 (밝은사회 국제클럽 독일지부 회장) 3. 김진향 재독한국여성모임 총무 특강 연사: 오종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2002	미국의 패권주의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차병직 변호사/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전 의장
2003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평화	장광열 (한민족유럽연대 민중연대분과위원장)
2009	1. 위기의 금융자본주의,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2. 해외한인 디아스포라가 보는 한반도 위기	1. 강정수 (뷔텐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한겨레 21 전문위원) 2. 채명수 박사
2011	1. 문학과 예술에서의 5·18 민중항쟁의 반영 2. 한반도의 평화 (정세분석)	1. 송승학 (보쿰대학 박사과정) 2. 5.18 기념재단
2012	1.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2. 총선이후 국내상황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1.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2. 이희세 6.15 유럽지역위원회 전 상임대표 이은희 풍경 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2013	1. 양민학살의 진상 2. 미래에 대한 환상과 성찰 - 한국 정치문화 돌아보기	1. 채명수 박사 (독일) 2. 정진현 박사 (독일)
2014	박근혜정권 2 년과 통일정책	김동춘 성공회대학 교수 (한국)
2015	1. 광복 70 년, 분단 70 년을 제 2 의 6.15 시대로! 2. 4.16 이후 대한민국은?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 3. 오월과 세월호	1. 한충목 한국 진보연대 상임대표 (한국) 2.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국)

		3.홍성담 민주화가 (한국)
2016	1: 오월항쟁 역사 왜곡 바로잡기 2: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영상강연) 3. 12.28 한·일 합의의 문제점 4. 12.28 합의 대항 현지 상황(영상)	1.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한국) 2. 김진향 전 카이스트대학 교수 (한국) 3. 김진향 코레아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위원회 (독일) 4. 야지마 츠카사 (독일)
2017	1. 위대한 촛불 2. 1980 년오월 광주 - 누가 발포령을 내렸는가? 3. 제 19 대 대선과 향후 전망	1. 정진현 박사 (베를린 자유대 연구교수, 독일) 2. 나경택 (연합통신 전남지부장, 한국), 3. 채명수 박사 (독일)
2018	1. 한반도 평화 통일 2. 탈분단 문화와 글로벌 코리안 공동체	1.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2. 정진현 자유대학교 연구교수 (독일)
2019	1.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2. 유엔 대북 제재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3. 518 40 주년 행사소개	1. 김인호 주독 대사관 통일관 2. 강호제 박사, (튀빙엔 대학, 독일) 3. 김태현 광주시 518 지원관 (한국)
2020 Covid19	동영상 강의: 개성 공단의 개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외 교포의 역할	김진향, 개성공업 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한국)
2022 Covid19	동영상 강의: 격변하는 세계질서와 한반도 평화모색	류경완 (코리아 국제 평화포럼 공동대표, 한국)
2023	1. 한반도전쟁의 위기 - 정전 협정 70주년 2. 만남의 집 - 과거 현재 미래 3. 토론: 시국 상황: 민주주의의 후퇴	1. 임민식 (덴마크) 2. 야즈마 추카사 (독일)
2024	5월 항쟁과 현 한국의 총선후 정치상황	전용호 작가 (한국)

이 목록을 볼 때, 오월민중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정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온 것으로 보인다. 거의 매번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표적 운동 단체나 진보적 성향의 학자, 언론인, 예술가와 다른 한 편으로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운동 단체의 회원 혹은 진보적 성향의 유학생이 짝을 이루어 강연을 담당했다. 특히 인권 문제의 경우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더불어 해외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전형적 경우로 조작 간첩사건들)을 함께 토론했으로써 주제의 폭을 초국적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또한 양적으로 이 범주의 강연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오월민중제에 참여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국 정치 내지는 사회 운동 상황의 추이를 얼마나 면밀하게 주시해 왔는지가 드러난다. 거의 매번 국내의 연사를 초청함으로써 해외에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편견을 가능한한 줄이고, 국내 운동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도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독일을 포함한 해외 운동에 대한 것으로서 활동상에 대한 보고 발제의 성격을 띤 것도 있고 해외운동의 이론적 성찰에 관한 강연인 것도 있다.

1998	재유럽 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과제	재독 한국여성 모임 (서의옥, 김진향)
1999	1. 한국민중문화모임 활동 사례 보고 2. 국보법철폐 해외 연대 대회 보고	1. 최정규 총무 2. 김진향
2002	6.15 공동선언과 해외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과제	이우갑 신부
2004	1. 6.15 공동선언의 실현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2. 유럽운동사자료수집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	1. 이영준/박대원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재독 유럽 운동사 자료수집 모임 (가칭)
2005	6.15 선언과 해외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 촉구	지창보 (재미민주인사)
2010	토론 1: 5.18 민중항쟁이 재유럽 한인 디아스포라와 유럽에서의 연대활동에 미친 영향 - 5 월민중제의 간단한 역사 (최영숙) - 함께 강해지고자 하는 한독 2 세의 바람 (신효진) - 베를린 광주 (이상훈) 토론 2: 재유럽 오월민중제의 의미와 전망	이희세, 파울 슈나이스 목사, 최영숙, 이상훈, 신효진
2011	해외 운동	손형근 (일본 한통련 의장)
2018	끝나지 않는 아픔 세월호	손어진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행동

오월 민중제가 독일에서 한국민주화 운동을 해온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거의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 해외 운동에 대한 성찰은 실제로 매번 빠지지 않는 토론 주제가 되었다. 5월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바탕으로 해외 운동의 방향에 대해 성찰하기도 하고 (강연의 세 번째 범주), 국내 사건, 혹은 운동의 이슈와 관련해서 해외 운동에서 할 일을 모색해 보기도 했으며 (강연의 네 번째 범주), 국가 보안법 철폐 운동 해외 연대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 범주). 2010년에는 오월민중제 30주년을 기념해 오월민중제에 대한 자기 성찰을 주제로 삼기도 했다.

여섯째, 이주와 관련된 주제로 2008년에 베를린 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숙영 으로부터 <세계화와 이주>라는 제하에 이주 문제의 근간을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강연을 듣고,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 문제의 틀에서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2세들과의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간호사 파독 40주년을 맞은 2006년에는 한국인의 독일 이주 문제를 주제로 해서 당시 실제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1, 2세가 함께 9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2세들과의 문제는 뒤에서 따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이주민 자신의 개인적 삶 혹은 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방면의 프로그램으로는 (1) 1996년에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에서 심리치료사가 된, 재독 한인 여성 모임의 회원 이월선의 지도로 <서양 심리적 한풀이>라는 제목의 워크숍, (2) 2012년에 이주민들의 노후의 삶에 대해 이윤덕 재독 원불교 주임교무가 강연한 것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으로서 고국의 정치, 사회 운동에 연대하는 것에 대한 것의 의미를 묻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1994년, 동학 농민 전쟁 100주년 기념과 동시에 5.18을 기념하여 큰 규모로 치뤄진 행사에서는 토론 주제 중 하나로 <재독 한국인의 삶과 한독 연대운동>이 들어 있었다.

2.2.4. 한독 세미나

오월민중제 44년의 역사에서, 조금 더 큰 규모로 행사를 조직하면서 독일 학자를 초대하여 독일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을 함께 논의한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처음의 경우는 1994년 <갑오 동학 농민 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로 치뤄진 것이고 두번째의 경우는 2007년, 한국 민주화 20주년이 되는 해에 5.18 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제 27회 재유럽 오월민중제 - 통일을 기원하는 학술 문화제>이다. 독일 사회와의 대화라 할 만한 것으로서 한가지 주제에 대해 독일과 한국에 관한 발제를 각각 한 것이다.

1994 동학 농민 전쟁 100주년 기념 오월 민중제에서는 송두율이 한국에 갑오 농민 전쟁에 대해서, 독일의 호이어 교수가 16세기의 독일 농민 전쟁에 대해 강연했다. 2007년의 행사의 경우 하루는 <독일 한국 커뮤니티 - 세 가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2세들이 준비한 워크숍이 열렸고, 그 다음 날에는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움이 열렸다.

워크숍 <독일 한국 커뮤니티 - 세 가지 전망>의 발제 제목과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세션 1 (사회: 이유재, 최선주)

- 한국언론에 비친 재외 한국인의 상 (김강수)
- 독일언론에 비친 아시아인의 상 (이슬기)
- 독일내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체조직의 사회 참여, 정치화 및 대변 (최세라)

세션 2

- 재외한인 디아스포라영화인 제작 영화의 한국에서의 수용과 작용 (하상희)
- 독일-한국 커뮤니티에 한국 전통예술의 의미와 역할(신효진)

위의 주제들은 한국과 독일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2세들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고국의 상황에 거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1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통일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1: 통일 독일, 마음속의 장벽 (악셀 뢰디거 박사, 독일 할레대학)

주제 2: 통일 독일의 사회문화 갈등 (김누리 교수, 중앙대)

주제 3: 새로운 시각에서 본 한반도 통일문제 (이중호 교수, 전북대)

독일의 역사 혹은 정치 사회의 문제를 주제로 택한 것도, 독일인이 강사로 초청이 된 것도 이 두 번의 행사가 전부였는데, 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당 (주로 녹색당, 사민당이 해당되나 기민당, 기사당에서 연대사를 한 적도 있다.), 노조, 한국 연대 활동 단체 (Korea Komitee, 국제 암네스티, Terre des hommes 등)에서 연대사를 보내왔고, 실제 연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서로 협력하기도 했으나, 오월민중제에서 이들 단체와 독일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 사회 운동에 관해 논의를 한 적은 없어 보인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다른 이주민 단체들과 함께 강연을 듣고 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일도 오월민중제에서는 없었다. 적어도 1세대의 경우 극도로 강한 모국 지향성을 보여주는 측면인데, 이점은 2세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5. 문화 행사

5월 민중제에서 문화 행사는 행사에 생기를 불어 넣고, 말을 통해 나타난 차이들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였다. 예를 들어 1988년에는 프랑크푸르트 참석자들의 풍물로 시작해서 2세들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가정의 자녀 문제를 풍자한 연극을 상연했으며, 보름 지역 참석자들이, 탄압-항쟁-죽음-부활로 이어지는 광주항쟁을 춤으로 표현했다 (민주조국 7호 기사). 1989년에는 통일 민주 영령들은 모신 고사와 통일춤을 깃들인 진혼제가 열렸다. 지신 밟기, 촛불 점화, 시 낭송, 고사문 낭독, 통일 염원 살풀이 춤을 거쳐 대동 놀이로 마무리되면서 분위기는 달아 올랐다 (민주조국 19호 기사). 1994년에는 김진의 기획, 연출로 <죽은 자 무엇으로 말하는가>라는 연극이 상연되었다. 이 문화 행사는 매년 빠짐없이 진행되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가 되는 체험을 하게 해 주었다.

오월 민중제에서 항상 다채롭고 흥겨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1980년대 한인 디아스포라들 사이에 번진 문화 운동이 있다. 1985년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독 문화 협회(Koreanisch-Deutscher Kulturkreis, KDK)가 결성된다. (a) 독일 땅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 (b) 한인 2세의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c) 독일인 남편, 독일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1986년에는 보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민중문화 모임이 결성된다.

문화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197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독 한국 여성 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들풀>을 필두로 해서, <단비> 청소년 문화센터가 1989-1993까지 활동했으며, 2세 중심 사물놀이패로 <천둥소리> 1994-2006가 있었고, 세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천둥소리> 회원보다 어린 2세들이 꾸린 사물놀이패, <신명> 2000년도 초/중반에 활동했다. 이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배워서 공연, 주요 행사 참여했는데, 2세들 사이에서 사물놀이에 대한 인기는 대단했다. 여름 방학 때 부여에 있는 김덕수의 사물놀이 교육원에 가서 연수하는 2세들도 꽤 있었으며, 그중 서울 한국 예술 종합대학에 유학하고 거기서 짝을 만나 함께 독일로 돌아와 한인 디아스포라 행사에서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이도 생겨났다. 즉, 독일 한인 디아스포라들 중에 사물놀이, 전통 춤 등 문화적 역량이 풍부함으로 인해 오월민중제 역시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꾸러질 수 있었다.

오월 민중제는, 둘째날 저녁 문화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문화적으로 풍성한 행사이다. 첫날 영화 시사회, „제“로서의 추모 행사, 행사 중 노래 부르기, 한식 불고기 파티 등,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적 요소가 깊숙이 배어 있다. 강연과 토론, 세미나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월민중제는 일종의 의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근식이 지적했듯이 „의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의례가 생각의 획일화 없이도 연대의 끈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의례는 이성적 판단 보다는 집합적 감정을 더 많이 포획하며, 때때로 '동의 없는 연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재독 한인들의 한국 민주화 운동 전개 중에 여러 분열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4년을 한결 같이 지속해 올 수 있게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3. 5월민중제와 한인 디아스포라 2세

재유럽 오월 민중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를 5월의 아이들(Mai-Kinder)라고 부르는 2세들 모임이 생겼었다는 점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젊었던 시절, 아이들도 어렸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월민중제에 참석했다. 못 알아들으면서도 부모와 함께 앉아 있거나, 밖에 나가 놀다 들어오거나 하던 시기를 거쳐 1994년 경부터 청소년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한다.

오월민중제 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신정남은 „특히 자녀들과 함께 참석을 자주하여 자녀들이 일찍이 한국의 역사에 눈을 뜨게 해 주[었]고, [자녀들이] 광주 5.18항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배우고 얻은 지식들을 독일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오월민중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종현은 „1994년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행사 때 2세들이 [...] 무대에 올라 ‘님을 위한 행진곡’, ‘술아 술아 푸른 술아’ 등을 부를 때 받은 감동“이 너무도 생생하다고 회고 했다.¹¹ 오월 민중제에 참여하는 2세들에 대해 1세들은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다.

추모제를 드린 후 따로 모여서 청소년 세미나를 하기 시작한 2세들은 처음에는 부모들을 모이게 하는 광주항쟁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정치범, 김대중,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주, 젠더,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서 점차 자연적으로 자신들이 이주 2세대로서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이미 1994년 2세 청소년들 최미라, 최유미 클라우디아는 제2세들의 사회적 위치와 제1세대와의 관계에 관한 생각을 발표했는데, 1997년부터는 매년 나름대로의 주제를 택해

¹¹ 재유럽 오월 민중제 준비위원회 (편), 2011, 재유럽 오월 민중제 30년 기념 자료집, p. 2, p. 5.

청소년 세미나가 열리게 된다. 최영숙에 따르면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¹²

- 1997 :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본 경제 및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의 인권
- 1998 : 김대중-이상과 현실사이의 갈림길에서
- 1999 : 한국의 청소년 문화
- 2000: 통일과 민족주의
- 2001 : H&M 의 성별구매-혼란, 혼돈, 건설
- 2002 : 이주민과 인종차별
- 2003 : 참여하라, 다시 해라, 더 잘하라 -빌레펠드 세미나회고와 전망
- 2004 : 한국의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
- 2005 : "얼씨구 세상" 또는 "yo (to) da World"
- 2006 : 이주와 세대의 만남 - 간호사 파독 40 주년
- 2007: 워크숍 <독일 한국 커뮤니티 - 세 가지 전망>

2007년 워크숍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는데, 이것으로서 2세들의 오월민중제 참여는 끝난다. 1세들과의 공동의 행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2세가 없지 않고, 개별적으로나마 오월 민중제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룹으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같이 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흩어졌다고 한다.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루기 전에 2006년 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06년은 간호사 파독 40주년을 맞는 해로서 한국인의 독일 이주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해이다. 2세로서 역사학자의 길을 걷고 있던 이유재가 재독 한국인 이주 역사를 개괄한 후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여덟 가지를 택해, 1세 네 명, 2세 네 명이 발제를 했는데, 발제 주제와 발제자 이름은 다음과 같다.

발제 1: 재독 한국인 이주 역사 (이유재)

발제 2: 독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서있는 현위치는 어디인가? (최정규, 민중문화 모임)

발제 3: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선주)

발제 4: 독일에서 1 세들의 재야운동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최영숙, 한민족 유럽연대)

발제 5: 우리들의 정체성이란? -타민족과 독일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상훈)

발제 6: 우리들의 미래, 노후, 죽음, 정신적 유산 (윤운섭, 노동교실)

발제 7: 우리에게 사랑, 파트너 관계, 가족 형성이란 어떤 것인가 (최세라)

발제 8: 1,2 세대간의 차이점과 동질성은 무엇인가? (안차조, 재독 한국여성모임)

발제 9: 2세들의 정체성 (정옥희)

2011년에는 이상훈 (2세, 경제학 전공)이 1세대들이 차세대에 남기는 유산, 2014년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재독 차세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정옥희·신효진이 발표했다.

2세들 중에도 1세들과 공동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지 않고, 1세대로서도 2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하면서, 무엇보다도, 연로해가는 1세를 대신해서 오월민중제를 계속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는데, 이 바램에 대한 2세들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 자신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1세와 2세간에 상이하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독일 이주 1세대로서 한국민주화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세 사람을 생애사적으로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희영은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구술자의 현실적인 생활 세계가 독일인 반면 이들의 주된 사회 운동이 자신들이 떠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¹³ 이 점은 한국 민주화 운동을 벌여온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들 대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¹² 최영숙, 2023, 43 년의 재유럽 오월민중제와 5.18 정신의 계승, <<트랜스내셔널 광주>> 튀빙엔 대학 한국학 센터 주최 학술대회 자료집, p. 42-43.

¹³ 이희영, 2005, 이주 노동자의 생애 체험과 사회 운동 - 독일로 간 한국인 1 세대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8 호, 310.

이 점이, 독일 사회에서 국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인 취급을 받고, 2세든 3세든 4세든 이주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 후세대들, 생활 세계인 독일에서 싸우면서 자신들의 삶을 관찰 시켜야 하는 후세대들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희영은 1세대들이 떠나온 고국의 정치적 변화를 지향하는 이유를 생애사적으로 설명한다. 즉, 1세대들의 경우, 한국을 떠나오게 한 생애사적 체험, 즉, 한국에서의 계급, 계층적 문제, 이데올로기적 대립, 가부장적 양성 차별 구조 문제 등 정치 사회적 모순을, 새로 정착한 독일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체험에 비추어 성찰하게 되고 그 부당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즉 고국의 사회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⁴ 광주 항쟁 같은 사건이 그 부당성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게 해 준 사건이었고, 그 부당성과의 투쟁은 과거 생애사적 체험을 규명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희영은 구술을 한 1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정치적 박해, 계급적 차별, 가부장적 질서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생애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독일이라는 새로운 생활 세계에서의 행위를 조직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역으로 한국에서의 생애사적 체험을 새롭게 해석할 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한국에서의 사회 운동에 동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1세대와, 완전히 다른 생애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2세대 간에 그 지향점에 있어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을까? 공통성은 꼭 찾아져야 하는 것일까? 차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통점이 아니더라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오월민중제는 전적으로 1세들의 고국 지향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2세들이 자신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담아내는 오월민중제로 다시 탄생시킬 수 있을까? 얼마전부터 신효진을 비롯한 2세와 일부 젊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4. 맺음말

1980년 5월 독일 TV에 전해진 광주항쟁의 소식은 독일에 살고 있던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정치의식을 짚은 시간내에 바꾸어 놓았다.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광주항쟁을 계기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실제로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한국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된다.

광주 항쟁을 계기로 한국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있어서 광주항쟁은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이고, 따라서 매년 광주항쟁을 기리고 해외운동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치루던 기념행사는 1987년부터 정 독일 차원에서 준비 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사의 구조도 2박 3일 기간에 영화, 추모제, 강연과 토론, 문화행사, 평가회의 틀을 갖는 것으로 확정된다. 매년 구성되는 준비위원회에서는 국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당해 년도마다 가장 시의 적절한 주제를 찾아 영화와 강연의 주제와 강사를 선정했다. 거의 매년 국내에서 강사를 초대하고, 한국, 독일과 기타 유럽 지역, 미국과 일본에서 연대사를 보냈으며 오월민중제는 초국적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일종의 정치적 의례로 자리잡은 오월 민중제는, 독일 내에서 거의 모든 단체가 함께 모이는 만남의 기회가 되었으며, 독일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70년대말 이후 많이 확대된 문화 운동의 저력에 힘입은 문화 행사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마음으로 일체가 되는 대동 단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오월민중제는 2세들의 모임도 발전시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2세들은 같은 장소에서 독자적으로 청소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지만 2세들이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1세들의 문제와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1세들의 „현실적인 생활 세계가 독일“이면서도 „이들의 주된 사회 운동이 자신들이 떠나온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면, 2세들에게 있어서는 이주민으로서 독일에서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연대할 세력도 1세들과는 다르다. 1세들이 점점

¹⁴ 이희영, 2005, p. 311. 이희영은 이 현상을 일종의 „정치적 역류“현상이라 보면서, „정치적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각 이주 노동자들의 복합적인 생애사적 체험과 정치적 성찰을 매개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더 연로해짐에 따라, 1세대들은 오월민중제를 후세대에게 계승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어, 2세와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5.18과 80년대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어수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1980년대 독일에서 벌어져던 동포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살펴본다. 광주항쟁 이전까지 독일에서 벌였던 반독재투쟁이나 동포들의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고, 본 주제인 5.18 광주항쟁이 80년대 독일의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운동으로 추동해 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80년대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은 한국과의 연대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80년대 후반부터는 대중적 차원의 통일운동도 고양되는 시기이며, 이를 담아낼 단체들의 활동도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본고는 광주항쟁 전후 시기부터 80년대 말까지를 부문 및 연합차원의 운동으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기 활동했던 각 운동단체의 이름, 결성 시기, 설립 배경, 주요 활동지역, 단체의 성격과 의의, 결성 과정, 주요 구성 인물, 강령 규약, 활동 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고 매수 제한에 따라 간단히 서술하려 했다.¹⁵

이를 위해 당시 독일에서 동포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이나 잡지 기사, 단체의 회의록, 자료집, 관련 서적, 회고록 등을 통한 단체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당시 활동했던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구술사료, 단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여타 관련 자료들을 참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축적되었던 연구자들의 관련 논문도 참고했다.

미·일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적은 고작 2만여 명¹⁶에 불과한 교민 수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 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은 특히 광주항쟁을 전환점으로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컸다.¹⁷

1967년에 일어났던 ‘동백림사건’은 유럽 사회로 하여금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68운동’의 영향과 신사회운동으로 독일 시민사회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계급투쟁으로서의 노동운동을 넘어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민국가가 아닌 독일에서, 크게는 간호사와 광부, 유학생(출신)의 3축으로 구성된 독일 동포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인 간호사와 광부들의 경우 독일인들에 비해 열악한 사회적 조건과 이주노동자들의 송환반대 체류권 투쟁으로 이른바 운동의 토대가 될 계급의식이

¹⁵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발생했던,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공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관련자나 관련단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생하였던 각종 사건의 이름, 사건 관련 활동가, 사건의 전개과정, 수사기관 및 정부의 대응, 사건의 사회적 함의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사건의 일부는 조작의 냄새가 짙었다.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상세는 어수갑의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중 사건항목 기초조사, 2005.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¹⁶ 80년대 초엔 그보다 훨씬 적은 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1963년 말부터 1977년까지 노동 이주해 온 8천 명의 광부 출신들과,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출신 1만여 명 및 소수의 유학생 (독일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3년~1984년에 1,946명, 1988년~1989년에 3,557명에 불과했다.)출신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3년 단기계약이 끝나고 부득불 귀국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난 이들이 절반에 가깝고, 1980년 이후 체류문제가 해결되면서 고국의 가족들을 불러오거나 하면서 동포들의 숫자가 차츰 늘어서 80년대 말엔 2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외에 80년대 입양된 한인도 2천여 명에 달한다. 유정숙. 2012. 독일 한인사회의 현황과 전망. 재외동포사 총서 16. 국사편찬위원회.

¹⁷ 김면, 2012, 『5·18과 유럽지역 한인 민주화운동사: 독일을 중심으로』, 518기념재단 논문집

숙성되고 조직화 되어 가고 있었다. 그에 더불어 한국은 물론 미주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학문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유학생들이 ‘기본계급’들인 광부·간호사들과 결합해 민주화운동에 나선 것도 독일 거주 동포들이 국내 정치지형의 변동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2. 5.18 이전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동백림사건으로 동포사회는 크게 위축되었지만,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의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 움트게 되었다. 그 결과, 출신별로 보면 크게 유학생(출신)들이 중심이 된 민건회와, 광산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련,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여성회, 그리고 목사들이 중심이 된 기통회¹⁸ 등이 결성되어 각 부문 단위의 운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광주항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민주화운동은 주로는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거나 동포들 자신의 생존권 투쟁 등 인권운동에 국한되었다.

(1) 독일지역 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의 민건회 활동

사단법인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Forum für Demokratie in Korea e.V. 민건 또는 민건회)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회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후에 한민련 유럽본부와 유럽민협에 참여했다.

민건회는 유럽 민주화운동의 모태(Matrix)이자 시발(始發)로,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한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유럽지역 최초의 운동단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낮은 수준의 협의체로, 초기 결성 당시엔 광부 출신 노동자와 간호사, 목사 등이 포함되었으나 차츰 그들은 빠져나가고 유학생 출신 중심의 지식인 운동으로 바뀐다.¹⁹

먼저 결성과정을 보면, 민건은 1974년 3월 1일 서독의 수도 본의 뮌스터 광장에서 박정희 군부독재와 유신체제 타도를 외치고 시위를 벌이면서 3.1절 기념 55주년을 상징하는 55명의 서명을 받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어 조직을 결성했다.²⁰ 그들이 작성한 <헌장>에 따르면,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독재정치의 횡포와 탄압, 국민경제의 예측과 파탄, 서민대중의 착취와 빈곤을 초래한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반사회적인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민건은 애초 반독재투쟁에 국한한 듯 보이던 투쟁목표를 결성 2년 후인 1976년 제2선언문을 통해 민주사회 건설과 민족자주권 회복으로 확대했다.²¹

윤이상(작고), 송두율(초대 의장), 강돈구(작고), 김길순(작고), 정규명(작고), 이종수(국내), 송영배(국내), 이삼열(국내), 박대원(작고), 임희길(재독) 등이 주요 임원으로 활동했다.

¹⁸ 민건회와 여성회, 노련, 기통회의 활동은 80년대 이후까지 지속되므로 한 항목에서 다루었다.

¹⁹ 김귀옥은 민건 창립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55명 중 유학생 출신이 24명이고 광부와 간호사 출신이 각각 13명과 8명이란 이유로 민건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하나 (김귀옥, 2023), 노련과 여성회가 결성되면서 광부와 간호사 출신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후술하는 한민련 참여문제나 이념 문제로 기독교인 등 다수가 탈퇴하게 되면서 민건은 예외는 있지만 거의 유학생(과 그 부인들) 출신들로 구성되어 갔다.

²⁰ 민건회는 전성기였던 70년대를 지나 80년대로 들어오면서 활동이 약화되는데, 초기 멤버 중 상당수가 전술한 이유로 탈퇴했으며, 그 외에 한민련이나 KOFO 활동과 인물이 겹치고, 광주항쟁 이후 분출하는 각 부문운동의 약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 데다, 회원이었던 이창균의 월북 및 오길남의 가족을 대동한 입북 및 탈북사건(상세는 송두율, 2017. 불타는 얼음. 후마니타스 참조)과 1989년 3월 이종수 당시 의장의 급거 귀국 등으로 소강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한참 후인 2004년 3월 결성 30주년을 맞아 재건을 위한 모임이 있었고, 2024년 5월엔 서울에서 민건동지회가 국내외 단체들의 도움으로 민건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²¹ <헌장> (1976.10)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초기엔 광부, 간호사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해결하는 일 등 동포사회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다가, 남북통일안을 비교하는 통일세미나(1975년)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1978년에는 한반도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한반도의 미국 정책을 유럽사회에 알리는 등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무하고 영향을 주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독일 내 지식인, 종교단체, 진보적 정당 등과 연대해 유신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를 규탄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옥중시인 김지하 구명운동²²을 통해 억압당하는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힘썼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피살사건 다음 날 발빠르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반유신 시위행진과 성토대회를 열었으며, 10월 30일엔 유신헌법과 민주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민권회원을 비롯한 40여명의 교민들이 주독한국대사관을 기습하여 일시 점거하기도 했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엔 광주항쟁의 진상을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 알리고, 김대중 구출운동에 힘썼다.

한편 한국의 안병무, 미국의 선우학원, 캐나다의 김재준 목사, 한국에서 활동하다 추방당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을 초청해서 독일 사회와 동포들에게 한국의 민주화투쟁 상황을 알렸다²³. 민권은 독일 뿐 아니라, 한민련 등 일본, 미국 등 민주단체들과도 연대해 공동 심포지엄 및 성토대회를 제네바, 파리, 도쿄,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 열기도 했다.

기관지로 <광장> (1974년 7월 15일 발간)이 있고, 1976년 1월 15일부터 <민주한국>(Die Demokratie Korea)으로 개편하여 1983년 지령 제50호까지 발간했다.

(2)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이주노동자들인 광부들의 생존권 투쟁 차원의 인권운동은 이미 광부들이 파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4년 초 3일간의 파업투쟁에서 시작하여 1979년에 본격화된 체류권 투쟁이 있다. 그 결과 광부 체류연장추진위원회와 재독한인광부인권협회가 결성된다. 이들의 투쟁과 맞물려, 광주항쟁으로 한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목도한 서독 정부는 결국 1980년 광부들에게 무기한 체류와 노동허가를 부여했다. 간호사들의 경우 1977~78년에 체류권 투쟁을 전개하여 체류 문제를 해결했다.²⁴ 70년대 자신의 체류문제를 통해 독일에서 생존권 투쟁을 경험한 그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모순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서 80년대엔 민주화를 향한 더 다양한 투쟁의 바다로 뛰어들게 된다. 본고에서는 80년대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시작이라할 수 있는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과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인 재독한국여성모임(여성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재독한인노동자연맹 (Koreanischer Arbeiterverband, 노연)은 1975년 가을부터 활동했고, 후에 한민련유럽본부와 유럽민협에도 소속되었다. 주로 뒤스부르크, 보쿰 등 루르지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독일 최초의 노동자 조직이다. 급진적이고 계급의식이 강하며 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운동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기도 했다.²⁵

자기 조직이 없었던 초기엔 일부 광부, 간호사들도 민권에 참여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²²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공광덕을 중심으로 구라파 김지하 구출위원회가 결성되어 각종 활동을 벌였다. 조병옥. 2006. 라인강변에 꽃상여 가네. 한울

²³ 이삼열. 2015.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33호, 제34호

²⁴ 이유재. 2022. “이주민 인권운동에서 국제연대로, 그리고 다시 이주민 인권운동으로” 『기억과 전망』 제46호

²⁵ 1991년 이후 전태일기념사업회유럽지부와 함께 재유럽한인노동자모임으로 통합되었다.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광부들이 주축이 된 노동운동과 간호사들 중심의 여성노동운동단체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광산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연은 결성 과정부터 체류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1980년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체류권 투쟁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처우개선 등 생존권 투쟁이 중심이 되었다.

70년대 중반 세계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독일의 불경기는 파독 광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수십 명씩 집단해고를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길이 없었고, 한국대사관마저 기업주 편에 서서 그들을 대했다. 심지어 기관원 프락치까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른바 ‘발쭌 (Walsum) 사건’이라 불리는 재독 광부 대량 해고사건을 계기로 파독 광부들의 인권 옹호와 생존을 위해 1975년 가을 노연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광산지역이 밀집한 독일의 중서부인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조직체계로는 총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회 등이 있고, 정관에 따르면 노연은 국제노동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모든 비민주적인 세력과 투쟁하고, 한국의 노동운동 발전에 이바지할 것과, 이를 지원하는 모든 국제노동 및 사회단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²⁶

창립선언문에 따르면 노연은 1974년 4월의 발쭌사건 외에, 9월 캄프린트포트에서 23명의 한국인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및 레클링하우젠에서의 임금착취와 강제출국 위협에 직면하여 동료 한인 노동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영준, 이종현, 한영태, 이한경 등이 임원으로 활동했다.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 캄프린트포트 광산 한국인 노동자 23명에 대한 집단해고 및 광산 측과 야합한 주서독대사관의 처사에 항의하는 호소문(1975.10.20.)에서 시작하여, 노동자로 독일에 오게 된 이들에 대한 의식화 작업과 매년 국제노동절(메이데이)행사 참가, 루르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켐나데 국제연대행사²⁷에의 참가 및 국내 한스제약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맞선 노조에 연대하는 투쟁(1989)을 비롯한 국내 노동운동과의 연대 등으로 이어졌다.

기관지로 <해방(Befreiung)> 및 <노연통신>이 있다.

2. 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국여성모임 (Frauengruppe in Deutschland. 여성모임, 여성회 또는 Frauengruppe로 불림)은 1978년 9월 17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987년 9월 유럽민협 결성 후엔 유럽민협에 참여했다. 여성모임도 노연과 마찬가지로 70년대 후반엔 송환반대운동 등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하다가 차츰 의식화 과정²⁸과 광주항쟁을 거치게 되면서 한국의 여성노동자 문제에 중첩되어 있는 각종의 모순들과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괴팅엔, 하이델베르크, 보쿰 등 루르지역, 브레멘 등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단체의 성격과 의의를 살펴본다면, 풀뿌리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실천되는 조직이라는 강점은 동시에 일사불란한 일 처리엔 적합하지 않은 구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동포여성들의 이해관계와 비교적 단단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지형변화라는 외풍에 흔들리지

²⁶ 1975.11.29 재독한인 노동자연맹 정관 제2조 목적 참조

²⁷ 1974년부터 루르지방에서 시작된 Kemnade Festival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국제 민주화운동 지원행사다

²⁸ 체류권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문제화시키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정치의식을 키우게 된다”고 밝혔다. 최영숙. 2007. 『파독 간호사의 투쟁사레.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참조

않고 여성 특유의 질긴 생명력으로 자기 조직을 유지했다. 최초의 여성단체로서 대부분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의식도 강하고 동질감과 결속력이 강했다.

결성과정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의 ‘인력수출’의 일환으로 독일에 온 간호사들에 대한 계약완료로 그들을 강제송환하려는 독일 정부가 자국 간호사의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간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국조치를 종용했으며, 본격적으로는 1977년부터 노동허가와 체류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강제추방을 시작했다. 한국 간호사들의 집단해고사태도 발생했다. 뮌헨의 한 병원에서는 17명이 집단해고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파독간호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1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정부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독일에서, 파독간호사들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일하던 독일인들이 함께 11,000명의 서명을 받아 냈고 여론화 작업을 이끌어 냈다. 이렇듯 송환반대운동이란 생존권 투쟁의 과정에서 재독한국여성모임이 결성된다.

1976년 4월, 50여 명의 여성들이 하이델베르크에서 한국 간호사들이 처한 법률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후 1978년 9월 17일 재독한국여성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어 재독 한국인 간호사 추방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마침내 그들은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쟁취했다. 제3세계에서 ‘팔려온’ 노동자²⁹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에 눈뜬 그들은 조직화된 운동으로 나서게 되었다.³⁰

여성회는 지역모임과 대표회, 총회, 총무단, 소위원회가 있고, 이은자(초대 총무), 전미자, 조국남, 이한나, 김진향, 최영숙, 유정숙, 서의옥, 현경애 등이 역대 총무를 역임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벌인 주요 활동은 앞서 언급한 결성 당시의 한국으로의 강제송환반대운동 등 인권투쟁으로서의 생존권투쟁 외에 국내 노동운동과의 연대 (예컨대 해고당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한 모금운동, YH사건(1979년), 원풍노조투쟁(1982년) 관련 한국소식의 독일어 번역과 배포, ‘한국의 밤’을 통한 독일사회에 여론화 형성, 한국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모금운동, 관련 자료집 제작 등의 활동을 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1986년과 1987년의 독일 아돌퍼 봉제기업과 하청관계인 이리 후레아 패션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에서 국제연대운동의 모범사례를 구축)와, 2세들과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1979년 베를린의 탈춤반을 시작으로하여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제로 한 문부식·김현장 구명운동 단막극, 여성노동운동을 주제로 한 ‘공장의 불빛’, 동학을 주제로 홍세화가 연출한 ‘금강’ 등의 연극 공연, 베를린 지역의 여성회 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풍물패 ‘들풀’과 뮌헨지역의 풍물패 ‘바람’, 프랑크푸르트의 ‘단비’와 베를린의 ‘천둥소리’ 운영), 2세에 대한 한글교육 실시, 독일어 언어연수 및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 (격년으로 개최되는 개신교 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상황을 독일에 알리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광주항쟁 단식투쟁 동참 및 오월민중제에 매년 참가, 문부식·김현장 구명운동 동참, 제1차 ‘외국여성과 독일여성들의 회합’에 참가, 코레아코미테(한국연대위)와 공동으로 88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한국 정치상황 폭로 활동, 독일여성인권단체인 ‘Terre des femmes(여성의 대지)’ 등과 연대하여 이리 후레아 패션의 노동투쟁 지원, 독일 학생장학회인 ‘ASA’에서 이영순 등 한국 여성노동자 2명이 초대되었을 때 순회강연 공동준비 및 진행, 연대하는 하나의 세계를 위한 분배 재단 (Stiftung Umverteilen für eine solidarische Welt)의 여성부와 아시아부에 회원조직으로 활동, 유럽민협 소속단체로의 각종 활동, 독일 녹색당 재단 ‘Frauen Anstiftung(여성 재단)’의 회원 조직으로

²⁹ 스위스 극작가 막스 프리쉬가 이주자에 관해 1965년 내부자들의 생각인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라고 꼬집으며 했던 말처럼, 광부들과 더불어 간호사들은 당시의 적지 않은 독일인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기보다는 ‘노동력’에 더 가까웠다.

³⁰ 여성모임 창립선언문 참조

활동 등)이다.³¹

기관지로는 <재독한국여성모임> (년1회 발간) 및 <까치소리> (계간)가 있고 그 외 창립25주년 기념문집이 있다.

3. 5.18 이후 80년대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1) 광주항쟁 연대운동

광주학살의 참상을 국내에서보다 더 잘 접할 수 있었던 독일 동포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가 휩쓸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광주항쟁 직후 국내외를 망라한 최초의 조직적 저항이 서베를린에서 시작되었다.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에 의한 광주에서의 학살과 만행의 생생한 장면들이 NDR(Norddeutsche Rundfunk)의 카메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Juergen Hinzpeter)³² 특파원 등에 의해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연일 주요 뉴스로 방영되었으며,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유학생을 비롯한 교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독일 베네딕도회의 신부들이 숨겨 가져온 ‘찢어진 깃폭-어느 목격자의 증언³³’을 비롯한 광주의 소식을 공유하였다. 동포들은 조국의 참상 앞에 망연자실하여 치떨리는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³⁴

이미 5월 25일에 국내 소식을 접한 서베를린한인교회가 긴급회의를 갖고 광주시민과 연대하기 위한 규탄시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향후 조직적 대응의 필요에 따라 한독친선협회³⁵를 결성했다. 이는 본격적인 운동단체라기 보다는 한인교회와 유학생 및 기존 운동단체와 독일 교회를 비롯한 독일인들과의 협업을 위한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

5월 26일 라인마인 한인교회가 전 교우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5월 27일엔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가 ‘최근의 광주사태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하고 미국이 질서유지라는 명분 아래 한미연합사 병력을 사용하게 한 점을 적시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전면에 제기했다. <슈트트가르트차이퉁>은 같은 날 ‘혁명정신이 우리를 엄습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광주항쟁을 다뤘다.³⁶

5월 30일 서베를린에서 열린 시위에는 동포 500여 명과 독일인 등 1천여 명이 참가해 ‘군부독재 반대와 광주 민주화투쟁 전폭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투쟁하는 광주시민과 연대하는 데모 및 학살 성토대회’를 열었다. 독일 동포들의 민주화운동 사상 최초의 많은 인원이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북과 팽과리를 치며 올리바어 광장에서 출발하여 서베를린 중심가인 쿠담 거리를 행진한 후, 비텐베르크 광장에서 성토대회를 벌였다. 이미 28일부터 베를린 공대 기독교학생회관에서 10여 명의 유학생들을 비롯한 동포들이 ‘투쟁하는 조국의 애국시민을 위한 재백림 한국인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단식투쟁을 벌였다. “한국에서 살해당한 이들을 위한 추모”라는 현수막 아래서 단식투쟁하는 사진이 “광주항쟁이 일어난 한국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단식”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³¹ <재독한국여성모임> 창간호(1979)부터 제11호(1989)까지 참조,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25주년 기념문집, 2003

³² 후일 한국인들에 의해 ‘푸른 눈의 목격자’로 칭송받은 그는 계엄령이 선포된 광주에 들어가 그곳의 생생한 참상들을 세계에 알렸고, 그가 찍은 영상은 ‘광주항쟁의 진실’이란 비디오로 한국의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의식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박영선. 2005. “독일 언론인 유르겐 힌츠페터”. 참여사회.

³³ 당시 원주성당에 피신해 있던 이창복이 광주에서의 참상을 녹음한 증언들을 모아 제작했다고 한다. 이창복. 2022.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³⁴ 어수갑. 2010. “광주항쟁과 유럽운동”. 5.18민주항쟁 30주년기념 광주아시아 포럼 발제문.

³⁵ 한독친선협회는 한독가정을 이룬 한인여성, 독일인, 여성모임, 유학생 등 7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김정숙이 대표를 맡았다. “많은 독일인도 교포 따라 시위에 참가” 광주 진압 ‘최초 규탄시위’ 독일서 열려, <오마이뉴스>. 2003.5.16

³⁶ 김면 (2007)

<타게스차이퉁> 지에 실렸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5월 28일 ‘광주시민에 연대하는 한국인 모임’이 알테 니콜라이 교회에서 50여 명이 모여 단식투쟁을 했다. 베를린 교회연합회 회장인 아우구스티노 주교와 교회원로회의 감독인 샤프 주교³⁷ 등이 연대사를 보내왔다. 같은 날 튀빙겐, 슈투트가르트, 뉘른베르크, 뮌헨의 한인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고 광주시민돕기 특별헌금 및 모금운동을 결의했다.

동포들은 5월 31일 라인마인한인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한 시가행진과 성토대회 및 헌혈에 참여했다. 또 모금한 헌금 1만 마르크를 독일교회를 통해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같은 날 재독 기독교 한인교회 협의회에서는 서독의 수도 본에서 추도모임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재독 기독교 한인교회 협의회는 당시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수없이 죽어간 광주 애국시민과 학생들의 고귀한 넋을 먼 곳에서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추도의 모임을 마련했다"며 "저들의 죽음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제물임을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깊이 뉘우칩니다"라고 고백했다³⁸. 6월 1일엔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시국간담회와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동포들은 6월 4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독일 카톨릭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여 ‘전두환 퇴진’, ‘정치범 석방’, ‘민주화’를 내걸고 1만여 명이나 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³⁹ 모금한 돈은 베네딕도회 수사를 통해 남한에 전달되었다.

한편 김대중 사형선고가 알려지자, 독일인들과 함께 즉각 석방운동에 나섰다. 코리아코미테(한국연대위원회) 의장인 귄터 프로이덴베르크 교수는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공개서한을 사민당 당수인 빌리브란트 등에 보내 김대중 등 정치범들의 석방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도록 했다. 빌리브란트는 답신에서 남한의 정치범 석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월 9일 베를린에서의 김대중 구출을 위한 시위와 ‘한국의 밤’ 행사 개최,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등 독일시민들과도 연대를 꾀했고 엠네스티인터내셔널 (AI, 국제사면위원회)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민주인사 구출에 전력을 다했다.

11월 15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도 150여 명의 동포와 독일인들이 코리아코미테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김대중 사형을 반대하는 구출운동을 벌였다.

다음 해인 1981년 5월 8일 쾰른에서는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하라’라는 교향곡이 지역 공영방송인 WDR의 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뒤셀도르프, 뮌헨, 괴팅겐 (괴팅겐은 마르부르크와 함께 진행) 등지에서 광주항쟁 기념집회가 유학생을 중심으로 열렸다.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민건과 여성모임, 코리아코미테 등이 공동으로 광주항쟁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21일에는 일본에서 제작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를 모델로 한 영화 ‘어머니’ 상영이 있었고 22일엔 광주 연대집회가 있었다. 31일엔 다하우에서 엠네스티인터내셔널과 함께 광주시민과 연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사민당 청년조직 Juso와 기민련과 기사련의 청년조직(Junge Union)이 연대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1982년에는 베를린에서 한국주간(Korea Woche)이⁴⁰, 하이델베르크에서 한독주간이 선포되어 문화행사를 벌였고, 독일 각 지역의 유학생들이 괴팅겐에 모여 함께 광주를 기념했다.⁴¹

³⁷ 샤프 주교는 광주항쟁 관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지미 카터 미 대통령에게 6월 20일과 6월 3일 서한을 보내고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³⁸ “5.18당시 해외성명서 공개돼”. 2002. <오마이뉴스>

³⁹ 서명문은 공증을 받아 미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 등 각계 저명인사와 언론사에 보내졌다.

⁴⁰ 베를린에서는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작품 ‘광주의 피에타’로 유명한 도미야마 다에코의 그림전시회, 윤이상 교수의 ‘아세아에 있어서의 예술과 인권’이란 제목의 강연 등이 있었다.

⁴¹ 광주 2주기 기념행사, <민주한국> 제45호, 1982.5.12

1983년에는 당시 서독의 수도인 본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경고파수(Mahnwache)를 벌이기도 했다.⁴² 1985년 이래로는 현재의 오월민중제처럼 매해 5월 중순의 주말을 이용해 광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여러 동포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개최했다.

이렇듯 광주항쟁을 계기로 독일 각지에서, 그리고 각 부문에서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조직을 결성하게 되고 각각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노동운동은 노연 외에 전태일기념사업회유럽지부와 베를린노동교실로 분화발전되어 갔고, 여성노동운동은 여성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회와 루르지방의 광산노동자 출신들이 한국의 민중문화를 토대로 문화운동을 벌였으며, 지식인 유학생들은 언론출판운동과 학술운동을 벌였다. 공안정국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구속자석방 등 인권운동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며 광주학살 규명과 김대중석방운동 등 국제연대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독일인들과의 국제연대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연합 차원이나 협의체 운동도 시대적인 요구로 등장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통일운동이 전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구호는 민족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의 요약일 것이다.

이렇듯 개별 운동 차원에서 광주항쟁 직후 확산되어 전개된 동포들의 민주화운동에는 대외적으로는 당시 독일의 민주적인 분위기와 신사회운동의 영향으로 독일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의식,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체류문제가 해결되면서⁴³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광부, 간호사들이 모국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체류권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가 개인의 생존권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순이 중첩된 자신들이 떠나온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광주’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준 교사였다.

(2) 노동운동

1. 국내와 연대하여 활동한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는 1986년 2월부터 1991년까지 보쿰, 레클링하우젠 등 광부 출신 가정이 많이 사는 루르지방이 중심이 되어 전독적 차원에서 활동했다.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엔 유럽민협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광산노동자(출신)들을 중심으로 국내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지부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매년 11월 전태일 열사 기념식을 치루며 열사의 정신을 기렸다. 노태우 정권 후기에 와서는 전태일 열사를 포함한 노동열사들에 대한 합동추모제로 확대했으며, 기금을 모아 국내 전태일기념사업회에 전달하며 연대를 다지기도 했다. 또 전태일의 동생 전순옥과 사무국장 정인숙 등 국내 노동운동가들을 초대하여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함께 기리기도 했다.⁴⁴

결성과정을 보면 국내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80년대 중반에 보쿰의 최정규, 레클링하우젠의 현역 광부 김대천 등 노동자들과 일부 유학생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태일기념관 건립위원회 유럽지부가 국내에서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가 전태일기념사업회로 바뀌면서 이에 맞춰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를 결성했다.

⁴² 본, 괴팅엔,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광주의거 3주년 기념행사, <민주한국> 제50호, 1983.5.31

⁴³ 간호사들은 1977년에, 광부들은 1980년에야 완전한 체류권과 더불어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했다.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2007.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한독공동심포지엄

⁴⁴ 노연이 노동자들의 계급성을 강조하여 ‘소수정예화’되었다고 본다면, 전태일기념사업회는 대중성과 국내와의 연대가 노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

조직체계는 총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되어있고, 강령에서 그들은 “국내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천만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의 건설과 민족자주통일을 지상과업으로 삼는다.”고 밝혔다.⁴⁵

그들은 매년 전태일 열사 추모제⁴⁶,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동학갑오농민제 등을 개최했다.

별도의 기관지는 없고, 해체과정은 범민련 결성과정에서 많은 노동운동 구성원들이 통일운동 쪽으로 중심이동을 하면서 1991년 노연과 함께 재유럽노동자모임으로 통합된다. 통합 이후 활동이 미약해졌다.

2. 지역 노동운동으로서의 베를린노동교실

베를린노동교실 (처음엔 서베를린노동교실로 시작하다가 독일통합 후 개칭. 약칭은 노동교실)은 1983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베를린에서 활동했다.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엔 유럽민협 참여단체이기도 했다.

국내노동운동과 연대하는 베를린 지역 노동자들의 단체로 기존의 노련과 비교해 볼 때 계급성을 강조하기보다 대중성과 회원 의식화에 상대적인 역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통일운동의 고양기였던 1990년대에 다른 노동운동 단체들이 통일문제에 매몰되어 고유한 활동을 접고 있을 때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며 존속했다.

조직 내에 회장과 서기, 교육부장이 있으며, 윤운섭, 김해동, 김아일 등이 주요 임원으로, 매년 메이데이행사 참가, 독일 노조(DGB)와 연대하여 국내 및 독일 노동운동 지원⁴⁷, 노동자교육, 성탄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국내 노동운동 지원, 노동운동 관련 단막극 <공장의 불빛> 공연⁴⁸ 등을 했다.

(3) 문화운동

1. 독일에 한국 문화 알린 한독문화협회(KDK)

사단법인 한독문화협회 (Koreanische Deutsche Kuturkreis e.V. 약칭은 KDK 또는 한독문화협회)는 유럽민협 참가 단체로, 1985년 결성되었다.

베를린의 한독문화협회는 한국문화의 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독일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진 단체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족전통문화를 배우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기 위한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운동 형태의 2세교육을 위해 1989-94년까지 베를린시의 보조를 받아 청소년회관에서 한독 청소년들의 모임인 <단비>를 꾸밀 수 있었으며, 그를 기반으로 1994년 청소년 사물놀이패인 <천둥소리>가 태동된다.

한독문화협회는 한국인 2세들이 독일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내려 긍지를 갖고 다문화사회에서 타민족들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일구었다.

결성과정에서 녹색당 대통령 후보였던 작가 루이제린저와 연극예술인 오토 친스키를 비롯한 독일 문화예술인들과 윤이상 교수 및 한국 간호사 출신들이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의

⁴⁵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규약 제3조 목적

⁴⁶ 전태일 열사 추모제,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주최 유럽민협 후원, 베를린 민협사무실, 1987. 11.13-15 <민주조국> 제1호 기사 참조, 87.11.30

⁴⁷ 예컨대 독일 지멘스 파업노동자와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지멘스 노조는 노동교실에 감사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국내 노동운동 지원은 맥스테크 위장폐업에 항의하는 맥스테크 노조와 연대 활동 <민주조국> 제6호 1988.5.1

⁴⁸ 서베를린 여성회와 노동교실이 함께 연극팀을 구성하였고 1987년 6월엔 튀빙엔까지 가서 공연하기도 했다. <공장의 불빛>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민주조국> 창간호, 87.11.30

형태로 결성되었다.

조직체계는 고문, 회장,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며, KDK는 한독간의 문화교류 특히 민중문화의 창달 및 부모 세대의 문화적 전통을 후발 세대에 교육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민중음악과 전통춤, 민중미술과 관련한 문화공연을 하거나 중개하며, 한독인들 특히 그들의 2세들을 위한 민중음악과 민중 춤을 위한 세미나 및 어학연수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⁴⁹

임원으로 윤이상(고문)과, 이민자·김 도미니카·최영숙 등이 회장을 역임했다.

80년대에 국한해 본 주요활동으로는 베를린에서 해마다 한국의 날(Korea Tage)을 개최하여 한국전통의 춤과 음악, 사물놀이 등을 공연하였다. 1987년 한국의 날에 탈춤행사, 1988년 한국의 날 노래행사 등이 있다.

2. 사물놀이를 하나로 된 노동자들의 한국민중문화모임

한국인민중문화모임으로 시작한 사단법인 한국민중문화모임(Verein der koreanischen "Minjung" Kultur e.V.)은 약칭 민중문화모임으로 유럽민협에 참여했고, 1986년 11월 결성되었다.

광부·간호사 출신이 밀집한 보쿰 지역에서 동포들과 그들의 2세들이 중심이 되어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중문화를 통해 동포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광주기념행사인 오월민중제 주관단체의 하나다.

1987년 봄부터 보쿰 시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한국인의 집’이 개소되면서, 상설적인 공간이 확보되었고 민중문화모임 회원들은 그곳에 북이며 장구를 두고 풍물을 치게 되면서 태동되었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가 있고, 최태호·최정규·조기상·김광호 등이 주요 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광부, 간호사 출신 동포들이 밀집한 보쿰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들에게 한국의 민중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냈다.⁵⁰ 또 ‘한국의 밤’이나 ‘한국주간’⁵¹ 등을 독일인들과 함께 주관했다. 판화전과 마당극을 열고 통일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한국의 민주단체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했다.

(4) 언론·출판운동과 학술운동

1. 지식인 중심의 이론지 <민주한국>

<민주한국(die demokratie korea)>은 민건회의 기관지로, <광장/Forum> (1974년 7월 15일 발간)이 1976년 1월 15일부터 신문 형태를 띤 <민주한국>으로 개편하여 1983년 지령 제50호까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발간되었다.

⁴⁹ 1985년 6월 30일 발기인회의에서 확정된 규약의 2조

⁵⁰ 이들에게 풍물과 탈춤을 가르쳤던 여성모임의 송금희는 “독일 땅에서 한인들이 민주화운동을 함에 있어,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갈증”이라고 했다. 독일이주여성들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2014. 재독한국여성모임. 당대

한국인민중문화모임 주최 판화전과 마당극(87.12), <민주조국> 제2호, 1988.1.1

⁵¹ 보쿰 한국주간(88.3.5-22), <민주조국> 제5호, 1988.5.1

민건회는 기관지를 통해 국내의 민주화투쟁 소식을 전하고 연대하는 일을 하였다. <광장>에서 <민주한국>으로 개편하면서 “종래의 <광장>을 민주사회 건설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지로 편집의 방향을 바꾸고 <민주한국>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⁵²⁾”고 밝히면서, 일반 대중지라기보다는 민건의 주축을 이루는 지식인 중심의 이론지임을 밝히고 있다.

송두울·김길순·이종수·오대석 등이 유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다. 김길순이 한국학술연구원(KOFO)을 결성하고, 또 함께 신문발간을 거들던 유학생들이 귀국하게 되자 역량이 줄었으며, 그에 더하여 <우리나라> 신문이 발간되고 민건회 활동이 차츰 둔화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정간에 이른다.

<민주한국>에 게재된 주요 기사로는, 민건회 세미나 (1981.12.19/20 프랑크푸르트) 성황, 논단; 한국 경제의 현실과 민주화운동의 방향, 역대 한국군 주요지휘관의 출신성분 분석, 서백림에서 코리아 심포지엄 개최, 타오르는 반미투쟁 성조기도 불살라, 광주 의거 2주년 맞아 각지에서 기념행사(서백림·뮌헨·그라드바하·하이델베르크·동경), 제네바 제5차 민족통일심포지움, 한반도의 제한 핵전쟁, 한미수교 백주년의 의의, 본(Bonn) 반전반핵데모 한국인도 참여, 파리에서 한국인권문제 국제회의, 국제인권문제와 한민련 공동주최, 프랑크푸르트 재독한국여성모임 ‘광주봉기백서’ 토론, 서백림 바이체커 시장 민정당 대표 맞아 김대중씨 석방요구, 한국적 보수주의는 왜 배척당해야만 하는가?, 한국학술연구원 세미나 개최, 논단; 한국은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는가?, 번역; 동아시아적 발전의 길에 대하여/ Dieter Senghaas,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국의 원자력, 논단; 해외민주운동에의 기대, 서평; 백낙청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논단; 해외민주운동에의 기대, 자료; 83민주학우 대정부투쟁선언 등이다.

2. 독일 최초 남북한 관련 민간연구소 한국학술연구원 (KOFO)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Korea Forschungsgemeinschaft e.V.)은 KOFO로 불렸으며, 1982년 2월 10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오펜바하에서 결성되었고 1987년 김길순 박사의 지병에 따른 귀국으로 결국 1990년대 초 해소되었다.

독일에서 학술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윤이상·김길순·송두울·정성배·강돈구·공광덕 등 민건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KOFO는 의장단과 회원총회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의장(원장)과 사무총장 및 회계로 구성되었다.

KOFO는 광주항쟁 이후 점증하는 국내문제에 대한 학문적 규명의 필요와 남과 북을 아우른 차원의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제적인 명성과 상징성이 있는 윤이상이 초대 원장에 부임했지만 실제 업무는 김길순이 전담했고, KOFO는 남과 북의 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접촉하여 상당수의 출판물을 비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남·북·해외 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펼쳐나간 듯하다. 적지 않은 유학생들과 동포들은 연구원에 소장된 각종 북한 원전을 접하면서 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도 했다. KOFO 입장에서는 학술운동 차원의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편 셈이다.

KOFO는 학술행사⁵³⁾와 학술지 간행⁵⁴⁾ 등을 통한 한국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한국문제에

⁵²⁾ <민주한국> 1976.1

⁵³⁾ KOFO 주최 한일관계 학술세미나, <우리나라> 제2호, 1982.11.1. KOFO, 통일문제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제46호 1986.11.1. 참고

⁵⁴⁾ 발간자료는 1. Dr. Chung, Sung-beh, Japan-South Korea Relations: Impact of the Security and Economic Problems, Offenbach, 1983. 2. Dr. Song, Du-Yul, Südkorea, Auf den Spuren der Japaner?, Offenbach, 1984. 3. Lee, Hwesong, Die Probleme der koreanischen Minderheit in Japan, Offenbach, 1983. 4. Dr. Park, Sung-Jo, Die ostasiatische Wirtschaftsintergration im amerikanisch-japanischen Interessenpolitik-unter bes. Berücksichtigung der Entwicklungen Koreas-, Offenbach, 1983. 5. Lee, Mu-Choon, Entwicklungen in d

관한 정보교류 및 양국의 통일문제 등을 통한 한·독 상호간 이해 심화를 목적으로 삼았다.

주요활동으로는 한국 문제 세미나 개최 및 한국 문제에 관한 각종 자료집 발간, 한국인 독일 박사학위 목록집 등 학술지 간행, 도서대출 등의 활동을 하면서 KOFO 공간이 유학생을 비롯한 동포들의 사랑방 역할도 했다.

해체과정을 살펴보면, 김길순 1인에 의한 학술운동은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하여 주변 유학생과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김길순 귀국 후에 자료 등의 보관 문제로 부활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불발에 그치고 자료 중 일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일부는 코레아협회(Korea Verband)에 기증되었다.

3. 개인 운영 신문 <우리나라>

<우리나라 (URINARA)>는 오펜바하에서 1982년 10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87년 4월 1일 지령 제50호로 종간되었다.

기존의 <민주한국>이 민건회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갖는 제약에서 벗어나 북한 인사들과의 대담 기사 등을 기획하는 등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하고자 했던 오석근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창간호에 실린 ‘<우리나라>를 내면서’에서 “외세문제를 극복하고 민족주체의를 관철하여 통일독립국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언론운동을 펼치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⁵⁵

<우리나라>는 미국문화원 방화사건특집, 한일관계 좌담회 (정성배·공광덕·김창락·송두율),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 및 공동성명, 국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게재, 재독한국여성모임 주최 김현장·문부식씨 구출운동, 대담; 북에 다녀온 김성락 목사·조선키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고기준 목사, 한미관계 좌담회/송석중·선우학원·강종수·공광덕, 헬싱키 남북대화 보고 및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전금철,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정기총회, 재독한인들의 반전반핵운동, 쾰른 미문화원 앞에서 성토대회, 한민련 사회주의 인터 총회에 참석, 켐나데 축제에 노연 참가 및 TV회견, 북미기독교자회 연차대회, 미·일·한 3각군사동맹체제의 의미, 불타오르는 분노: TK생의 통신, 송건호 선생 독일 순회강연, 이해동 목사 백림교회 설교문 (차라리 내가 죽는데 서명을 하라면), 윤이상 (나의 작은 누님), 스페인사회당 전당대회에 한국대표로 한민련 초청, 제3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간의 대화 비엔나에서 100여명 참가, 전 본사 편집국장 안상근씨 전 정권에 의해 살해, 갑오동학농민제 한독연대로 성대히 개최 세미나·연극·마당극·탈춤 등 행사, 본에서 고문철폐와 안상근 살해규탄 촛불시위, 재독한인교회목사회 회장 장성환/성명서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결의, 재미한청련주최 워싱턴 재미동포회의, 스위스에서 남북 교회지도자 40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주간에 한국소개와 연극 <공장의 불빛> 공연, 제1차 재독 한국민주단체 대표자회의, 박종철 고문치사규탄 경고파수/본·서백림·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고 김재준 목사 추모예배, 광주민중항쟁 7주년 기념 오월민중제 취지문,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여성회

er Umweltpolitik Südkoreas im Widerspruch zwischen Industrialisierung und Umweltschutz, Offenbach, 1984. 6. Dr. Kahng, Kwang-Seuk, Will South Korea be another Vietnam? Offenbach, 1984. 7. Prof.Dr.h.c. Isang Yun, Bewegtheit in der Unbewegtheit: Über meine kompositorische Entwicklung in Europa, Offenbach, 1985. 8. Prof. Dr. Harold Hakwon Sunoo, 100 Years of U.S.- Korea Relationship, Offenbach, 1985. 9. Dr. Song, Du-Yul, Politik und Gesellschaft in der Republik Korea(Südkorea), Offenbach, 1985. (이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10. 한국인 독일 박사학위 목록집 11. Perspektiven in Korea, 1986 등이다.

⁵⁵ <우리나라> 창간호, 1982.10.1

회원 참가 등을 기사를 게재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 오석근은 <우리나라>가 재정상의 이유로 폐간된 후 일종의 회고록인 『육천만 동포 사백만 교포 그 모두가 한을 안고』(1987, 오픈바하)를 펴내기도 했다.

4. 한/독판 동시 발행 신문 <민주조국/ MINJUCHOGUK (Demokratie in Korea)>

한글판 <민주조국>과 독일어판 <MINJUCHOGUK(Demokratie in Korea)>은 유럽민협 기관지이며 월간으로 베를린에서 발행했다. 1987년 11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주요임원은 정규명(발행인), 어수갑(편집인) 등이다.

<민주조국>은 국내 주요 운동권과 대학 학생회에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유럽민협 소속 단체들의 동향과 국내외 운동권 소식 등을 게재했다. 독일어판 <민주조국>은 유학생, 1.5세⁵⁶, 독일인이 함께 만들어서 독일의 주요 정치인들과 정당 및 각종 인권단체에 발송하고 그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후일 유럽민협이 공안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모함을 받을 때 서독의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 신문의 제자(題字)는 파리의 이응로 화백이, 신문 편집을 위한 컴퓨터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만든 것으로 윤이상 교수와 루이제 린저가 구입을 지원했다.

80년대에 국한해 살펴 본 주요 기사로는, 재독교포 김형규씨 간첩사건 관련 기사와 성명서, ‘배후’ 김성수씨 해명서,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주최 민주제 개헌관철을 위한 단식기도회, 레이건 서베를린 방문 반대데모, 개신교회의 날 행사에 민협 회원단체 참가, 에센대학 한국의 날 행사,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준비위원회 주최, 햇센 나싸우 지역교회 한국주간행사 및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서베를린 여성회와 서백림노동교실 튀빙겐에서 연극 <공장의 불빛> 공연, 통일세미나, 한국여성노동자회,민협 결성 연대사, 송기숙 교수 좌담회, 김봉준 좌담회 및 판화전, 사회과학세미나, 대통령선거에 관한 민협 입장(독문) 타게스차이통지에 실려, 민협 주관 한국의 밤,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 및 <최혁배 구출위원회>결성, 안병무 박사 본사 방문 및 좌담회, 루셀스하임과 보쿰 한국주간, 윤한봉씨 민협 방문 및 좌담회, 괴팅겐에서 한국문화의 밤과 김봉준 말뚝이 전시회,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김포공항에서 강제추출, 윤이상 교수 독일대공로훈장 서훈, 전태일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재유럽노동단체 공동수련회, 한국여성노동자들 서백림 강연, 황석영·명진 스님·이영순·홍성담·위인백 민협방문 좌담회, 김근태씨, 함부르크 제정 양심수로 선발, 조성우 본사 방문, 윤이상씨 본지와 회담, 민협 남북학생회담 적극지원키로, 오스나브뤼크 한국의 날 행사, 백기완씨 민협과 녹색당 초청 독일방문 및 강연회, 서베를린에서 IMF 세계대회 반대행사에 여성회,노동교실 참가, 마부르크에서 홍성담 판화전, 여성회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설립모금, 김상덕 가농회장 민협방문 좌담회, 민협 등 김현장·문부식 석방운동, 괴팅겐에서 남민전 김종삼 석방운동, 전 녹색당 당수 페트라 켈리 김형규씨 구출을 서독 외상에 요구, 전민련 조통위의 범민족대회 제안 관련 민협입장 밝혀, 전민련 결성 축하문 발송,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공동의장 정호경 신부 민협과 좌담회, 유럽범추본 결성을 위한 민주단체들에 보내는 초대장, 범민족대회 유럽지역추진본부 결성, 전민련 조통위(이재오) 민협에 격려사, 범유추본 결성선언문, 이종수 민건의장 안기부 연행, 기장총회총무 김상근목사 간담회, 정평통 발족, 서독정당 단체들 노동운동탄압 노정권에 공개서한, KOKOKO가 전민련 지지 광고, 문국주씨 민협 방문, 노이이젠부르크에서 범유추본 실무대표자회의, 브릴론에서 89 오월민중제, 괴팅겐·베를린·프랑크푸르트에서 전순옥씨

⁵⁶ 한정화의 글에 당시의 분위기가 잘 그려져 있다. 한정화. 2022. 주변에서 중심으로, 한국의 탈식민주의여성운동 이 독일사회에 끼친 영향. 기억과 전망.

강연회, 이윤정 대담, 서경원의원사건에 정규명 대표 법정투쟁 밝혀, 사회주의인터 스웨덴 총회에 민협참가, 서베를린에서 개신교대회 남북한참가, 평축 참가 직전 임수경 인터뷰기사, 서경원 의원 사건관련 민협을 친북전위조직으로 매도, 인종차별반대집회 민협참가, 루이제린저가 임수경에게 보내는 글, 안기부, 유럽민협 탄압에 광분, 유럽민협 국제연대에 박차, 서독녹색당이 유럽의회에 한국정부 비난촉구, 유럽민협 탄압관련 대정부질의서 제출, 국제사면위에 임수경·문규현 신부 석방운동요청, 권터그라스 등 한독 대통령에 항의서한 발송, 영사관 앞 4주째 유럽민협탄압 항의 시위, 녹색당 의원 유럽민협 방문하여 협력모색, 서독내에서의 한국안기부 활동 관련해 녹색당이 대정부 질의서 제출, 국제펜클럽 김현장씨 등 석방요구, 국내동포들에게 보내는 유럽민협의 양심선언, 민협 등 노태우방독규탄 공투위 결성 및 궐기문, 서베를린에서 민협주최 한국문제 강연회, 서독 지식인들 홍성담씨등 석방운동, 유럽의회 결의문, 함부르크시 임수경·홍성담 올해의 인물로 선정, 재미 목사 김민웅 기고 해외운동의 조직화와 사상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주조국>의 역할, 본에서 대규모 노태우 방독규탄시위, 서베를린 녹색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빌리브란트 전 수상이 유럽민협에 서한, 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 장기수대책위에 연대 전문, 바이체커 대통령이 유럽민협에 감사서한, 유럽민협 임수경 씨 등 석방 1차 서명용지 전달, 김현장·김영애 구출위 결성, 뒤스부르크에서 제1회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문익환 목사 가족 유럽민협 등에 석방협조 요청, 유럽민협·사민당·녹색당 등과 연합구명운동 전개, 김현장·김영애씨 구속 관련 민협 성명서 등, 독일에서 진행된 거의 모든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소식이 망라되어 있다.

(5) 재독동포들의 치열했던 인권운동

1. 장기수대책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구속된 김현장·문부식을 위한 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발족한 장기수대책위원회 (Koreanische Unterstützungsgruppe für politische Gefangene in Südkorea, 후에 재독양심수후원회로 개명. 약칭은 장기수대책위)는 유럽민협에 참여했으며 주로 쾰른 및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1988년 12월부터 1999년까지 활동했다.

장기수대책위는 독일과 관련하여 발생한公安사건에 대하여 국내의 운동권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예컨대 안상근씨 의문사사건이나 김형규씨 사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때 (유럽민협 반국가단체 사건), 적극적으로 유럽의 각 정당과 인권단체에 이를 홍보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했다. 그 외에도 국내의 정치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정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가교역할을 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장기수대책위의 활동은 그간의 해외운동이 일방적으로 국내운동을 지원하거나 국내운동의 지시에 따른 행동의 댓가로 얻은 ‘반국가단체’나 ‘친북단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고⁵⁷ 스스로 궤멸하는 차원을 벗어나,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해외운동 방향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었다.

장기수대책위는 국내외 민주화운동의 활동이 거세지면서 그에 비례하여公安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 조응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치범들의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해 결성되었다. 처음 결성 당시에는 장기수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가 독일에 관련된公安사건들이 양산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이영숙, 이한나, 신옥자 등이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주요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서방운동 전개, 항의서·탄원서 보내기, 국내 민가협, 인권운동 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교류 및

⁵⁷ 전대협에서 파견한 임수경의 평축참가를 전대협의 요청에 따라 단지 도왔다는 이유로 졸지에 유럽민협은 ‘반국가단체’로, 유럽민협 총무인 필자는 ‘반국가단체 수괴’ 또는 ‘공작원’이 되었다. 어수갑. 2004.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휴머니스트.

연대, 독일단체와 연대 및 한국 인권상황 홍보활동, 국내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직접 짬스웨터, 약품 보내기, 출소한 무의탁 장기수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민가협 활동에 동참, 모금 및 수익사업 등이다.

이들의 활동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1993년부터 존립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체되었다.

80년대 이들의 활동을 보자면, 서독 연방대통령 비서실 국제관계 책임자 Berthold von Pfetten이 이영숙 회장에게 보낸 서한, 독일연방 상원의장 발터 뮐퍼가 장기수대책위에 보낸 서한, 독일 녹색당 대변인이 장기수대책위에 남한인권문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공문, 독일연방의회 인권담당 외사부가 독일연방 국회의장 리타 쥐스무트 씨를 대신하여 장기수대책위에 보낸 서한, 독일외무부가 김형규씨 등 한국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수대책위에 보낸 서한, 함부르크 자유예술아카데미가 귄터 그라스·힐트만·발터 엔 등의 연명으로 연방대통령 바이체커에게 임수경, 문익환, 홍성담 등의 석방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서한, 함부르크 자유예술아카데미가 귄터 그라스·힐트만·발터 엔 등의 연명으로 노태우 한국대통령에게 임수경, 문익환, 홍성담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 등 활발한 국제연대의 성과가 있었다.

2. 기타 인권운동

장기수대책위와 같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단체는 아니었지만 그 외의 주요한 인권운동으로는 전술한 한민련 유럽본부 등이 주도했던 김대중 구출운동과 여성모임이 주도했던 김현장·문부식 구명운동, 기통회·유럽민협 등이 주도한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관련자와 재독동포 안상근씨 의문사 규명운동, 유럽민협의 최혁배 구출위원회와 김형규씨 석방대책위원회, 기타 김근태, 홍성담, 문익환, 임수경 등 구속 국내인사 석방운동 등이 각 부문운동 및 연합운동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70년대 중후반에 노연과 여성모임에서 행한 추방반대운동 등 생존권투쟁 차원의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6) 국제연대운동⁵⁸

1. Korea Komitee (한국연대위원회)

Korea Komitee (코레아코미테, 한국연대위원회 또는 한독연대위원회 혹은 한국위원회로 다양하게 불렸다)는 1977년 2월 27일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1990년 11월 18일부터 「코레아협의회(Korea Verband)」로 확대, 개칭되고 1994년에 해산되었다.⁵⁹

초대 의장이었던 프로이덴베르크 전 오스나브뤼크 대학총장의 소재지인 오스나브뤼크, 코레아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있던 ‘아시아의 집’ 소재지인 에센, 코레아협의회가 소재한 베를린 등 서독 전지역의 지역모임에서 활동했다.

독일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각별하여 동백림사건 이후 한독 지식인들이 연대해 한국연대위원회(Korea Komitee)가 만들어졌는데, 재독 동포 민주화운동 단체들과는 자매단체로서 한국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부터 윤이상과 알고 지내던 프로이덴베르크 교수는 윤이상 부부가 1967년에 남한으로 납치된 후 대학이나 교회의 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박정희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다. 남한의 민주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Korea Komitee의 결성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⁵⁸ Korea Komitee와 Korea Verband, KoKoKo 등의 국제연대운동에 대하여는 당시 직접 참여해 활동했던 최현덕의 논문이 있다. 최현덕, 2023. 독일 시민사회에서 전개된 한국 민주화를 향한 연대운동-한국연대위원회 (Korea Komitee, 1977-1994)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49호.

⁵⁹ 코레아협의회는 지금도 존속하여 활동 중이다.

조직체계를 보면, Korea Komitee는 개별 인사, 지역 혹은 지방 단위의 소조직(Sektionen)의 연합체로, 그런 소조직들은 서베를린, 루르지방, 오스나뉼르크, 괴팅엔, 프랑크푸르트, 뮌헨에 있었다.

Korea Komitee는 후술하는 KoKoKo를 조직하고 관리했다. 1977년 결성된 제3세계 연대운동단체인 BUKO (독일연방 개발도상국 정치 행동단체)에도 가입하였다.

역대 주요 임원으로 프로이덴베르크 교수(Korea Komitee 초대위원장 겸 Korea Verband 명예회장), 라이너 베르닝, 라이너 흐루스카, 롤란트 바인, 최현덕 등이다.

Korea Komitee는 정치범의 석방, 인간적인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의 건설, 내정 간섭의 종식, 한반도에서의 냉전과 무장의 종결 등에 대한 한국인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데에 진력하였다. 아울러 서독과 서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항했다. 또 독일 정부와 언론으로 하여금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도록 노력했다.

1977년 8월 동경에서 열린 해외한국민주운동대표자회의에 프로이덴베르크 교수가 참가하여 그들과 한민련 결성을 함께하고, 1978년 6월 서독의 수도 본에서 한국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국제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I)에 한민련이 가입하거나 옵저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지원하기 위해 Korea Komitee는 서독에 살고 있는 재야 한국인 그룹과 공동으로 공개적인 집단행동들, 세미나의 개최, 그리고 후원금의 모금 등의 일을 벌여 나갔다. 그들은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단식투쟁, 추모미사와 데모 등을 통해 광주항쟁을 알리고, 광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베네딕도 수사들을 통해 광주에 재정지원을 했다.⁶⁰ 또 그들은 김대중 구출운동에도 동포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그 후에도 Korea Komitee는 동포단체와 함께 전두환 방독 반대 데모, 오월민중제 참여, 80년대 후반 공안사건에 동포단체와 공동대처하는 홍보활동 등을 벌였다.

Korea Komitee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소식지 (Korea-Korrespondenz)>를 발간하여 다양한 단체들이나 인사들에게 한국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 소식지가 발간되자 한국문제는 더욱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 정보지 성격의 <코레아포럼>(Korea Forum) (책임 편집 힐트만, 최현덕)을 2년간 발간했는데, 독일어 및 한국어로 된 <코레아포럼>은 정기적으로 한국 내외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사실들을 한국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분석하며 토론의 광장으로의 기능을 수행했다.

2. KoKoKo (코레아 연석회의)

코레아 연석회의(혹은 한국문제 제단체 연석회의. Korea-Koordinations-Konferenz. 약칭은 KoKoKo)는 Korea Komitee가 주도하여 1979년 세웠다. 하노버, 에센, 뒤스부르크 지역 등에서 활동했다. KoKoKo는 독일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로 활동을 하는 한독 제 단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동의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 단체로 KoKoKo의 사무는 후에 코레아 협의회(Korea Verband)가 했다.

한독간의 정치, 인권, 문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제고되면서 프로이덴베르크 교수를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에 개방되었다. 박정희 시해사건 직후인 1979년 10월 30일 KoKoKo는 민건,

⁶⁰ Roland Wein. 2007. "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 사업". 해외에서의 5월 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5.18 재단

노연을 비롯한 40명의 동포들과 함께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본 주재 한국대사관을 일시 점거하여 유신헌법 철폐와 계엄령 해제, 애국인사 석방 시위를 함께 벌이기도 했다.⁶¹

라이너 흐루스카, 이종현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코레아 연석회의는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해외동포 단체뿐 아니라 독일단체들이 한국문제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분산적이고 다층적으로 활동했던 제 단체들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정이나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졌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문제에 대한 학문적 규명과 실천적 뒷받침을 했다.⁶² 1986년부터 2년간 한국 올림픽 캠페인(올림피아 캠페나)을 벌여 88올림픽 개최로 이목이 집중된 한국의 실상을 외국인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작업, 한국문제 세미나 주관⁶³, 각종 연대시위, 회람문 <Rundbrief KoKoKo> 발간을 통한 독일내 한국문제 홍보 등의 활동을 했다.

(7) 유학생 운동

1. 광주항쟁과 유학생

1980년 광주항쟁이 발발하자 유학생들은 국내상황에 마음을 조리며 삼삼오오 모여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⁶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를린 유학생들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교민들과 함께 단식투쟁⁶⁵을 벌이고 플래카드를 만들어 시위행진을 벌였다. 괴팅엔, 마르부르크, 튀빙엔⁶⁶, 보쿰⁶⁷ 등의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학생회를 결성하여 성명서를 내었고 뮌헨과 에센의 대학에서는 기독교학생회를 통해 자료집을 독일어로 발간하여 독일 사회의 동조를 구했다.

광주항쟁 이후 유학생들은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기념행사를 대학 단위로 열었으며, 대학이 산재된 독일 각 지역의 열기를 모아 전유럽 차원의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유학생들을 모으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사회과학세미나가 결성되기도 했고 일부는 비공개 조직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⁶¹ 'Dokumentation; 대사관 진입, 농성, 성토대회에 관한 보고서'

⁶² 예컨대 KOKOKO, 전민련 지지 광고,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⁶³ 예컨대 KOKOKO, 뒤스부르크 모임, 4.21-23,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⁶⁴ 물론 다수의 유학생들은 침묵을 지켰다. "광주항쟁 직후 베를린자유대학 교정에서 내가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걸었던 한국 유학생들은 한결같이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돌아섰다. 그들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사회에서 출세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김순임,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2014. 재독한국여성모임. 당대

⁶⁵ 베를린 기독교학생회관(ESG)에 모여 단식한 학생들은 손영원, 이무춘, 박호성, 위상복, 김설희, 노명려 등이었다.

⁶⁶ 튀빙엔대 한인 유학생들은 광주항쟁이 발발하자 학생회를 만들고 구자운, 이기수, 이상화 등이 성명서를 작성, 본 대사관 앞 시위에 참가했다. 성명서는 세로쓰기로 붓으로 쓴 아름다운 산문체였다. "(전략) 지금 이 순간 조국의 현실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잔인한 고문과 탄압에 신음하면서도 끈질기게 투쟁을 결의하고 있을 수많은 동포들과 지금 멀리 조국을 떠나 있는 우리는 긴박한 조국의 현실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다. 잔악과 독선의 전제군부 독재를 영원히 분쇄시키려는 그들의 결의와 우리의 결의가 뜨겁게 한 핏줄로 만날 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대투쟁의 대열에 모두 함께 앞장서 일하려는 뜨거운 의지가 우리 가슴 속에 불붙을 것이다. (중략) 이제 이러한 분노의 힘을 새역사 창조의 필연적인 힘으로 전환시키고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 차이와 상황을 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뜻을 새로이 확인하고 밝혀내면서 그러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하나로 묶는 일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단 하나의 필연적 진실임을 고백한다. (중략) 그럼으로써 우리는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고난으로 열어 놓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또한 정의롭게 장식해 나갈 것이다." 튀빙엔 대학교 한인 학생회, 1980.6.3.

⁶⁷ 보쿰대학 유학생들은 최종욱 등이 주도하는 한국사회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자료집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주소-광주사태에 대한 진상보고'를 만들어 교포사회와 독일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계기로 '광주 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국학생의 모임'이 결성되었다. 향후 이들은 지속적으로 광주기념행사를 치루고 사회과학세미나에도 참여했다.

광주항쟁의 여파는 80년대 내내 이어지다가 6월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정점으로 불타올랐다. 1987년 6월 25일 보쿰대학의 유학생들이 먼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글을 통해 그들은 “유학생이라는 우리의 위치가 결코 우리의 일관된 침묵을 합리화시키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전제로 “수난의 십자가를 지고 의연히 일어나 싸우고 있는 조국의 민중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굳은 연대”로 전두환 정권의 퇴진과 새로운 헌법으로 새 정부를 구성할 것과, 노동자·농민·도시빈민에 대한 규제와 탄압 중지, 민족통일이란 지상의 과제를 전 민중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수감 인사 즉각 석방, 한민족이 함께하는 88올림픽 개최 등을 주장했다.⁶⁸

2. 사회과학세미나, 재유럽민주청년연합(JUKO), 6월항쟁 연대시위

재유럽민주청년연합 (Demokratischer Verband der Jungkoreaner in Europa. 재유민청 또는 유코 (JUKO)로 약칭함)은 비공개단체로 1984년 11월부터 1986년 가을까지 사무실이 있던 괴팅엔과, 회원 소재지의 유학생회 및 사회과학세미나와 광주기념행사가 열리는 지역 등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광주항쟁을 계기로 괴팅엔을 비롯한 마르부르크, 베를린 대학 등의 유학생들이 지역 차원에서 광주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서로 만나다가 한국문제를 토론하는 ‘사회과학세미나’를 조직하고 미리 주제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각 대학의 유학생들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치렀다. 사회과학세미나는 1982년 12월 쾰른에서 시작하여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회 한국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유학생들의 의식화를 주도했다.⁶⁹ 그런데 국내에서 청년조직인 민청련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데에 고무된 유학생들이 그동안 비공개 일회성 학술운동인 사회과학세미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일 내의 기성운동과 연대활동을 벌이는 등 보다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재유민청을 결성했다.⁷⁰ JUKO 회원 중 몇몇은 후일 귀국하여 홍성담씨 사건 및 서경원 의원 사건, 임수경 방북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의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⁷¹

JUKO의 주요활동으로, 국내외 운동단체와의 정보와 자료의 교환·수집·분석 및 평가, 학술토론, 번역, 출판, 홍보 및 2세에 대한 민족교육, 국내외 운동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위한 각종활동에 의거하여 1년에 1번씩 진행되던 전유럽 차원의 사회과학세미나를 지원하고, 5월에 각 대학도시에서 치러지는 광주기념식 주도 및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등과 같은 기성단체의 측면지원과 외부행사 지원 및 국내 운동권에서 만든 테이프 등 판매, 내적으로는 학습과 노동을 했다. 노동은 괴팅엔 인근의 밭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배추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수확해서 일부는 판매하여 활동자금으로 활용했다.⁷²

기관지는 따로 없었고 ‘내신(內信)’이란 이름의 내부학습 및 통신용 기관지가 1호부터 8호까지 만들어졌다.

해체과정을 살펴보면, 학업을 마치면 귀국해야 하는 유학생이란 신분상의 제약으로 비공개로 시작한 조직은 활동과정에서 자연 노출됨에 따라 위축되었다. 당시 유학생과 연계된 공안사건이 횡행하던 시기였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현장론과 준비론,

⁶⁸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보쿰대학 유학생 시국선언문, 1987.6.25.

⁶⁹ 이종오·박호성·김세균·홍세화·김대환·박영은·최종욱·손학규·정현백·정범구·어수갑·차명제·이채인·박상환·양정윤·오세종·이영·박병섭 등이 참여하였다.

⁷⁰ 주요 회원은 홍세화(파리), 최종욱(보쿰), 정범구·이영·이채인(이상 마부르크), 박상환(기센), 이은자·정유성(이상 뮌헨), 양정윤(쾰른. 회계), 승정현·차명제(이상 뮌스터), 오세종·이문호·황기돈(이상 괴팅겐), 박병섭(키일), 박재원·어수갑(브레멘. 초대 총무), 정윤선(프랑크푸르트. 2대 총무) 등이다.

⁷¹ 서의원사건 관련 독일 유학생 출신 강제연행 <민주조국> 제21호 89.8.1

⁷² 어수갑, 2004,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휴머니스트, 뮌스터에서 유학생 사회과학세미나, 87.12.26-29 <민주조국> 제2호, 1988.1.1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사회구성체론에 따른 입장 차이 등으로 현장론의 입장에 선 일부가 유럽 기성 운동권으로 편입되고, 일부는 1.5세 내지 2세들을 모아 기층운동을 벌이기 위해 별도의 그룹을 만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학업을 이유로 운동을 중단하면서 결국 1986년 해체되었다.⁷³

하지만 이들의 활동과 역량이 중심이 되어 국내 6월항쟁과 연대하는 <조국민주화실천대회>가 6월항쟁 직후에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리게 된다.

1987년 7월 4일,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서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교포단체들과 교회, 독일의 주요 인사들이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독일의 25개 도시에서 온 5백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는 광주항쟁 직후 베를린에서의 대규모 시위 이래 인구 3만 명의 독일 교포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⁷⁴ 이때가 독일에서의 유학생 운동이 정점에 오른 순간이었다.

‘조국민주화 실천대회 재독 한국학생’ 명의의 성명서⁷⁵를 통해 그들은 “4·19와 80년 5월 서울의 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미국과 군부독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잠깐 동안의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어떠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뼈저리게 배운 바 있다”며 6월항쟁 직후의 일부 낙관적 상황을 경고하고 투쟁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군부독재정권이 즉각 퇴진과 처벌, 미국의 어떠한 개입과 간섭도 단호히 분쇄, 야당지도자들을 비롯한 재야인사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희석시키지 말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정치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될 것을 요구하며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고, 88올림픽이 정권연장 획득을 위한 선전장으로 되거나 소수 독점재벌만의 이익에 봉사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했다.

6월항쟁의 열기를 담아 일부 유학생들은 ‘조국민주화를 위한 재독한국학생협의회’라는 명의의 소식지 <민주실천>을 내고 주변에 공유했고, <Undong(운동)>이란 독일어 소식지도 3호까지 만들었으나 지속되지는 못했다.⁷⁶

(8) 지역과 부문을 넘어 연합운동으로

1. 한민련 유럽본부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 유럽(구주)본부 (Union of Overseas Koreans for Democracy & Unification -Europe Section 후일 한민련의 명칭은 Alliance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of Korea-Han Min Ryun으로 바뀜)은 한민련에 소속돼 있으며, 산하단체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불란서 한국민족문제연구회(불란서 민건), 덴마크 민족문제협의회(덴마크 민건), 스위스 민주사회건설협의회(스위스 민건)가 있고, 자매단체로 한국연대위원회(Korea Komite)가 있다.

⁷³ 이들은 후일 대부분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포럼 93’을 만들었다. 포럼 93에 대하여는 롤란트 바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1993년에 율리아 벤트란트와 귄터 프로이덴베르크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남한의 재야 단체들, 교회 관련 그룹들, 예술가들, 그리고 학자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협회와 그 활동영역 및 구조를 설명하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파트너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독일 내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측의 생각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숙고의 결과가 바로 ‘포럼 93’, 즉 한국 학자들의 동맹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작업은 독일 내의 한국-사업이 강화되는 데에 기여한다고 말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호간의 연대라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Roland Wein. 2007. 광주 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 사업, 해외에서의 5월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5.18기념재단

⁷⁴ 본에서 재독한국학생준비위원회 주최 조국민주화실천대회, 87.7.4, <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어수갑. 2007. 독일에서의 6월항쟁, 80년 5월에서 87년 6월로.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⁷⁵ 성명서,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 일동, 1987.7.4 <자주> 제34호, 1987.7.25

⁷⁶ 정윤선이 1.5세인 김대흡 등과 함께 독일어로 만들었다.

한민련유럽본부는 유럽지역 최초의 해외를 아우르는 연대조직이란 의미가 있다. 사회주의 인터(SI)와의 연계 속에서⁷⁷ 그들이 주도적으로 행한 김대중 구출운동은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제고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일본본부) 재정예의 의존과 하향식 활동, 몇몇 명망가 위주의 조직 형태는 유럽 내 타 조직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결성과정을 살펴보면, 1972년 10월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이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동포들을 규합하여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통련의 전신으로 약칭은 한민통)를 결성하기로 했다. 한민통의 초대 의장으로는 김대중이 내정되었다. 해외에서 김대중을 중심으로 반(反)박정희 세력이 결집되는것을 막고자 중앙정보부는 한민통의 결성식을 1주일 앞두고 김대중 납치사건을 강행했다. 그에 조직적으로 김대중의 구명운동을 벌인 한민통은 8월15일 결성선언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⁷⁸ 한민통의 김대중 구출운동은 세계 각 지역의 해외동포들과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국제적인 반박정희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1977년 3월22일 국내의 민주세력이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자 한민통은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 해외동포추진본부’의 결성을 제의하였고, 한민통의 제의는 즉시 미국, 유럽의 동포사회와 민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해외에서의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 미주동포사회의 활동가들이 도쿄로 와서 한민통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사회의 민주인사들과 함께 1977년 8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해외한국인민주운동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을 결성하였다. 한민련의 결성은 해외동포사회의 민주세력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민련 유럽본부도 한민련의 결정과 같은 경위로 민건회와 노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⁷⁹

한민련은 그들의 활동방향과 과제의 중심을 반전과 평화에 두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중립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점진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군비축소를 주장했다. 그리고 당면과제로서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海内外 동포들의 대연합인 ‘민족민주주의연합전선’의 결성을 주장했다.⁸⁰

그들은 해외동포들이 사상과 신앙, 정견의 차이를 초월한 교포사회의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해외동포들의 연합전선체인 한민련이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 인터 등과의 국제연대운동을 강화해야 민족민주전선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임원으로 윤이상, 정성배, 정규명, 송두율, 김길순, 임민식, 이종수, 이종현 등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 김대중 구출운동, 사회주의 인터와의 연대, 김현장·문부식 구출운동 등이 있다.

기관지로 <계간 한민련> (제2차 대표자회의 이후 동경에서 펴냄)과 월간 영문지<Korea Newsletter> (베를린에서 펴냄)이 있다.

2. 독일 운동의 상징이 된 오월민중제

광주항쟁을 기념하는 활동은 광주항쟁 이후 매년 독일의 각 지역에서 분산되어 열렸다가 1987년부터 오월민중제란 이름으로 한 곳에서 치러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⁷⁷ 한민련, 스페인 사회당 전당대회에 한국대표로 선정 초청돼, <우리나라> 제27호, 1985.1.15.

⁷⁸ 한홍구. 2001. 한민통과 ‘김대중의 배신’,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한겨레 21』. 제387호.

⁷⁹ 이 과정에서 한민련 가입에 반대하는 이삼열 등 20여 명은 민건을 탈퇴하고 한민건(한국민주사회건설재독협의회)을 결성한다. 이삼열(2015) 참조

⁸⁰ <계간 한민련> 제2호, 1986 참조

오월민중제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발제⁸¹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만 언급한다. 오월민중제 이전의 광주와 관련된 여러 운동이 각 지역과 부문에서 분출되고 이런 운동의 흐름이 정례화되고 통합되어 나타난 운동형태가 오월민중제이며, 유럽운동이 타 지역과 달리 오월민중제로 표상되는 ‘광주’를 기점으로 모아지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자 한다.

오월민중제는 대동단결의 다른 이름이며, 독일운동의 한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별 분산개최가 아닌, 87년 처음 오월민중제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준비위원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 단계의 다양한 활동들 때문에 가능했다. 예컨대 1985년 출연진만 50명을 상회하는 연극 <금강>을 각 지역에서 나누어 준비하고 무대에 올렸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대의 틀은 87년 11월 유럽 최초로 민주화운동 단체들을 한데 묶어 유럽민협이라는 기구를 건설하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오월민중제는 고령화되는 이민 1세대이자 그간 운동의 주체들과, 이중의 언어와 문화로 자기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며 자란 2세대 간의 만남의 장이자 2세대만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함께하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2세들을 활동가로 교육시킬 뿐 아니라, 이주민 1세대와 후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학교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 오월민중제가 광주 5·18재단과의 굳건한 연대 속에서 치러지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상호침투적이며 ‘광주의 세계화’에도 공헌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3. 유럽민협

사단법인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Vereinigung für Demokratie in Korea e.V. 처음엔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로 시작, 약칭은 유럽민협)은 소속단체로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장기수대대책위 (이상 독일), 덴마크민중문제연구소(덴마크), 북구민주사회건설 협의회(덴마크, 스웨덴), 불란서민중문제협의회(불란서) 스위스민주사회건설협의회 (스위스) 등이 함께 했고, 기관지로 한/독판 <민주조국>이 있다. 서베를린의 한독문화협회(KDK)와 보쿰지역의 한국인 민중문화모임 등 문화운동단체나 한민련 구주본부와도 사안에 따른 연대·협력관계에 있으며, 유럽민협과 연대하는 외국인, 단체들로는 녹색당(Die Grüne) 사민당(SPD)등의 정당과 테르데쥘(terre des hommes/인간의 대지)·아시아연구회(Asien A.G.) 등의 인권자선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 등의 인권기구, 한국연대위(Korea Komitee)와 교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유럽민협을 포함한 「한국문제연대를 위한 제 단체연석회의」(KoKoKo)에서 함께 활동했다.

유럽민협은 1987년 9월부터 1992년 9월 사무실이 있던 베를린의 관할법원에 해산 신고할 때까지 존속했다. 유럽민협은 독일법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법인단체로, 유럽운동 최초의 본격적인 협의체 운동의 시발이었으며, 유럽운동사상 가장 많은 단체가 유럽민협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역량을 집중했다. 유럽민협의 활동시기가 유럽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라는 데에 이론이 없으며, 활동이 많았던 만큼 독재정권에 의한 탄압도 가장 많이 받았다.

결성과정을 살펴보면, 1987년 가을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란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1989년 1월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로 개편되었다.

유럽민협은 애초에 서독에서 활동하던 각 민주단체들이 활동을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⁸¹ 최현덕 발제 참조

비상설기구인 '재독한인민주단체대표자모임(대표자모임)' ⁸² 에서 태동하여, 당시 국내 에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유월항쟁을 치루는 과정에 고무되어 각 단체 간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1987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새 신문 발간과 유럽운동의 강화·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재독한인민주단체대표자모임이 서베를린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단체의 대표들과 유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대표자모임을 확충·강화하여 협의체인 민협을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1985년 7월 서베를린에서 있었던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위 및 성토대회' 이후 연합운동을 모색하고자 결성되었던 '민추위(가칭)'와 그 후 각 단체의 사업을 조정 협의하기 위한 '대표자모임'의 연장선에서 민협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들은 유럽 내 각 민주단체간의 연대와 구속력을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타 지역 간의 상호연대 및 결속, 외국인 단체와의 연대강화, 대교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활동방향으로 삼고, 민협의 대표로 정규명, 총무로 어수갑이 선출되었다.

민협의 기구는 민협에 가입한 각 단체의 구성원이 회원이 되며, 각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중앙위원이 최고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를 담당·집행할 실행위원과, 민협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는 대표와 총무로 구성된다.

유럽민협이 결성되고 국내외 민주인사들과의 교류가 급증했으며, 주요활동은 기관지 <민주조국> 항목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유럽민협은 코레아 코미테, 녹색당, 사민당 등과의 협력 아래 당시 유럽에 체류하고 있던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유럽의회 인권위원회에 국가기관에 의한 한국에서의 인권침해 상황과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문제점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주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문제의 국제화와 함께 국제연대운동을 통한 국내의 민주화와 통일운동 지원을 위한 국제여론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임수경 방북 전후 시기 공안당국에 의해 각종 사건들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 홍성담 걸게그림 사건· 임수경 방북사건·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 부부 구속사건 등)을 유럽민협과 연계시켜 유럽민협을 분해시키려 했던 의도에 맞서서 모든 역량을 걸고 국제연대활동 ⁸³ 을 벌여왔던 유럽민협의 활동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지만, 범민련 유럽본부가 결성되면서 인적인 역량이 분산되고 통일운동과 관련된 산하조직 간의 의견충돌과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급기야 기관지 <민주조국>이 무기한 휴간하게 되고, 결국 유럽민협의 해소에 이른다. ⁸⁴

(9) 통일운동

1. 개신교의 통일운동

1.1 기통회 활동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Christen im Ausland für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약칭은 기통 또는 기통회)는 197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성되었다.

결성과정을 보면, 이미 1956년부터 북한의 부친과 서신교환을 해오던 이영빈 목사는

⁸² 뜻을 같이 하는 부문운동별 대표들 (노동; 이종현·최정규·김대천·이한경, 여성; 최영숙·이하나, 문화; 최태호, 교회; 박명철, 유학생; 양정윤·어수갑, 지식인; 정규명·송두울·김길순·이종수·홍세화 등)로 구성되어 비공개로 회동했다.

⁸³ 당시 유럽민협을 지지하고 연대했던 주요 인사로는 바이체커 대통령, 국회의원 위르겐 마이어 녹색당 국제부장, 발터 뮐퍼 베를린 시장, 작가 귄터그라스 등이다.

⁸⁴ 유럽민협은 해체 이후 2001년에 이르러서야 '한민족유럽연대'로 맥을 잇게 된다.

북한방문을 위해 공식적인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1977년경부터 '세계평화기독교자회'에 편지를 내어 북한(기독교)과의 연계를 모색해 오던 이 목사는 1979년 기통회를 결성하면서 그 기관지인 <통일과 기독교> 창간호에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것이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에 전달되었다. 1980년 여름 조선기독교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그들을 초청, 기독교 차원의 남북대화가 시작된다.

1981년 6월에 이화선(초대 회장)목사, 이영빈(기관지 <통일과 기독교> 초대 편집장)목사, 이영빈 목사의 부인 김순환(초대 총무)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을 방문하고, 원산의 가정교회에서 북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린다.⁸⁵

단체의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면, 동서독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동서독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독일에서 직접 체험한 이들은 그러한 독일의 경험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 스스로 기독교를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량으로 삼고자 했다. 기통회의 5회에 걸친 북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남북 교류가 금기였고 처벌의 대상이었던 상황을 뚫고 유럽운동이 북과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과 내용이 상당부분 북한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사에서는 오랫동안 제외되어 온 것도 사실이며, 유럽운동권 안에서조차 그들과 그들의 활동은 경계와 제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유럽민협 존속 당시 기통회는 북과의 교류 등을 이유로 유럽민협에는 가입하지 못했다.⁸⁶

기통회는 1981년 6월 평양에서 이북 기독교도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그해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허정숙, 고기준, 최덕신, 이화선, 이영빈 등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통회가 주최하여 제1차 대회를 치렀다. 다음해 1982년 12월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모였다.⁸⁷ 하지만 이 대회가 종교행사를 가장한 정치집회로 인식되고 한국의 교회에서도 이를 교회 행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등 반대가 일자, 1984년 12월 비엔나에서 북에서 전금철, 김용준 등 33개 단체의 대표 40명과 양은식, 선우학원 등 미주, 호주 등 대표 33명, 이영빈, 최기환 등 유럽대표 17명이 참가하여 열린 제3차 대회에서 이들은 외형적으로도 '기독교'의 틀을 벗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을 만든다.⁸⁸ 따라서 애초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된 조국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주체의 외연이 확장된 3차 대회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그후 1986년 1월의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제1차 대표자회의(비엔나)와 같은 해 10월의 확대회의(비엔나), 12월의 유럽지구 2차 총회(프랑크푸르트)를 끝으로 활동이 종결되었다.

기관지로 <통일과 기독교> (1979년 창간) 및 <통일과 시사>(발행인 이화선 목사, 편집인 이영빈 목사)가 있다.

한편 기통회의 노선에 대한 초대 회장 이화선 목사 측과 이영빈 목사 측이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1982년 이화선 목사 쪽이 탈퇴하여 기연(해외기독교자연합)을 설립했는데

⁸⁵ 이영빈 목사와의 대담, 오석근 저 육천만 동포 사백만 교포 그 모두가 한을 안고, <우리나라> 문고, 1988

⁸⁶ 이영빈,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에 대한 우리 기통회의 의견과 질문', 1988.2.20.

국내운동권과의 연대를 중시했던 유럽민협이 기통회의의 가입을 거부한 사실은, 1980년부터 82년까지 기통회에 소속되었던 김성수씨를 유럽민협의 배후로 연결시킴으로써 유럽민협을 북과 연계된 단체로 몰고자 했던 1989년 당시 공안당국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어수갑.1989. "유럽민협의 양심선언", 『말』. 10월호.

⁸⁷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 기사 및 공동성명, 국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나라> 제4호, 1983.1.1., 헬싱키 남북대화 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 전금철, <우리나라> 제5호, 1983.2.1

⁸⁸ 제3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간의 대화, 비엔나에서 100여명 참가 <우리나라> 제27호(1985.1.15.), 비엔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제1차 대표회의, <우리나라> 제37호, 1986.1.22

활동은 미미했다. 결국 기통회가 둘로 분열되었고 후일 ‘북한 추종집단’이란 비판과 의구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통일에 대한 노력은 민간차원의 대북교류를 허용하지 않던 당시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실정법상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통일의 초석을 마련, 남북대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⁸⁹

1.2. 정평통 활동

재독 기독교 정의평화통일위원회 (정평통, 후에 통일특별위원회로 변경)는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1989년 10월부터 베를린, 라인마인 지방,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등의 지역에서 활동했다.

독일에는 많은 개신교 한인교회들이 있다. 80년대 당시 베를린에만 15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난립했다. 하지만 정작 조국의 민주화나 통일에 관심을 가진 교회는 많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권 당시 유일한 예외가 기장 교단에서 파견되고 독일의 개신교단인 EKD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소속 교회가 그것이다. 그들은 베를린·함부르크·보쿰·슈트트가르트 등지의 소속 한인교회 내에 정평통을 신설하고 국내 교단 내의 정평통 사업을 해외에서 하고자 했다.⁹⁰

재독 교회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그간 두 번에 걸쳐 있었던 남북교계의 글리온회의나 1988년 2월 인천에서의 세계대회와 더불어 독일에서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북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기통회 등 선구적인 목사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문’이 발표되고 이어서 4월 인천에서 있었던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에 독일 개신교의 지도자들과 한인교회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다음 해인 1989년 재독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홍섭 목사)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함부르크 한인교회(담임목사 박명철)에서 남북통일문제를 전담할 정의평화통일위원회 1차 모임을 갖고 ‘국내 개신교회들의 통일운동의 현황 및 남북교회의 만남과 그 과정’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토론과정에서 독일에 있는 기독교 한인교회 협의회 산하에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9월 획스트/오덴발트에서 있었던 한국교회의 날에서 발의된 이 위원회를 10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 발족시켰다.⁹¹

정평통은 독일내에 거주하는 한인들로서 국내의 민주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며 정의 평화 조국통일운동을 추진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은 성명에서, “멀리는 동백림사건, 최근에는 서경원의원 사건 등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마치 독일의 동포들이 이적활동의 주요무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 동포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태도 발생하였다...국내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독일교회 및 독일의 여러 동포 및 독일 운동단체와 일감 중심으로 깊은 연대를 적극적으로 맺기로 하였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적극 지지키로 하고, 지난번 제23차 독일개신교회의 날에 북한기독교인들과 만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⁹² 직접적인 교류를 맺어 상호신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우리는 선구자적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의 결단은 45년간의 두터운 장벽을 깨고 조국통일운동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쾌거이고, 또한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씨와 그를 동반한 카톨릭 전국정의구현사제단을 대표한 문규현 신부의 활동은

⁸⁹ 김면. 2007. 독일한인통일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카프카연구 18집.

⁹⁰ 예컨대, 민주제 개헌관철을 위한 단식기도회 (87.5.27-28)가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프랑크푸르트 크리스투스 교회에서 열려, <민주조국> 제1호, 1987.11.30, 재독한인교회협, 인권주간(87.12.6-13) 제정, <민주조국> 제2호, 1988.1.1

⁹¹ 정평통 발족, <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⁹² 서베를린에서 개신교대회 남북한참가, <민주조국> 제20호. 1989.7.11

7천만동포의 조국통일염원을 온 세계에 과시한 통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확인하였다. 이와 아울러 서경원 의원 및 임수경씨의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조작한 것에 대해 우리들은 온 천하에 그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⁹³

서의실 목사(초대 위원장), 최정규(초대 총무), 김인태 목사, 임용일, 전동락 등이 주요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활동으로, 1989년 6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개신교회의 날에 남북의 교회지도자가 초청된 것과 관련, 함께 예배와 성찬식, 강연회, 문화행사를 주관했다. 그리고 8월 15일 서독의 모든 교회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마련한 데 적극 호응하여 이를 추후를 위하여 임수경 방북사건 관련자의 증언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매년 5월 광주기념행사를 교회 안에서 주관하며,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정하고 독일교회와 합동으로 베를린 빌헬름황제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헌금을 국내 KNCC 인권위원회에 보냈다.⁹⁴

한독교회가 연대하여 선교탄압, 악법철폐, 양심수 및 통일인사 석방운동, 서명운동, 성명서, 리플릿 배포 등의 활동을 벌였다.⁹⁵

기관지로 <통일아침>⁹⁶이 있다.

1.3. 유럽민협의 통일운동

유럽민협의 조국통일운동은 1988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국내에서 전대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6.10 남북학생 회담 성사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8월 14일 전국대학생 국토종단대행진과 815 남북학생회담에 연대하는 모임을 갖고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1989년 1월엔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자는 국내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유럽민협의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에서 통일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공동의장인 정호경 신부가 유럽민협을 방문하기도 했다. 전민련 조통위 이재오 위원장의 격려사가 낭독되는 가운데 범민족대회 유럽지역추진본부(유럽범추본. 단장 정규명, 대변인 어수갑)가 1989년 4월 베를린에서 결성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6월 임수경 전대협 대표가 유럽민협의 도움을 받아⁹⁷ 평양축전에 참가하면서, 80년대 독일에서의 조국통일운동은 절정에 달했으며, 7월 서베를린에서는 남북한 개신교대회가 열려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안당국의 본격적인 탄압도 시작되었다. 이미 서경원 의원 사건과 무관한 유럽민협을 친북전위조직으로 매도하고 정규명 대표를 모략하는 공안당국의 음해가 시작되었다. 판문점을 경유하여 귀환한 임수경 대표를 구속하면서 유럽민협은 세계 교회협의회를 비롯하여 독일의 주요 정당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임수경 석방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했다.⁹⁸

4. 맺음말

⁹³ 재독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통일위원회. 1989.9.3.

⁹⁴ <교회와 사회> 제21호, 베를린기독교한인교회. 1991.10.31

⁹⁵ 1990년 공안정국의 탄압의 회오리로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해외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면서 교회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침체의 늪으로 빠져있다가 1995년 희년을 맞아 다시 조직을 추스린다. 이들은 93년부터 북한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기금을 모았으며 그후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⁹⁶ 1995년이 되어 비로소 창간호가 나왔다

⁹⁷ 당시 임종석 전대협 의장이 수신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독 민협· 미국 한청· 오스트레일리아 민족자료 연구실 외 해외동포단체”로 한 “제13차 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의 대표단 참가를 위한 실무 협조 요청”을 1989년 6월 21일 팩스로 보내면서 임수경 대표의 방북에 유럽민협 등의 도움을 요청했다.

⁹⁸ 유럽민협과 구성원들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 그리고 이어지는 본격적인 조국통일운동의 전개는 90년대로 이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내외를 통틀어 당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들에게 마치 숙명처럼 피할 수 없는 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질풍노도가 되어 삶의 가치를 바꾸어 버렸다. 자유의 소중함과,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옥죄는 외세의 실체도 한꺼번에 알게 했다.

저마다의 이유로 이역만리 낯선 독일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던 이들이 광산의 막장을 나와서, 소독 냄새 났던 병원 가운을 벗고, 책과 펜을 잠시 접은 채 분연히 뛰쳐나왔다. ‘디아스포라’로서⁹⁹ 혹은 ‘경계인’으로 혹은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자’¹⁰⁰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베를린의 쿠담 거리에서, 본(Bonn) 한국대사관 앞에서, 또는 매년 독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독일교회의 날 행사장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소리 높이 외쳤다. 유창하지 못한 독일어로 광주와 연대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해마다 5월이면 함께 광주비디오를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들이 모여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노동자, 여성, 지식인, 유학생들이 민주화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신문을 만들어 대중들을 계몽하고, 학술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의 길을 모색하며 팽과리와 북을 들고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그들은 해마다 5월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연대하는 오월민중제로 하나가 되었다. 마침내 그들의 바람은 한국의 6월항쟁과 하나가 되었고, 우여곡절을 거쳐 문민정부가 되었으며, 제3세계의 반열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아직은 우리 역사에서 반동의 흐름은 여전히 강고하고 갈 길 또한 멀고도 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벌어졌던 민주화운동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채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으로 이 글을 썼다. 살아남은 자의 몫은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이다. 언젠가 완성되어야 할 해외민주화운동사 편찬에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주요참고자료>

- 김귀옥. 2019. “한국과 독일을 넘나드는 디아스포라와 한국 민주화운동 : 유럽민협을 중심으로” 『제2회 한독관계 심포지엄, 이미지-전이-얽힘』. 역사문제연구소 한독관계사 포럼 / 튀빙엔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귀옥. 2023. “1970,80년대 재독 한인의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48호.
- 김귀옥. 2022. 파독 광부 임희길의 생애사와 한국민주화운동. 한국구술사학회 제13권 제2호.
- 김면. 2007. 독일한인통일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카프카연구 18집.
- 김면. 2013. “5.18,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유럽한인의 대응양상”.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 김면. 2012. “5.18과 유럽지역 한인 민주화운동사: 독일을 중심으로”. 5.18기념재단
- 김성재. 2004. “독일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5.18의 원인, 경과, 주변 세력의 반응 및 결과-”. 『민주주의와 인권』. 4권 1호.
- 송두율. 2017. 불타는 얼음. 후마니타스
- 유정숙 등. 2014.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재독한국여성모임. 당대
- 어수갑. 2005.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유럽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어수갑. 2004.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휴머니스트.
- 어수갑. 1989. “유럽민협의 양심선언”, 『말』. 10월호.
- 어수갑. 1994. “이 천리노독을 어루만져줄 그리운 조국의 벗들이여”, 사회평론 『길』.

⁹⁹ 김귀옥, 한국과 독일을 넘나드는 디아스포라와 한국 민주화운동, 2019. 김귀옥은 같은 글에서 과거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해외동포들을 “독일과 유럽을 부단히 연결하고 관계 지으면서 한반도의 민주화와 통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헌신한 예지자”라고 상찬했다.

¹⁰⁰ 박 라이니히-정숙,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2014. 재독한국여성모임. 당대

- 어수갑. 2010. “광주항쟁과 유럽운동”, 5.18민중항쟁 30주년기념 광주아시아포럼 발제문.
- 이삼열. 2015.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33호 및 제34호.
- 이유재. 2022. “이주민 인권운동에서 국제연대로, 그리고 다시 이주민 인권운동으로” 『기억과 전망』. 제46호.
- 이유재·이선영 면담. 2022. 파독광부 생애사. 국사편찬위원회
- 이정민. 2019. “언론보도를 통해 본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 동백림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 『제2회 한독관계 심포지엄, 이미지-전이-억힘』. 역사문제연구소 한독관계사 포럼/튀빙엔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종수. 2001. “유럽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심포지움 “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운동”.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자료관.
- 조병옥. 2006. 라인강변에 꽃상여 가네. 한울.
- 조현옥. 2005. “해외의 한국민주화운동. 본국과의 상호관계 및 정체성 찾기”. 『경제와 사회』. 통권 66호
- 최현덕. 2023. ‘독일 시민사회에서 전개된 한국 민주화를 향한 연대운동-한국연대위원회 (Korea Komitee, 1977-1994)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4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Roland Wein. 2007. “광주 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사업(Korea Soliaritaetsarbeit in Deutschland nach Kwangju. Zusammenarbeit von Deutschen und fue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해외에서의 5월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5.18기념재단
- (1) 정기간행물(기관지)
1. <민주조국>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기관지/베를린) 창간호 (1987.9)부터 종간호 (1991.4.1)
 2. <Minjuchoguk, Demokratie in Korea> (독문)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기관지. 베를린) 창간호(1987.9)부터 종간호(1991.4)
 3. <민주한국> (민주사회건설협의회 기관지) 제43호 (1982.1.22.)부터 제50호(종간호.1983.5.31)
 4. <우리나라> (편집 겸 발행인; 오석근, 오픈바하) 창간호 (1982.10.1.)부터 제17호 (1984.2.1.), 제27호(1985.1.15.), 제36호(1985.12.1.)부터 제38호 (1986.3.1.), 제43호(1986.8.1.)부터 제50호(종간호 1987.4.1)
 5. <광장> (민건회 초기 기관지) 제3호 (1975. 3.15)
 6. <Undong>, Frankfurt (독문) ‘운동’, 한국에서의 사회운동, 한독연대. 프랑크푸르트) 제1호 (1990.1)부터 제3호 (1991.6)
 7. <Korea Forum> (계간지, 1986-1988, 1991-?), Korea Kommunikations- und Forschungszentrum(KFZ) des Korea-Verbandes e.V., Hannover, 겨울호 (1994)
 8. <계간 한민련> (민주민족통일한국인연합, 일본 동경) 창간호 (1985.10.20.)
 9. <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국여성모임 기관지). 창간호(1979)부터 제14호(1993)
- (2) 자료집
1. 오월민중제 자료집 (1980.5-1997.5), 재독오월민중제 1997.5.1공동준비위원회,
 2. 김길순, 독일 한국학술연구원 (KOFO)자료집 Perspektiven in Korea 1986.10
 3. <민주한국 >사설집, 민주사회건설협의회, 프랑크푸르트, 1984
 4. <민주한국> 자료집,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베를린, 1987.3.21
 5. 재독 한국인 간호사 25년사, 재독한국인여성모임, 1995
 6. 자료집 Korea, terre des hommes, Osnabrück, 1986.4
 7.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2007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한독공동심포지엄.한민족유럽연대/이주노동자인권연대.2007.11.1.
 8. 한국의 민주화20년, 한국과 독일의 대화.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베를린 국제심포지엄.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3) 구술집

김면 외. 2010. 구술로 본 해외 한인 통일운동사의 재인식 -독일지역. 선인

재일 조선인의 5·18: 부재와 허무의 페이소스

이연숙 (히토츠바시대학)

1. 머리말

1980년 5·18광주민주화 항쟁소식은 당시 억압되고 사실이 거의 은폐되었던 한국 국내에 비해 일본에서는 오히려 신속하고 소상하게 전해졌다. 일본의 주요 신문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에서는 광주항쟁 직후 사실 보도와 함께 한국 군부에 대한 비판적 사실을 게재했다.¹⁰¹ 또 NHK 국영 텔레비전, 민간 텔레비전 및 잡지 미디어에서는 외국기자 와 기독교 단체 등을 통해서 입수한 광주 현지 사진과 소식을 함께 전했다.

광주민주화 항쟁소식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도 크나 큰 충격을 주었다. 남북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재일 조선인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민단 계열인 한국청년동맹은 1980년 6월에 민단 중앙 본부에 ‘왜 광주학살에 항의하지 않는가’라는 공개 질문서를 보냈고, 조총련계 조선시보 등에서는 광주항쟁을 규탄하는 사실을 실었다.

광주민주화항쟁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 재일 조선인의 실존과 아이덴티티를 되묻는 역사적 사건이자 전환점이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으로 일본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한국 문단에도 큰 획을 그은 시인 김시중 (金時鐘1929-)과 재일 여성시인 종추월 (宗秋月1944-2011), 재일 조선인 화가 김석출(金石出1949-)을 통해 재일 조선인들이 어떻게 5·18광주 민주화 항쟁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기억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재일>한다: 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지층

재일 조선인의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¹⁰² 현재 많은 한국인 (조선인)들이 미국,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다. 각 지역의 한인 (조선인) 사회는 거주 지역과의 역사적 정치적 관계와 기억을 통해 각각 그 한인 사회의 사회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재일 조선인사회는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보다 오래된 역사의 기억과 두꺼운 경험의 지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의 역사는 단지 시간의 길이로만 거론할 수 없는 역사의 용광로를 안고 있다. 재일 조선인 사회의 역사 속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통치, 냉전체제, 남북분단 등의 동아시아의 격동의 역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간과해서 안될 점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는 지금까지도 식민지 시대의 무거운 멍에와 남북분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질은 그림자가 여태껏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보통 ‘외국인’이라고 하면, 일본이 아닌 본국의 여권을 가지고,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한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 조선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외국인’ 과는 다르다.

¹⁰¹ 이에대한 자세한 연구는 임영언 허성태 전호성 「5·18 광주 민주항쟁의 재일동포와 재외동포사회로의 확산과정 고찰」 『한국과국제사회』 제 6 권 3 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pp5-29 를 참조

¹⁰² 필자는 본고에서 민족의 개념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 용어는 남북한 분단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통일을 염원이 함축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온 것은 시기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20세기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했던 초기 1910년대부터 1937년 중일전쟁 전까지는 생활 기반을 잃은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농촌지방 출신과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왔다. 또 이 시기에 조선의 유학생들도 많이 일본에 왔는데, 이들은 대부분은 유학 생활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동원, 강제동원, 강제연행 등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왔다. 식민지 지배하에 조선인들은 다양한 형태와 동기로 일본에 왔는데, 그 동기와 시기에 관계없이 권리는 부여받지 못한 채 오직 ‘천황의 신민’으로서 복종만을 강요당했다는 것은 조선인 모두의 공통점이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망하고 조선이 해방되자, 일본에 거주했던 13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 갔다. 그러나 본국에 생활 기반이 없거나 귀국선을 타지 못했던 등 제반의 사정으로 60만명 정도의 조선인은 일본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 패망에 따른 식민지 포기과 더불어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일본 국적이 박탈되고 이른바 제삼국인이 되었다.¹⁰³

195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에 남아 있던 식민지 출신인 조선 사람과 대만 사람들은 일본 국적을 정식으로 박탈당해, 명실공히 외국인 집단이 되었다.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제반 사정으로 조선에 돌아 갈 수 없었던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위험한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혀, 차별을 받으며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다. 이런 가운데 1947년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났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 4.3은 냉전체제 하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서곡이자,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봉인되어온 비극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4.3은 광주 5.18과 축을 같이 한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일어났던 4.3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해방을 맞이 한 후 2년이 채 되지 않는 불안정한 시기에, 불안정한 신분으로 일본에 체재했던 재일 조선인들은 죽음의 위험을 피해 밀항해온 동포들을 맞이 하게 된다. 일본에 온 제주사람들은 대부분 오사카에 와서, 오사카의 이카이노 등지에 둥지를 마련한다.¹⁰⁴ 제주 4.3은 지금도 재일 조선인 사회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결코 끝나지 않는 슬픔의 강이다.

제주 4.3이후에도 재일 조선인 사회는 한국전쟁, 1965년 한일협정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사건을 겪게 된다. 이런 정치적 격랑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존재 형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예컨대 재일본 대한국민단 (민단)에 속하는 사람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속하는 사람들, 북과 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국적 사람들,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사람들 등, 한 가족 중에서도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¹⁰⁵

사회적 정치적 여건, 존재 형식, 세대에 따라 재일 조선인들의 본국과의 공간적 정서적 거리는 상당히 다르다. 본국에서 건너온 재일 조선인 1세들의 대부분은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으며, 조선 사람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전혀 흔들림이

¹⁰³ 일본을 점령한 GHQ가 일본에 있는 종래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nationals of countries formerly under the domination of Japan)를 지칭한 말이나, 일본에서는 차별용어로 사용되었다.

¹⁰⁴ 이카이노 (猪飼野)는 글자 그대로 돼지를 키우는 곳이라는 지명으로, 재일조선인 특히 4·3의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이 곳에 정착했다. 일본 속의 작은 제주라고도 불리운다. 이카이노이라는 지명은 지금은 행정구역상의 지도 위에서 없어졌다.

¹⁰⁵ 1952년 샌프란체스코 조약에 의해 국적이 박탈된 후 식민지 출신 조선인들 중 북과 남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는 편의상 이들의 국적을 <조선>이라고 기재했다. <조선>은 북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무국적자라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연구는 鄭榮桓, 『歴史のなかの朝鮮籍』、以文社、2022가 있다.

없었다. 그러나 한 번도 본국에 가본 적이 없고 일본어만 사용하는 재일 조선인 2,3세에겐 본국과의 거리는 크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재일 조선인이라는 카테고리는 결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재일 조선인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는 또한 근대 국민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을 창출하며, 비국민을 배제하는 논리 위에서 세워졌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기동 중의 하나가 <언어>이며, 이를 통해 <민족/국가/국어>라는 신성하고 단단한 삼위일체를 형성되어 왔다.

재일 조선인은 국민국가의 <민족/국가/국어>라는 삼위일체에 균열을 가진 존재들이며, 국민국가의 규정 밖에 던져진 사람들이다. 이 균열은 세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커지고, 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엔 <재일조선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재일조선인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다.

소설가 김석범과 시인 김시종을 비롯한 재일 조선인 문학자들은 자신들을 남도 북도 일본에도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틈새>의 존재로, 자신들의 삶을 <재일 한다>는 동사로 표현했다. 김석범과 김시종은 식민지 시대 때는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강요당했고, 지금은 그 제국의 언어로 작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작가는 <일본어로 일본에 복수하며> <어긋나고 불편한 일본어>로 <일본어의 주박(呪縛)>을 끊어 버리려고 한다.¹⁰⁶ 또 김석범과 김시종은 일본어 속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일본 정서와 이른바 <일본 정신>에 정면에서 반기를 들고, <어긋나고 불편한 일본어>로 창조의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를 넓히면서, <이단의 일본어의 디아스포라 문학>의 세계를 탄생시켰다. 이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적 업적으로 일본 문학사뿐만 아니라 현대 문학사의 쾌거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석범과 김시종 문학은 국민국가의 틀인 <국민>에서 빠져 나온 존재로서 정체성 혼돈과 소외감의 고뇌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학 세계와 당당한 존재 형태를 탄생시킨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 김시종의 5·18: <타자의 언어>로 광주를 토해 내다

우리는 다양하고 촘촘한 우주와 세상의 그물망 속에서 생을 영위한다. 그 그물망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씩씩이 우리에게 새로운 포치 (布置 Konstellation)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보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요구는 체력이 부족해서, 의지와 지혜가 부족해서, 눈앞의 문제에 너무 급급해서 등등의 이유로 많은 이들은 너무나 버거워 눈을 돌리고 만다.

시인, 화가를 비롯한 예술가는 우리를 둘러싼 그물망과 포치 상황에 온몸과 마음을 던져서 바라보고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1980년 5월18일, 한국의 남쪽 도시 광주에서 엄청난 국가 폭력이 자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었을 때, 광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광주 이외의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바라보고 있었을까?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광주 민주화항쟁은 한국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졌다 해도 왜곡과 거짓 뉴스가 판을 쳤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외국인 기자와 기독교 단체가 전해준 광주 소식들이 신문과 매스컴에 신속하게 전해 왔다.

오사카 이카이노의 시인 김시종은 이 광주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타자의 언어>로 광주의 통한을 토해 냈다. 김시종의 자전적 텍스트 『조선과 일본을

¹⁰⁶ イ・ヨンスク、姜信子『金石範評論集 文学・言語論Ⅰ』、明石書店、2019、28 쪽

살아가다: 제주도에서 이카이노로』(岩波新書, 2015)에 의하면 김시종은 1929년에 부친의 고향인 원산에서 태어나, 어머니 고향 제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942년 광주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에 해방을 맞이한다. 김시종은 식민지 시대 때는 <황국소년>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일본어를 열심히 익혔던 <모범적인 황국 소년>이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해방 후에 소년 김시종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허탈감과 배반감으로 고뇌하게 된다. 이러한 자괴감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고, 4.3참여했다가 1949년 5월에 일본으로 밀항했다. 오사카 이카이노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시인으로 재일의 삶을 살고 있다.

교토대학 교수이자 시인인 호소미 카즈유키(細見和之)는 탁월한 김시종론인 『디아스포라를 사는 김시종』(岩波書店, 2011)에서 김시종의 시의 세계를 유태인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와 파울 체란(Paul Celan)과 같은 사정 거리에 두고 논했다. 살았던 지역과 사용 언어는 다르지만 언어적 고뇌와 내성적 갈등, 정치적 폭력 앞에서의 시의 모습을 세 시인의 시가 서로 깊이 공명하고 있다고 논했다.

김시종은 조선어로 시를 쓴 적도 있었지만, 195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어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지평선(1955)』 『일본풍토기 (1957)』 『장편시집 니이가타 (1970)』 『이카이노 시집 (1978)』 『광주시편 (1983)』 『화석의 여름(1999)』 『경계의 시집 (2005)』 『잃어버린 계절(2010)』 등 주옥 같은 시집을 냈고, 2004년에는 『운동주시집 하늘과 바람과 시』를 심금을 울리는 일본어로 번역했다.

호소미 카즈유키는 김시종의 많은 시집중에 “1983에 간행된 『광주시편』이란 연작 시집이 김시종 시작(詩作)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평하고 있다.¹⁰⁷ 『광주시편』은 <나는 잊지 않겠다. 세상이 잊는다 해도 나는 나로부터는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다. 일본에 광주 소식이 전해지자, 김시종은 시를 쓰기 시작한다.

3년간 쓴 시를 모아 1983년에 연작 시집 『광주시편』을 발간하고, 그 후기에 시인은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세월, 벌벌 떨며 말을 아꼈던 삼 년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이라는 안온한 곳에 있는 나에게 말 그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나는 있으나 마나 한 나의 말에 상복을 입혔다>라 하면서, <압살당한 ‘자유 광주’를 조금씩이라도 토해 내는 것이 일본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문(呪文)이었다>고 고백한다.

<광주시편>은 김시종이 일본에 온 지 35년 만에 출간한 시집으로, 지천명(知天命)을 지나 50중반에 쓴 시다. 스무 살의 청년 김시종은 4·3의 급박한 상황속에서, 제주의 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외아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 “이것이 마지막, 마지막 부탁이다. 비록 죽더라도 내 눈이 닿는 곳에서는 죽지 마라.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다.”의 울림을 가슴에 안고 지냈다. 아버지가 외아들 김시종에게 한 마지막 당부는 김시종을 늘 <도피자>로서의 <부재의식> 속에 살게 했다.

광주시편의 <바래지는 시간 속>에서 김시종은 부재에 대한 회한을 이렇게 읊고 있다.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주위는 나를 감싸고 평온하다.
일은 언제나 내가 없을 때 터지고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할 때를 그저 헛되이 보내고만 있다.
(중략)
반드시 그곳에 언제나 없다.

¹⁰⁷ 細見和之 『アイデンティティ/他者性』 岩波書店, 1999, 91 쪽

광주는 진달래로 타오르는 우렁찬 피의 절규이다.
 눈꺼풀 안쪽도 멍해질 때는 하얗다.
 36년을 거둬들이고서도
 아직도 나의 시간은 나를 두고 간다.
 저 멀리 내가 스쳐 지났던 거리에서만
 시간은 활활 불꽃을 돋우며 흘러내리고 있다.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동경에서 발행된 잡지 『한양』에는 광주항쟁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쏟아졌다.¹⁰⁸ 『한양』은 동경에서 김인재를 중심으로 1962년 3월에 창간하여 1984년 4월에 폐간한 해외교민을 위한 잡지다. 이 잡지의 필진은 재일 조선인이 중심이 되긴 하였지만, 그 외에도 한국에 있는 작가, 재미교포 등이 작품을 발표했으며, 발표 언어는 모두 조선어로 한정된 잡지다.

『한양』에 실린 광주항쟁에 대한 작품과 김시종의 시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었다. 김시종 시의 중핵을 이뤘던 재일 조선인으로서의 존재론적인 고뇌와 부재에 대한 부채 의식 같은 것은 『한양』에 실린 작품에는 찾아 보기 힘들다. 『한양』에는 저항적 ‘민중’ 개념을 초석으로 독재에 대항하는 저항 의식이 확고했고,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한국 국내와 해외에 촉구했다. 따라서 작품은 멀리서 방관하는 시선이 아니라 <광주> 속에 직접 뛰어 들어가는 결의를 보였다.

『한양』에 실린 한 작품을 소개한다.

형제들아 그대들의 가슴에서 품어오르는 피는 /한 목숨이 그렇게도 아깝던/
 나의 등을 아프게 때리며/ 결사대로 한 복판에 떠밀어 던졌다/
 대오 속을 달려가며 몸으로 깨달았노라/ 그대들의 피는 나의 피/
 나의 가슴에서도 피가 흐르는 것을
 정영훈 <나는 백만시민의 마지막사람> 부분
 『한양』 1982년 11·12월호, 167쪽

김시종 시와 『한양』에 게재된 작품 사이에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본국과의 거리, 존재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그것이다. 김시종은 자신을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또 일본에도 들어가지 않는 ‘재일을 산다’, ‘재일의 틈새’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임을 고백했다. 반면 『한양』에 실린 작가들은 한국의 저항적 민중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려는 연대의식이 강했다.

두번째의 차이점은 표현 언어의 차이다. <황국소년>이었던 김시종은 끊임없이 일본어에 반문을 던지면서, 유려한 일본어에 등을 돌리고 <어긋난 일본어>로 시를 썼다. 반면에 『한양』 저자들은 김시종과 같은 언어적 갈등을 겪지 않고 조선어로만 창작활동을 했다. 표현 언어는 위에서 논의한 존재 양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만이 아니다. 김시종이 자아내는 언어는 한 국경 안에서 소통되는 언어가 아니다. 김시종은 일본어의 경계를 부수고, 경계의 벽을 넘어선 일본어로, 일본어에 녹아 있는 감성과 역사에 도전하는 언어다. 언어에는 선명한 신체성이 있다. 언어 안에는 호흡이 들어 있고, 리듬이 흐르고 있다. 시인 김시종은 어긋난 일본어로 시를 씀으로써, 일본어의 신체성, 일본 문화가 가진 신체성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김시종의 일본어에 대한 치열한 도전과 반기는 <바람>이 되어, 부재 의식에서 오는 허무를 날리고, 산 자와 죽은 자, 피투성이가 되어 버린 사건과 빛바랜 기억을 만나게 하는

¹⁰⁸ 손남훈 「『한양』 게재 광주 항쟁 시의 예술주체와 담론 특성」 『한국민족문학』 68, 2018, 8 쪽 참조할 것

목격자이며 증언자가 된다.¹⁰⁹

바람이, 휘어진 그림자를 되돌려서 틀어박혀 있다.
그곳에서는 빛도 바람결에 튕겨나가고
사해 (死海) 도 날개를 곤두세우고 퍼덕이고 있다.
어디에서랄 것도 없는 목소리를 앞사위 끝으로 끌어당겨
하루 온종일 힘없이 빗어 내리는 곳도
그 부근이다.
말이 이미 말이 아닐 때
그곳이 어디인지 묻는 일도 없으리.
치켜든 손 틈에서 조차
바람은 손가락을 물들이고 번져 있다.
(중략)
풀잎 한 줄기의 살랑거림에
만약 우쭐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면
바람에 굽히는 마음의 주름을 알아챌 수 있으리.
(중략)
바람은 끝없는 상 (喪) 의 사제이다.
계절을 불러내는 바람이 바람 속을 휘몰아치고 있으니
바람에 나부끼는 것이 어느 계절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단지 바람이 가로질러 가는
공허한 틈새를 느낄 뿐이다.
아가미가 기운다.
쥐가 달린다.
맞서 겨루는 계절에도
바람은
몰아치는 바람의 틈새에서 비명을 지른다.

<바람>의 일부

4. 종추월의 5.18: <인간으로>, <어미로> 광주를 끌어안다

미국의 일본사상사 학자 노마 필드는 그녀의 저서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의 서두를 종추월 시인의 <비탄의 패러독스>로 시작한다. 노마 필드는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에서 다음과 같이 종추월을 회상하고 있다.

“이 책은 재일 조선인 종추월의 시로 시작한다. 그 시가 포착한 재일 한국인들의 역사와 그 만큼이나 아이러니하고도 신선한 천황에 대한 발언들의 그 복합적인 아름다움에 먹먹해져서 나는 오사카로 시인을 만나러 갔고, 그녀가 운영하는 바와 그녀의 이웃,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재일 조선인의 정치와,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 여성으로 사는 일의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시와 소설로 써서 나누었다. 내가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더라면. 그리고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더라면. 그녀는 2011년 예순 여섯 살로 세상을 떠났다.”

종추월은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에 큐슈 사가현에서 재일 조선인 2세로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제주도 출신으로,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 노동자였다. “어머니는 누룩을 빚어 술을 만들고, 아버지는 향아리를 껴안고 술을 마셨다”는 것이 종추월의 부모에 대한 주요한 기억이었다.

¹⁰⁹ 細見和之 『アイデンティティ/他者性』 岩波書店, 1999, 96 쪽

김시종과 달리 종추월은 첫 호흡을 일본 사카현에서 했다. 그래서 종추월의 오감의 형성은 김시종과 조금 달랐고 언어의 획득도 달랐다. 어린 종추월은 사가 사투리와 거기에 제주도 방언이 어울린 말로 그녀의 언어는 시작되었고, 눈에 보이는 산천 또한 일본의 자연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종추월은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동네인 이카이노로 간다. 거기서 공장 노동자, 포장마차, 스낵바 등을 하면서 시를 쓰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길렀다.

종추월(宗秋月)은 송추자(宋秋子)였다. 1971년 첫 시집을 내면서 종추월이라는 필명을 쓰게 되었는데, 추월의 월(月)는 <그녀의 시의 발신지를 달에 위치시키고> <시인의 몸바꾸기>의 의식이었다고 생각된다.¹¹⁰

종추월의 시작(詩作)은 일본 사회와 역사, 남성 사회로부터 빼앗겼던 <인간을 돌려받기> 위한 <인간 선언>이었다. 종추월의 언어는 몸안에서 숙성시키고 발효되어 <시>가 되었다.

종추월의 시는 일본 사회의 차별과 <인간이라는 사실을 남자에게 우선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재일 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출발한 당찬 인간 선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종추월의 시가 결코 이데올로기적이고 관념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종추월의 시는 이념적 언어를 거부하고, 그녀의 몸을 통과해서 아름답게 발효된 생동감 넘치는 언어였다. 그래서인지 종추월의 시는 당당할 뿐 아니라 해학으로 가득차 있다. 김시종이 자신의 일본어를 <어긋난 불편한 일본어>로 조탁한 반면, 종추월은 자신의 언어를 사가 사투리, 제주도 방언, 이카이노 조선어가 섞인 <이카이노어>라고 했다.

종추월이 광주 민주항쟁과 조우했던 것은 30대 중반, 셋째 아이의 출산 직후였다. 출산 후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종추월은 에세이 <인간을 돌려줘>을 집필했다. 거기서 종추월은 <그때까지도 나는 본국의 민중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을 테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 놀라움, 그 분한 마음, 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는 쪽에 위해, 그 자랑스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 자신을 예측하고, 그러나 그날도 밥을 먹었던, 산다는 것의 부끄러움에,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 때가 내 육체를 통과한 최초의 역사였다. 재일과 본국의 역사가 한쌍이 되었다.>고 토로했다.¹¹¹

광주 민주항쟁은 종추월의 내면과 시의 세계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 1984년3월에 츠루미 슌스케 (鶴見俊輔 1922-2015)을 포함한 4명의 일본의 문예평론가와와의 좌담회 <나의 시와 생>에서 종추월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아이(세번째 아이, 첫 아들)를 낳고 광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껴안으면서 목격한 광주는 괴로웠습니다. 난 늘 (정치) 집회 같은 것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니다. (중략) 그러나 꿈쩍달짝 못하는 상황, 아이를 낳고, 인간으로서 지복의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죽어 가는 것을 단지 보고 있었지요. 지복의 죽음을 보고 있었지요. 동시대를 살아 가는 의미에서 본국과 하나일 텐데, 같은 곳에 없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 나도 저기에 뛰어 들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염원을 윤회전생(輪廻轉生) 속에서 낳고 있다고,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합류할 거라고—내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 저 광주의 한 가운데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긴 역사의 동시대에서, 어떻게 합치할지 모르지만.” (중략)¹¹²

종추월은 광주 참극에 희생당한 광주 민중에 대한 응답을 <어미>의 시선¹¹³과 윤회전생

¹¹⁰ 박지희, 「재일조선인 시인 종추월과 “쿠소리얼리즘”—이름 없는/잃은 자들의 사각지대 리얼리즘—」 『사이 間 sai』 제 35 호, 2023, 143 쪽

¹¹¹ 「人間を返せ」 66 쪽

¹¹² 宗秋月 『宗秋月詩集 猪飼野・女・愛うた』 プレーセンター, 1984, 188 쪽

¹¹³ 君島朋幸 「生存の叫びから反乱に至る言語の機能変化 宗秋月 『宗秋月詩集』を前後する「母性」と「糞リアリズム」

(輪廻轉生)의 억겁의 시간 속에서 찾았다.¹¹⁴

내 회의 5월, 종추월
5월의 때 바로,
5월의 계절 바로,
태어나 백일도 지나지 않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웃고, 울고, 화내는 세 마음의
무구한 입에 젖을 물게 하고
생명을 깨물게 하여 생명을 들이쉬게 하여
지복의 극에 달한 인간의
어머니의 피의 잠재움. 피의 소란함
아아, 그 오월.
오월의 때 바로
오월의 계절 바로
전라남도 광주가
불을 뿜었다!
같은 5월에 살면서
같은 위치에 없는 일을
함께 죽을 수 없는 삶을 부끄러워했다.
지도 속에서 만이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광주여.내 광주여.
동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여.
지복의 죽음을 택한 이들이여.
화복(禍福)을 꼬던 그 생의
소멸후의 빛남이여.
목격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우리 재일의 생의, 그러나
여러 고통들은
말하지 않으리라.
서러움도 말하지 않으리라.
기쁨은 내자신이 몸과 마음으로
윤회와 관계를 맺은 일만.라고.
어머니의 피의 소란.
어머니의 피의 잠재움이라고. 말하자.
오늘과 내일을
양양하게 잇는 것도
내 자신이 내던진
새로운 생명을 위함이라고.
바로 오월의 때의
그 오월의 계절의 임종의
망막에 강하게 꽃힌 잔상의
자랑스러운 소년의 소녀의 청년의
노인의 임부의 태아의 정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내 목숨, 내 사랑, 전생(轉生) 후 언젠가
5월의 광주와 합치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바라지 않으면 눈도 멀어
그 반짝임 무참한 잔상.
해를 지나고 해를 겹쳐도
아직 선명한 오월의 기억에서

」について」『言語社会』第十五号, 78 쪽 참조.

¹¹⁴ 君島朋幸 「生存の叫びから反乱に至る言語の機能変化 宗秋月『宗秋月詩集』を前後する「母性」と「糞リアリズム」について」『言語社会』第十五号, 78 쪽 참조

풀어 펼쳐내 버릴 수 있는 어머니가 있을까.
풀어 펼쳐내 버릴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마음 탓인지 오월은 춥다.
마음 탓인지 몸은 뜨겁다.
오월의 때, 바로
오월의 계절, 바로 지금.
내 사랑 아이가 만 네 살이 되었다.
막내 아들이 네 살이 되었다.

광주는 종추월의 시의 세계를 흔들어 놓았고, 그녀의 언어는 힘차게 높이 비상했다. 그녀는 1986년 에세이 <인간을 돌려줘>에서 이 전환을 “생존의 외침에서 반란에 이르는 언어의 기능 변화”라고 했다.¹¹⁵ 종추월의 <반란>은 딸로서, 여자로서의 시선을 <어미>의 존재감으로 끌어안음을 의미한다. <어미>는 부재/ 죄송함/ 허무/ 부끄러움을 그녀의 신체, 윤회 전생하는 몸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 넘는다.

재일 조선인 여성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사회의 차별과 <인간이라는 사실을 남자에게 우선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을 돌려받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자신들의 어머니를 연민과 반발로 바라보았다. 또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여자 혹은 <암컷>으로서의 성과 사랑을 울분과 유머로 여성이라는 오묘한 프리즘을 통해 겪어 넘었고, 다양한 빛을 교차시키면서 단선적이고 선형적인 흐름을 바꿔 놓았다.

흔히들 가혹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은 <모성> 혹은 <여성성>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여성상은 이와 같은 온화하고 자애의 어머니상만은 아니다. 종추월을 비롯한 재일 2세 이후의 이카이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들은 씩씩하고 당돌하기까지 하며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다.

종추월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남자의 눈치를 보거나, 남자의 관심을 기다리지 않고, <팔에 안겨 괴로워하다 시들어 가는 남자를 / 집요하게 애무하며/ 굶주린 마음의 순간순간을 / 온 몸에 새기는 여자, 목욕을 끝낸 몸뚱이를 / 거울에 비추고/ 씨익 웃는 여자>다.¹¹⁶

어머니 또한 자식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오로지 희생했지만, 그저 혼자서 흐느끼며 참지만은 않는다.

종추월의 『이카이노타령』에는 임종을 앞둔 어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다. 술과 여자와 히로뽕에 빠진 남편과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아들에게 희망을 상실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너희를 낳아 손해 봤다>는 말을 남기도 숨을 거둔다.¹¹⁷ 삶의 블랙유머다.

종추월의 시가 <생존의 외침>에서 <반란>으로 이르게 되었던 계기는 광주의 민중과의 만남이었다. 그 때까지 현해탄에 넘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본국 사람들과 어슴프레한 관계가 통탄에 빠진 광주민중들을 느끼면서, 시간과 공간의 격절감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종추월은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부재감, 불가항력적인 시공간의 거리감에 무력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종추월은 윤회전생으로 언젠가 광주민중과 함께 하리라고 다짐한다.

이것은 <광주에서 광주까지>의 시공간을 뛰어 넘는 광주민중과의 연대감이자, 그녀의 간절한 기도였다.

¹¹⁵ 宗秋月 「人間を返せ」 . 381 쪽

¹¹⁶ 김훈아, 「종추월(宗秋月)의 시와 '재일조선인어」, 『일본근대문학』 연구와 비평, 2005, 238-239 쪽

¹¹⁷ 유숙자, 「오사카(大阪)이카이노(猪飼野)의 여류시인 종추월 (宗秋月)」, 『한국문학논총』 34, 2003, 10 쪽

5 김석출의 5·18: 비폭력의 저항으로 광주를 그리고 또 그리다

역사의 아픔과 슬픔, 기쁨, 수난, 영광은 글로, 노래로, 그림으로, 춤으로 표현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침묵과 기도로 피안의 세계에 각인되기도 하지만, 권력에 의해 망각의 늪으로 던져지기도 한다. 5.18광주항쟁은 그 아픔과 수난의 시간들을 많은 예술가들이 글과 노래, 그림, 춤으로 표현하고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1980년 5월 오사카에서 화가 김석출은 연일 보도되는 광주의 참상을 손에 땀을 쥐며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재일 조선인 2세로 그림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림을 그만두려고 했던 때였다. 광주 민중의 참상에 직면하자 화가 김석출은 광주를 그리기 위해 다시 붓을 잡았다.

김석출은 1949년 기후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경상도 군위군 출신으로 1939년 징용공으로 일본에 왔으나, 해방 후에 제반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어 일본에 머물게 되었다. 김석출의 가족사는 조선민족의 역사의 애환과 겹친다. 김석출은 9남매 중 7번째였는데, 부모님이 일본에 건너 오면서 두 누나는 할머니댁에 맡기고 와, 두 누나는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다. 또 둘째 형은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갔다. 김석출의 가족은 한국, 일본, 북한에 흩어 사는 문자 그대로 <디아스포라 가족>이다. 이 같은 가족사는 김석출 화가의 작품의 주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김석출 화가는 17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김석출 화가는 정규 미술대학에서 화가 수업을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나카가와 도키노스케(中川時之助) 화백에게는 그림을, 카와이 쇼자부로(河合勝三朗)에게는 동판화를 사사해, 화가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갔다.

김화백은 광주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림 안에서, 그림을 통해서, 내 안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을 표현했다고 한다.¹¹⁸ 10대 후반에는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위한 작품을 다수 창작했다. 1980년에는 재일동포 화가 김재형과 함께 고려미술회를 공동창립한다.

김석출 화백은 오로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했지만, 일을 하면서 화가 생활을 하는 일상은 녹록치 않았다. 생활에 지친 김석출은 화가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5.18 광주 항쟁소식이 전해 왔다. 김희량 광주 시립 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관장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석출 화백은 광주항쟁과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그림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중략) 나 자신이 일본에서 사는 현실과 광주시민에 대한 애처로운 심정, 광주의 그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분노가 중첩되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화가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나는 화가로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다시 또 붓을 잡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¹¹⁹

5.18 광주 민주화항쟁은 그림을 포기하려고 했던 김석출 화가를 일으켜 세워서, 화가로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다. 김석출 화백은 1980년 이후 20여년 동안 광주를 그리고 또 그렸다. 이 점이 5.18을 그렸던 일본의 화가들과 다른 점이다.

김석출의 <5월 광주> 시리즈의 첫 작품은 5월 항쟁의 마지막 날인 5월 27일, 계엄군이 광주 외곽도로를 봉쇄했던 그 날을 그린 <1980.527>이다.

¹¹⁸ 역사를 그리다. 재일 디아스포라, 화가 김석출 | KBS 240311 방송

¹¹⁹ 『김석출-두드리는 기억』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2024년,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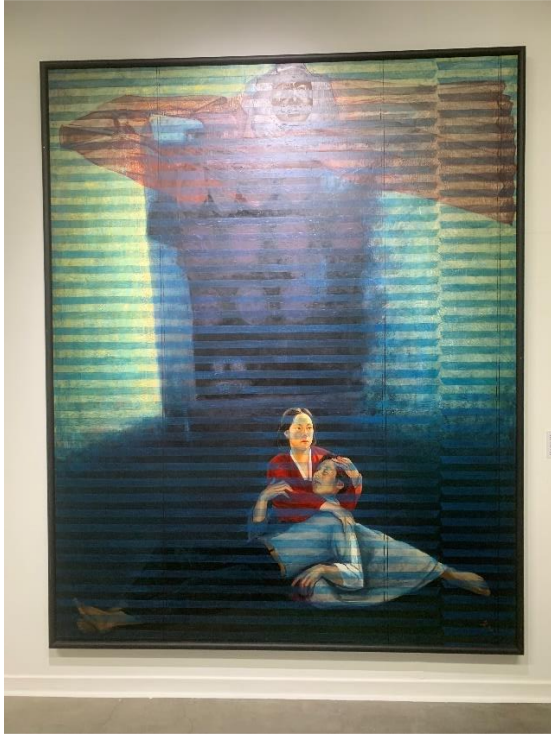


광주의 청년들이 밧줄에 묶여, 고개를 숙인 채 끌려 가는 모습이다. 김희량 미술관장에 의하면 이 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도 김석출 화력이 집대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손목이 묶여 있는 화면 중앙의 남성은 체포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구조와 신체의 비율, 근육의 표현 등이 매우 균형감이 있으며 이상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양면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성 군상들은 동세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우며 공간의 깊이감과 원근감 등의 묘사가 뛰어나다. 이 작품은 형식 면에서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고전주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¹²⁰

김석출은 ‘1980.5.27’을 그리고 또 그렸다. 1993년 1년 사이에만 16점을 발표했다.



¹²⁰ 『김석출-두드리는 기억』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2024 년, 14 쪽



김석출 화가의 5.18 수난을 그린 작품에는 이상하게도 증오나 폭력이 담아 있지 않다. 위 두 작품도 모두 5.18의 수난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슬픔과 비탄과 함께 맑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 미술평론가 카와세 순지 (川瀬俊治)는 김석출의 5.18은 <비폭력이 테마다>이라고 평한다.¹²¹ 카와세 순지는 김석출 화가에게 왜 투쟁을 그리지 않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 김석출 화가는 “나는 폭력을 배제하는 비폭력이 테마입니다. 투쟁은 그리지 않습니다. 억압당한 모습을 그립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¹²²

김석출의 이같은 예술에 대한 태도는 극심한 고통속에서도 비폭력을 그리고, 그 비폭력이 맑음이 되어, 죽은자들을 위한 진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5.18 광주항쟁은 화가 김석출에게 다시 붓을 잡게 하고, 20여년 동안 광주를 그렸다. 광주의 수난은 재일 디아스포라의 김석출의 삶과 예술세계와 중첩되었다.

6. 마무리: 그래도 희망을 보고, 염원했다

본 발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재일 조선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보고, 기억했는지를 김시종과 종추월 시인, 화가 김석출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김시종 시인은 재일1세이고 종추월 시인과 김석출 화가는 재일 2세이다. 김시종 시인과 종추월 시인은 제주 출신이며, 김석출 화가의 부모님은 경상도가 고향이다. 세대와 출신 지역이 다소 다르지만, 세 예술가는 모두 5.18의 참상을 보고,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거기에 있지 못한 죄송함으로 후들후들 떨었다고 한다.

그 부재와 허무의 페이지스를 김시종은 『광주시편』으로, 종추월은 「내 윤회의 5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광주까지-광주에서」 등의 시로, 김석출 화가는 <광주 수난>을

¹²¹ 『김석출-두드리는 기억』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2024 년, 56 쪽

¹²² 『김석출-두드리는 기억』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2024 년, 57 쪽

20여년간 그리고 또 그랬다. 5.18은 재일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고, 본국 민중을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18은 세계 여기저기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크나 큰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재일 조선인들은 다른 한인 디아스포라와 다소 다른점이 있다. 재일 조선인들 중의 상당수가 제주 4.3을 피해서 일본에 왔기 때문에 재일 조선인들의 집단 의식에는 국가폭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일 조선인들은 광주 5.18을 상당한 긴박감과 공포로 대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테마로 하는 작품에는 희망과 염원이 들어 있다. 본 발표에서 논한 세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피를 토해내는 절규가 있지만, 그래도 새벽을 기다리는 얇은 희망 같은 것이 보인다. 소설가, 시인이며 아쿠타와가상 수상자인 미키 타쿠 (三木卓1935-2023)는 김시종 시집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시인은 안이한 희망을 품지 않으며 품어서는 안 된다고 끝맺고 있지만, 그 작업의 과정은 역시 희망을 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인의 정신 영위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희망이다.”¹²³

종추월 시인은 이 생에서 못다한 광주에의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윤회전생을 통해 갚겠다는 희망을 꿈꾸었다. 이것은 그녀의 <어미로서> <여자로서> 생명을 끌어 안겠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김석출 화가는 20여년을 광주의 수난을 그리고 또 그랬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석출 화백의 그림의 테마는 <비폭력> 이라고 한다. <비폭력>은 맑음을 머금고 있다. 그 맑음과 비폭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으로 승화될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중심이기를 거부한다. 디아스포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모색하는 존재이기에 불박이 장 같은 중심을 거부한다. 디아스포라는 역경에 강하다. 마치 아스팔트 밑을 뚫고 올라온 들풀과도 같다.

재일 조선인사회는 식민지 지배, 냉전, 남북 분단의 거센 여파를 맞받았다. 일본 사회의 차별에 맞서고, 본국의 분단에 고민하면서도 재일 조선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형성해 왔다. 아직도 일본에서의 차별은 가시지 않았지만,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과 국제 사회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이는 재일 조선인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시종 시인, 종추월 시인, 김석출 화백은 광주 민중과 함께하지 못함을 통탄하고 부끄러워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광주의 시를 쓰고, 광주 수난을 그림으로 남김으로써 새벽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염원하고 있었다. 이는 재일 디아스포라가 역경속에 키워 온 강인함과 유연함의 표현이 아닐까?

¹²³ 김시종, 김정례 옮김 『광주시편』 푸른역사 2014, 88 쪽

<Memo/메 모>

5.18의 미주동포 민족민주운동에 관한 영향

서혁교 (미국 워싱턴 디씨 거주)

[이 글을 작성할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여 감동받았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해마다 미주 각지에서는 범동포적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항쟁의 영향으로 사회운동 활동가가 된 미주동포들은 현재까지 여러 시민 동포단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운동, 동포사회의 정치력 강화, 아시안 사회들과 연대, 소수자 권익운동등에 계속 활동/동참하고 있다.

광주항쟁 당시 미주동포들은 언론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동포언론들을 통해서 사건의 내막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미국인과 캐나다인에게 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했다. 그리고 처참한 광주학살의 영상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번역하고 대량복사해서 널리 배부하고, 그 일부는 한국으로 비밀리 전달되어 한국내에서 광주항쟁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는데 큰 역할도 했다. 각도시에서 전투환과 계엄군을 규탄하는 시위가 개최되었다.

광주항쟁은 미주동포사회의 민주화운동세력들의 확산을 일으켰고, 특별히 이민 “1.5 세대” (부모를 따라 함께 이민온 청년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젊은층의 결집, 조직화를 촉진시키면서 동포사회활동의 저변확대를 일으켰다. 아마 5.18의 영향을 받지않은 현재의 미주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도자들은 드물것이다. 필자가 그 과정의 산 증인이기도 해서 필자의 경험과 그당시 함께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

필자의 가족은 1971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욕시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필자는 부모님을 통해 1970년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두운 격동의 시기에 대해 전해 듣곤 했다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인권 유린, 노동권 탄압 등). 필자의 아버지는 한국 주요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하셨고, 미국 이민 후 독립적인 한국 신문을 출간하셨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의 이런 상황이 필자의 삶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1980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평화로운 민주화 시위가 군인들의 총과 무력행사로 진압당하며 다수의 죽음을 가져온 광주항쟁/학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여러 동포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필자의 인생에도 전환점을 가져왔다.

당시 필자는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포럼과 국제 연대 행사에 참석하며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격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정책, 팔레스타인 문제 등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운동, 투쟁에 대해 눈을 뜨고 있었다. 광주 학살에 대한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소식을 들은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활동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도 했지만, 한국 학생들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필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필자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광주학살에 대한 탄원서를 써서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필자의 관심은 한국을 향하게 되었고, 한국과 한반도주변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시사에 대해 공부할수록 코리아의 역사와 분단, 한반도를 둘러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국제 문제와 국제 연대에 대한 논의와 활동의 최전선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뉴욕, 시카고, 캘리포니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 한인 동료들을 알게 되어 이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운동 및 풀뿌리조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미한국청년연합의 등장

이러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필자는 1984년에 “재미한국청년연합” (한청련, Young Koreans United, YKU) 이라는 새로운 전국적인 조직의 탄생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북미 지역에서는 부모님 세대인 1세대 한인들이 민족민주활동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1.5세대와 유학생들이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시도 였다. 한청련은 광주 출신의 한국 사회활동가이자 5.18 직후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으로 망명한 윤한봉 씨의 발상에서 시작되어 그의 지도하에서 움직였고, 한인 1세대 부모님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이른바 ‘한인 1.5세대’와 해외에서 공부하던 한인 유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많은 한인 1.5세대 젊은이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었지만, 필자처럼 한국어를 계속 사용하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며 한국 문화를 계승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활동에 참가했던 동포청년들과 유학생들은 학위를 연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하고, 유학생들은 귀국 포기와 장기적인 불법체류생활 등 개인적인 희생들을 하면서 활동했다.

한청련은 한국의 역사, 정치, 국제관계, 문화, 시사, 디아스포라 (diaspora) 문제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며, 뉴욕, 뉴잉글랜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덴버, 댈러스, 토론토 등 북미의 주요 한인 지역사회에 지부를 설립하며 규모와 영향력이 빠르게 성장했다. 대도시 지역(로스앤젤레스, 뉴욕시, 시카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무급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과 활동을 조직, 운영하고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 커뮤니티 센터 (“마당집”)도 설립했다.

한청련은 한국의 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분단 종식, 한국 내 노동권 보장, 한국 민속/민중문화의 부흥 (풍물, 운동노래, 민중 예술)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되었다. 당시 미주에는 다른 민족민주운동 단체들도 있었지만 20년이 넘도록 한청련은 가장 크고 많은 활동을 추진하는 독보적인 단체였고, 유럽과 호주의 협력 단체들과 함께 “해외한청련” (Overseas YKU)을 설립하여 여러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라는 유산을 남기기도 했다

재미한청련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활동은 국제 연대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당시 북미의 주류 언론과 학계는 한국의 민주화나 시민운동을 다루지 않아, 한청련이 이를 알리고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다. 국제연대 행사에서 한국인을 대표하여 연설하거나, 자료를 배포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미국 및 국제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한국의 사회활동가와 연사를 초청하여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포럼을 동시 통역과 함께 진행하고, 주미국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유엔본부, 미 국무부, 백악관, 미 국회의사당 등의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정책과 연관된 조직적인 캠페인과 활동을 위해 미국의 비영리단체와 풀뿌리단체,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한국지원네트워크” (Korea Support Network)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한반도내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청련도 1991년 유엔본부 앞에서 22일 간의 단체 단식

투쟁을 조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분단의 종식을 촉구했다. 필자도 역시 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당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별도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자 했었고, 한청련은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분단을 가져오는데 일조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했다. 이런 점에서 한청련은 한국과 북한의 정책과 무관한 민족에 대한 이상과 열망을 위해 싸웠다고 할수 있다.

재미한청련은 또한 1986년 인터넷 등장 이전에 한국과 관련된 이슈와 한국 내 시민사회 운동을 미주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 한인들이 설립한 첫 비영리기관인 워싱턴 DC의 “한겨레 미주홍보원” (Korea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 KIRC)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겨레미주홍보원에서 인원모집을 할때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필자는 자진해서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이사하고 홍보원에 합류했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이슈와 사회운동을 다루는 영문 시사잡지인 “코리아 리포트” (Korea Report)의 편집자가 되었다. 이 잡지는 그당시 한국과 한반도 문제들을 다루는 영문매체가 부진할때 미국 의회, 언론, 싱크 탱크 (think tank), 학계 및 국제 사회에 배포되었는데, 9년간 인쇄물로 출간하다가 인터넷 블로그 형식으로 바꾸어 14년간 추가 운영되었다.

한겨레미주홍보원은 “엘살바도르 사람들과의 연대위원회”(CISPES)와 “과테말라 연대 네트워크”(NISGUA)의 미주 사무소가 있었던 워싱턴 DC 시내의 건물에 위치하여, 다른 국제연대단체, 평화단체와 비영리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며 각나라의 역사, 문화 및 투쟁을 공유하고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국제 연대 행사에서 주요 화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재미한청련의 국제연대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업적은 1989년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 (International Peace March in Korea) 이다. 이 행진은 원래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분단을 종식시키려는 열망을 상징하기 위해 한라산에서 시작하여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행진과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행진을 동시에 진행하여 판문점과 DMZ 경계에서 만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생과 시민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독재정권에 강한 탄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행진을 개최하지 못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북한 당국이 (많은 주저 끝에) 재미한청련과 재미한청련 산하 국제위원회가 단독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진을 조직하고 실행하도록 허가해 주어 국제평화대행진을 북한에서 개최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비팀은 자체내의 현수막, 악기, 자료, 출판물, 사무용품 및 도구까지 모두 챙겨갔다. 이때 같은 시기에 한국 대학생 임수경 씨가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대표로 유럽을 거쳐 북한에 방문했다.

재미한청련은 유엔군사령부로 한국전쟁에 군인을 파병한 16개국을 포함한 30여개 국에서 온 평화운동가, 학자, 종교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국제대표단과 함께 북한 백두산에서 비무장지대를 접경한 판문점 북쪽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뉴욕시에서 워싱턴 DC까지 별도의 행진을 진행하여 한국내 미국 전술핵무기 철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10만 건의 청원서를 미의회에 전달했다).

임수경씨는 평양에서 행진에 합류하여 판문점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를 끌어들었다. (아마 북한 당국의 최초 군중 통제 경험이었을 것이다.) 임수경 씨는 판문점에 도착해서 유엔군사령부(즉, 판문점 남쪽을 관장하는 미군)에 비무장지대를 통해 한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거부되자 임수경씨와 대표단은 북한

내에서의 최초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측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채 과감하고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 이래 평범한 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의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행동은 코리아에 존재하는 가혹한 물리적, 심리적 분단의 장벽을 상징적으로 허물었다. 예상대로 임수경 씨는 북한으로의 무허가 방문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임수경 씨는 이후 조기 석방되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었다).

필자와 아내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이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했던 해외동포 대표단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엄청난 역경을 넘어 변화와 진보를 향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국정부가 2017년에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자유롭게 북한에 갈 수 있었음.) 필자의 아내는 북한에서 자신의 이산가족(삼촌, 숙모, 사촌들)을 만나는 흔치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분단으로 인해 코리아전쟁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는 이산가족이 아직도 많이 있다.

임수경씨의 역사적 위업 이후, 한국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독재정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로 향하게 되었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는 많은 민간인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경을 넘었다.

미주내 한인운동의 변화/성장

1990년대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미주내 한인 시민운동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윤한봉 씨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재미한청련은 지역사회 중심의 행동주의에 초점을 맞추며 산하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이민자 권리 옹호와 미등록 거주자의 시민권 취득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재미한청련은 2008년에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한청련에 소속했던 활동가 중 일부는 이후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관련 활동 통해 계속되는 북미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외관계 정상화 및 상호 안보 보장 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데에 주력하고 있다.

필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직후에 결성된 “미주동포전국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의 일원이 되었다. 이 협회는 재미한인의 정치적 권한 신장을 위해 유권자 등록 운동, 후보자 정책포럼, 집회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미의회 내 옹호(advocacy)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NAKA는 북한(당시 유엔주재 북한대사), 남한(구 국회의원) 대표를 초청하여 역사상 최초의 “한국-조선-미국 3자 회담”인 “한반도 평화안보 포럼”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Forum)을 개최했다. 남북한 대표들과 미국 상하원 의원이 미국 의회 안의 회의실에서 화해와 국제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진솔하고 열린 대화와 의견 교환을 위해 모였고,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현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다.

또한 NAKA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던 2012년에 유엔본부 맞은편에서 6자회담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와 중재자 역할로 초청한 몽골과 독일(유럽 연합)의 정부인사 및 비영리단체 대표들과함께 “동북아 평화 협력에 관한 뉴욕 회의” (New York Conference on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연설하고,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 행사였다.

현재 필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미주동포전국협회는 오늘날까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Treaty Now), “위민크로스 DMZ” (Women Cross DMZ)’와 같은 새로운 단체들과 함께 코리아전쟁의 공식종식/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의회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옹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협회의 워싱턴 DC 사무소(William Cho Peace Center)는 진보적인 지역 한인 단체의 포럼, 모임 및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주 한인활동가 단체 및 개별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는 일본군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문제 공론화 활동 (워싱턴 DC 일본 대사관 앞 시위 및 한국 피해자/생존자 초청 행사 개최), 미국 여러 도시에 소녀상 건립 추진 활동(가장 최근에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코리아타운에 건립), 동포운동단체들을 재정지원하는 “통일평화재단”, 한국 촛불 시위 지지집회 활동 (2016-2017)과 현재의 “해외촛불행동”,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 (2014년부터 매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및 기타 도시에서 행사 추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다년간의 국제 연대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 한인활동가들은 이제는 활동범위를 넓혀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비한인 사회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있다.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이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라틴계 지역사회와,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에 대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협력했다.

미주 한인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분야는 성소수자 옹호활동 (LGBTQ advocacy)이다. 필자와 아내는 성소수자 자녀를 둔 다른 한인 부모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에는 함께 “미주한인 무지개 부모 모임” (Korean American Rainbow Parents, KARP)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된 단체이고, 한국의 성소수자부모모임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부모들 및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성소수자들이 주체적으로 단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에는 최초의 전국 네트워크를 (부모 및 지지자들과 함께) 형성하여 뉴욕에서 미주 한인 성소수자들의 첫 전국 대회를 열었다.

맺는 말

미주 한인들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사회운동을 해왔다. 20세기 초반부터 1945년까지 미국 내 코리아 학생과 지도자들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서 로비를 벌였고,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들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힘겨운 노동을 통해 번 적은 수입의 일부를 떼어 모아 국외의 독립 운동과 코리아 망명정부를 후원했다.

1965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완화되자 더 많은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일부는 미국과 캐나다 내 민권 운동에 영감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미국 시민권과 여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는 남북한 정부 주도의 드물고 산발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기 전에도 직접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여행을 떠났다.

1980년대 이후 5.18의 영향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행동주의는 한국의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 화해를 향한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북·미 간의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대치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미국 내 한국 문화 홍보와 부흥, 한인 사회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지역 및 전국적 차원에서의 정치 참여, 소수자 권리 및 소외된 지역 사회 지지, 국제 연대, 인종 및 지역 사회 간 협력 등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및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아동들이 한인 단체 및 미국 기관에서 자원 봉사자 또는 유급 정규직원으로 1.5세대와 합류하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활동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앞에 그 어떤 새로운 도전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도, 미래의 미주한인 활동가들은 독창성, 역동성, 영향력을 가지고 당당히 직면할 것이다.

트랜스로컬 광주네트워크와 삶의 민주화: 윤한봉의 망명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정수남 (전남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합수 윤한봉(1947~2007)의 미국 망명 전후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가 5·18항쟁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전개한 민주화운동 경험을 살펴보고, 그의 경험이 미국을 비롯해 귀국 후 한국의 민주 화에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는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윤한봉의 주요 정치적 행보나 활동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업적 중심의 서사보다는 그가 망명 이후 미국에서 한청련을 비롯한 국제연대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윤한봉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이력들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경험이 미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결성된 한청련 네트워크가 어떤 동인에 의해서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윤한봉의 운동경험을 따라가면서 민주화를 위한 연대의 힘은 권력투쟁이나 이해관계보다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도덕감정과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숭고한 열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윤한봉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삶의 민주화로 나아가고자 했다. 한국으로 귀국 후 그가 보인 행보는 삶의 민주화를 위한 여정이었다. 이러한 여정은 그가 망명 후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결성한 국제적 연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국민국가적 위상이 아닌 광주라는 로컬리티를 통한 국제연대의 맥락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트랜스로컬 광주는 시공을 초월한 집합감정에 기반하여 민주주의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가치’를 공유한 세계시민사회의 한 축이자 여전히 지속되어야 가치로 남아있다.

1. 트랜스로컬 전환(translocal turn)

이 글은 5·18광주항쟁(혹은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수배자이자 한국인 최초의 미국 망명인으로 불리는 합수 윤한봉(이하 합수)의 삶의 궤적을 되짚어보면서 광주에서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열망이 미국 주요 도시까지 확장되는 여정을 ‘트랜스로컬 광주’라는 투시경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트랜스내셔널 대신 트랜스로컬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트랜스로컬(translocal)은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차원의 담론구조를 비판하면서 위의 단위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더 세분화된 지역 단위로 분화시키려는 개념이다. 본문에서 논의 되겠지만 합수와 미국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재미한인들 간의 네트워크와 국제연대운동은 엄밀히 말해 초국적 결합이 아니라 초지역적 결합으로 봐야한다. 둘째 트랜스내셔널은 국가주의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발생론적으로 내포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광주 및 미국 내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로컬은 행위자들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의 형성을 훨씬 더 미시적이고 프래그머티즘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필자는 합수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가 광주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주요 도시, 즉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덴버, 댈러스, 뉴잉글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나아가 캐나다의 토론토에까지 이르는 지역의 한 인들과 민주화를 위한 디아스포라적 연대를 어떻게 구축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트랜스내셔널 광주’라는 관점에서 윤한봉과 재미한인들 간의 국제네트워크를 분석한 김미경(2020)의 연구는 5·18항쟁을 국제적 연대의 차원과 연계하여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내셔널 접근법’은 5·18을 파악할 때 “국민국가를 벗어나는 외국인, 이민자 내지 비국민이라는 제3자적 관점에서 광주의 5·18”에 다가가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5·18을 일국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과 비국민을 아우르는 보편적 관점으로 이

해하는 것이다(김미경, 2020: 3). 김미경의 이러한 제안은 5·18을 이해하는 또 다른 지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차원은 물론 실천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5·18을 초국적 맥락에서 접근하려는 또 다른 연구로 최용주(2020)의 논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광주항쟁 이후 광주의 실상을 해외에 전파하고 한 국과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초국적 후원 네트워크’ 활동이 다뤄지고 있다. 최용주의 논의는 트랜스내셔널 광주의 관점에서 국제사회 인권단체나 시민사회와의 연결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트랜스내셔널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트랜스내셔널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집합적 단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윤한봉과 재미한인들 간의 미시적이고 다층적인 결합양식을 포착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윤한봉을 국가에 복속된 존재, 즉 국민 단위로 설정하기보다는 시민사회 혹은 광주라는 한 특정 지역에서 살면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한 개인으로 설정하고 그의 행위궤적을 따라가는 것이 디아스포라적 연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점에서 트랜스로컬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합수 윤한봉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자료는 그간 많이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은 합수와 한 청련을 비롯한 해외운동단체들 간의 활동을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까지 합수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나 자료들은 운동가로서의 그의 행적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윤철호, 1994; 임재경, 2010; 전용호, 1988; 정종주, 1993)하거나 합수의 인간적인 풍모를 드러내는데 할애하고 있다(조진태, 2010; 황광우, 1993). 대체로 전형적인 인물 연구를 답습하는데 머물고 있다. 합수의 삶은 광주를 시작으로 한국,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경첩’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합수를 실체적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개인으로 봐야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합수와 트랜스로컬 광주를 잇는 개념은 바로 관계적 개인이다. 이 개념을 통해 합수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의 한국사회운동사의 연결점이자 자기자신으로도 광주 지역으로도 한청련이나 한겨레로도 환원될 수 없는 트랜스로컬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글은 먼저 합수 윤한봉 개인의 삶에서 시작하여 미국으로 망명 후 재미한인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조직화 나아가 귀국 후 한국에서의 삶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 개인이 국제적 연대와 한 사회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트랜스로컬 광주’라는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합수의 세계를 다룬 많은 자료들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그의 회고록과 구술인터뷰 자료에 의존하여 합수의 민주화운동 궤적과 그것의 의미를 ‘트랜스로컬 광주’라는 통로를 통해 혹은 합수를 통해 트랜스로컬 광주를 이해하는 교차적 해석을 시도한다. 요컨대 이러한 시도는 한 개인의 삶과 광주라는 지역 나아가 미국이나 그 외 다른 국가 단위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보는 변증법적 해석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은 운동가로서의 합수의 삶을 역사철학적 서사구조나 영웅서사에 맞춰 해석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면서 늘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맞서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리고 때론 상황과 신념이 충돌할 때마다 합수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좌절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행스럽게도 합수의 회고록·망명·과 구술녹취자료에 언급된 내용들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합수 스스로 매우 객관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서 합수는 스스로를 관계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들은 이미 트랜스로컬 접근법에 부합하는 텍스트로도 볼 수 있다.

II. 합수 윤한봉, 민중 그리고 광주

합수는 대학시절부터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왔지만 그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한단계 성숙한 운동가로서 면모를 보인 시점은 1979~80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민중에 대한 개념 정립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라는 지역성에 대한 인식이다. 우선 합수는 1979년 10월 부마 항쟁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부산을 직접 떠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내가 그동안에 ... 나는 완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민중에 빠져 있었다. 노동자들 농민이라든지 빈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역사 속에 항쟁의 주역이었던 농민들. 이를테면 이제 갑오농민운동이라든지 의병항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했지, 구체적인 우리 생활 주변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주변에서 있는데 이를테면 노동자나 농민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 사람들 또한 민중이었는데. 그걸 인제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범주 속으로만 하고 생활 속 생활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민중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민중에 대한 합수의 이러한 인식전환은 민중을 제한적인 범주로만 인식하는데 머물렀던 엘리트 주의적이고 선민의식적 수준에서 벗어나 실존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 한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운동하는 우리들 스스로를 선각자 내지 선지자, 선구자. 노래에도 나오는. 해란강변에 말달리던 선구자 식의. 그리고 민중들이 안 따라오고. 우리가 앞서가면 언 제가는 따라오겠지. 인제 이런 식의 교만방자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그들 앞에 간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는 당시 사회운동가들이 민중에 대해 지녔던 전형적인 관념, 즉 민중을 수동적이고 미몽의 대상으로 여겼던 인식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중 개념에 대한 합수만의 정립은 1974년 경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던 당시 대전교도소에서 읽은 다산의 시문선이 시발점이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호나 선언적 수준 에 머물렀던 추상적인 민중 개념을 다산의 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시켰다. 합수는 다산의 시문선에 서 묘사되는 민중의 비참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민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맞는다. 그리고 자신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객관화와 함께 운동가로서의 정당성을 찾아나갔다. 대학에서 축 산학과를 다녔지만 자신의 꿈은 전원에서 목장도 운영하고 특히 “세계에서 제일 멋진 정원을 갖는 것”이라고 했던 그는 ‘말로만 떠돌던 민중’ 개념을 ‘부르조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각하 면서 계급의식을 형성해나갔다. 합수는 당시 느낌을 이렇게 전달한다. “나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인제 충격적인 질문이 떨어져버려. 얼마나 부끄러워할런지.”

합수의 이러한 민중 개념은 운동가로서의 실천적 전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운동가는 민중보다 존재론적으로 앞서거나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민중과 동일한 존재론적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뒤엉키면서 그들과 함께 사회변혁을 도모하는 전략가로서 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운동가로서의 존재론적 전환은 합수가 망명 이후 재미한인사회에 서 펼쳐나간 민주화운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은 합수가 재미한인들과 운동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다.

“운동은 대중과 함께 잘못된 문화와 체제와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함과 동시에 자신과 대중을 교육시키며,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와 체제와 법과 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과 대중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운동가나 운동조직들이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투쟁도 교육도 성 공할 수 없다.(윤한봉, 2009: 158)”

두 번째로 1979~80년 당시 합수는 사회운동의 지역적 특수성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 지 운동하거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접했던 정세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서울 중심”으로 채워졌었다. 특히 합수가 볼 때 박정희 정권의 위기 국면에서 서울 중심의 정세파악은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곧 좋은 세상이 온다”는 들뜬 분위기였다. 하지만 자신이 직면한 현실은 서울 중심의 정세파악 과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그 결과도 암울했다. “곧 좋은 세상 온다는데……맨날 헛방이 야. 틀려. 그럼 인제 김 팍 세지. 우울해. 그런 날은. 한번 두번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 에이, 나쁜 놈 시키들.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엉터리들이지.” 합수에 따르면 자신 이 “운동도 갑작스럽게 뛰어들었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 이 서울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시엔 지역의 운동가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의 반복은 합수로 하여금 ‘정세를 스스로 분석하여’ 서울 중심의 운동으

로부터 해당 지역, 즉 광주를 중심으로 운동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니 뭐 내 노라한다는 각 유명한 유명인사들, 서울서 내려온, 모여 앉으면 주로 이야기가 그 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서울서 내려온 놈들이 완전히 지방 촌놈들 데코 앉아서 못 들은 이야기, 뭐 안국동 윤보선씨 집 안방에서 누가누가 만났는데 어쩌고 뭐 어느 목사가 유령을 산업선교회 관계로 갔다 왔는데 뭐가 어땠고. 여기서는 도저히 못 들는, 언론에도 없는 이야기니까. 언론에도. 그냥 흑 해가지고 촌놈들이 이라고 듣고 있는 거지. 그 때 당시에 일반적인 거였어. 정보의 집중이라는 게 권력의 집중이거든, 바로. 인제 서울이 완전히 그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촌놈들이 그냥 헬헬렐레 해가지고.”

부마항쟁에 대한 충격에서 시작된 합수의 이러한 광주 중심 정세파악은 1980년 3월 경 ‘광주항쟁’을 예감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에 따르면 전두환을 비롯한 12·12쿠데타 군부세력들 이 정권 장악을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전면전을 펼치게 될 수도 있는데, ‘민주화의 열망이 가장 큰 광주,’ “차별과 소외, 빈곤의 대표적인 곳” 광주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시 합수의 이러한 정세파악에 운동권 동료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당시 운동권 동료들은 4·19 기념일을 앞두고 가두투쟁 수준의 논의에 머무를 뿐 합수가 볼 때 곧 광주가 “피바다”가 될 상황임에도 동료들은 “쓰잘데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합수는 부마항쟁의 실패 를 반면교사로 삼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 외 지역에서 협력의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동료들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었다.

그럼에도 합수는 ‘피바다’가 될지도 모를 광주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다. 1/15,000 지도 를 입수하여 주요 도로와 무기고 위치를 파악하면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그의 마음은 “깨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해야한다”, “피해를 줄일 수는 없지만 피해에 따른 정치 적인 성공은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부마항쟁 이후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얻은 것이 없다는 그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쿠데타 세력은 합수가 예상했던 날(21일~25일 사이)보다 더 빠른, 5월 17일 밤 계엄령 전국확대, 의회해산, 휴교령을 선포하면서 광주를 기습적 으로 공격해왔다. 합수는 계엄군의 급습을 예측하지 못한 것을 두고 “그때처럼 내가 후회스러웠을 대가 없었”다고 했다.

5월 27일 항쟁이 끝난 이후 합수는 서울에서 1년여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나갔다. 도피생활 내내 전두환 정권의 광주 급습을 예상하지 못한 무지함을 반성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합수 는 당시 자신의 복합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11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괴로워 몸부림을 쳤다. 5월 영령들과 고문당하고 투옥되신 분들과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불구가 되신 분들에 대한 죄책감...제 뒀을 다하자고 한 목숨 바치자고 앞장서 떠돌았던 놈(필자-본인을 뜻함)이 제 뒀도 못하고 죽지도 않은 채 도망나와 숨어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정세전망을 잘못해서 제대로 대책도 못세우고 기습을 당하고만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그리고 악화일로에 있는 정세에 대한 절망감...(윤한봉, 2009: 52)”

그럼에도 절대로 정권에 잡혀서는 안 되는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합수는 해외망명을 시 도하게 되었다. 정권으로부터 ‘잡히면 죽는다’는 신호를 접하면서도 정작 그를 불안과 죄책감에 시 달리도록 만든 것은 자신이 잡힐 경우 많은 운동권 동료들과 지인들을 불행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명확한 사실이었다. 합수에게 해외망명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국내에서 쫓겨다니면서 “이러고 있을 바에야 나가서 싸우는 게 낫지 않냐”는 판단 하에 새로운 방식의 저항을 위한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III. 트랜스로컬 민주화운동의 굴곡

미국으로 망명 후 합수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장을 새롭게 만들어갔다. 타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을 준비하면서 합수는 “살아남은 죄와 도망친 죄를 깨끗이 씻고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철저하게 운동을 하자”는 다짐과 함께 “미국에 온 것을 망명 도주라고 생각

말고 내 스스로 크게는 조국의 운동권이, 구체적으로는 광주의 운동권이 파견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여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운동”을 펼쳐나갔다(윤한봉, 2009: 89-90).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나간 합수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해외운동과 동포사회에 대한 학습을 해나갔다. 그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을 거듭해나갔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해외운동은 역량이 너무 미약하고 문제도 많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합수는 미국에 도착한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재미동포들과 함께 ‘광주수난자돕기회’를 만들었다. 이 모임은 5·18의 진상을 미주 동포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어 모금활동, 자료집발간, 5·18기념행사 후원 등을 추진해나갔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재미한인사회 내에서도 5·18 광주항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합수와 함께 한청련 활동을 했던 운동가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들은 5·18 상황을 미국 현지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공수부대의 끔찍하고 잔혹한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강완모·황광우, 2019). 모금활동을 통해 광주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내기도 했는데, 1988년 6월 해체되기 전까지 광주에 약 3만 달러 이상을 송금했다고 한다.

광주수난자돕기회는 해외운동의 작은 시작점에 불과했지만 이 모임은 이후 합수가 해외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5·18은 이전까지만하더라도 비조직적이고 결속력이 약했던 재미한인사회의 운동문화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18 당시 LA에서는 한혈과 모금운동, 시카고에서는 소규모 가두시위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LA에서 한인회, 호남향우회가 결성되는 등 점차 조직화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김미경, 2019: 13). 이러한 움직임은 합수의 망명으로 더욱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모임과 운동들은 광주와 해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광주가 트랜스로컬의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합수가 보기에 미국 내 재미동포의 조국운동은 여러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조국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대표적으로 조국운동을 서울 중심과 기독교계 중심의 운동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지역운동, 노동 및 농민운동 그리고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조국운동을 친미반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운동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운동의 주체도 대부분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조직력 부재, 대중적 확장성 부재, 타민족과의 국제연대운동 부재, 문화운동 결여 등 전반적으로 운동의 역량과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윤한봉, 2009: 114-115). 1980년 당시만하더라도 재미한인들은 미국 주류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인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 간의 언어적, 문화적 괴리로 인해 한인사회의 결집력이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김미경, 2019: 8). 미주운동의 또 다른 어려움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재미한인 사회에 대한 중상모략과 분열공작으로 인해 조직들이 양분화되어 있거나 많은 동포들의 무관심에 있었다.

합수는 1982년 말 경 해외운동과 미주운동에서의 문제점을 직시한 후 장기적인 해외운동 계획을 수립했다. 그가 세운 계획들 중 몇 가지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미주운동권과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운동조직을 만들어 간다. 2) 이민 1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 간의 연계성을 구축한다. 3)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재미한인지역에 청년운동단체를 만든 후 전국적 연합조직을 결성한다. 4) 청년운동체는 학습과 훈련을 충실히 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높은 통일성과 규율을 가진 조직으로 만든다. 이 외에도 장노년층 운동단체 결성,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을 아우르는 청년운동연합체 결성, 각 지역에 센터(마당집)를 설립하여 민족교육 및 문화활동과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국제연대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합수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LA를 해외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1983년 2월에 ‘민족학교’(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합수에 따르면, 민족학교는 “재미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미국사회에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하고 조국과 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립취지 하에 교육, 문화, 봉사를 목적으로 세워졌다(윤한봉, 2009: 118).

민족학교를 설립하면서 해외운동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던 합수의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

지 않았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일에는 정당성을 둘러싼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과 감정적 충돌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합수는 재미한인 운동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김대중(DJ)에게도 거리를 두었다. 합수가 볼 때 운동의 방향은 미군철수, 핵무기철폐, 남북통일로 나아가야했지만 재미한인사회의 민주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친미반공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럴수록 합수는 기존 재미한인 운동권으로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중상”에 시달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운동권으로부터 ‘안기부의 앞잡이’로 내몰리거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는 ‘간첩’, ‘빨갱이’이 취급을 받았다(윤한봉, 2009: 123).

민족학교 설립부터 시작된 합수의 해외운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합수 개인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몇몇 동료들(대표적으로 홍기완)의 협력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가장 심각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품 전시, 복제음반 판매, 중고품과 빈 깡통 수집, 판화 판매 등 수익 사업을 추진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민족학교는 6개월만에 자리를 잡으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의 의식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갔다. 그리고 합수는 민족학교 청년들과 함께 LA에서 개최되는 여러 시위(반전반핵반개입 평화시위, 소수민족운동 등)에도 참여하면서 재 미청년들이 국제연대운동을 위한 실천감각을 익혀갈 수 있게 해주었다.

광주순안자돕기회와 민족학교는 해외운동의 그 다음 단계를 모색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합수는 84년에 ‘재미한국청년연합’(한청련)을 결성했다. 합수의 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캐나다 등 해외동포사회에 지역별 한청련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일단 한청련은 미주 최초의 청년운동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자신의 조국에 별 관심이 없거나 무지했던 재미한인청년들에게 한국의 현재 사회적 상황, 한 미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실천적 의미도 갖는다. 합수는 한청련을 통해 미국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동성을 극복하고 자긍심과 주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청년들을 고무시켰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연대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합수는 해외운동의 위상을 조국운동과 수평적인 위치에 놓으면서 한국의 민주 자주 통일 평화를 위해서는 해외운동만의 주체성, 고유성, 창조성, 독자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결성된 한청련은 2년만에 미국 서부의 시애틀, LA, 중부에 위치한 시카고, 덴버, 달라스 그리고 동부의 뉴잉글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지역에서 결성되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한청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제, 주로 운동역량, 재정, 의식수준 등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조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니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합수의 광주와 짧지만 미국에서의 운동경험은 한청련 운영에 밑바탕이 되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초부터 다져나가야했던 상황에서 합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생계부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한청련 회원들 중 상근자들은 무보수로 일을 수행했고 그 외 대다수 회원들은 자원봉사로 활동하면서 한청련을 이끌어 갔다. 운영자금은 각종 수입사업을 통해 확보거나 기부금이 의존했다. 한청련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합수는 재미한인 장년층을 위한 운동단체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87년 8월 ‘한 겨레운동 재미동포연합’(한겨레)을 결정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합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청년들마다 가정배경, 가치관, 생활양식, 지식수준, 사고방식, 정서 등이 천차만별이라 이들을 결속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합수의 생각은 해외동포들의 경우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는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의식과 동질성과 통일성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야”하고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긍지와 보람과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수는 한청련과 한겨레를 운영하면서 꾸준한 학습과 실천을 병행해나갔다. 그는 “동포 청년들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조직적인 생활하는 데 놀라 사업 활동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과학적 사고와 조직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다(윤한봉,

2009: 153). 이런 점에서 윤한봉은 해외운동에서 이론적으로는 계몽주의자였으며, 실천적으로는 공동체주의자였다. 계몽을 위한 주요 내용은 해외동포들에게 올바른 통일운동, 대미인식 그리고 민족의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천은 공동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합수는 회원들 간의 '정서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화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문화패를 만들어 극공연을 하고 사물놀이패를 만들어 여러 시위문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로써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대신 공동체적인 절제와 헌신, 희생과 상부상조의 기풍이 자리 잡게"되었고, "사치, 허영, 낭비, 나태, 위선 대신 검소, 근면, 성실, 진실의 기풍이 자리 잡게" 되었다(윤한봉, 2009: 159).

한청련과 한겨레의 활동이 광주와 지역을 초월한 트랜스로컬 이벤트는 1985년 한국에서 결성된 '5·18 광주민중혁명 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이었다. 각 지역의 한청련은 1년 동안 모금하여 약 3만 5천불에 달하는 돈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청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해나갔다. 대표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규탄투쟁, 단식 농성, 민족통일운동 지원, 8·15남북청년학생회담, 제1차 범민족대회, 한청련 출범식 지원, 정치범 석방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운동 등 중요한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다.

IV. 민주화운동과 그 적들

망명생활을 정리하고 93년 8월 18일에 영구 귀국한 합수는 기대했던 바와 달라진 한국의 상황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감을 경험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운동가와 활동가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합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네 가지 충격을 거론한다.

먼저 합수는 12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냉전 잔재의 청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세계화, 선진조국, 국가경쟁력, 21세기 등을 외치는 구호들이 넘쳐났다. 합수가 볼 때 냉전 잔재는 적대적 남북관계, 굴욕적인 한미관계, 부패정치, 여전한 독재 잔재, 불균형적인 자원배분 등이었다. "12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아니 못된 방향으로만 더 세련되어 버렸구나..."(윤한봉, 2009: 373)

둘째, 활력이 넘쳐 보이는 사회적 에너지는 실상 "부질서와 혼란 속의 탐욕과 경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였다.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박정희식 경제제일주의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모토인 "잘 살아보세"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지는커녕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박정희식 경제성장주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시장의 논리로 전환시켰다.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조급해졌고 극성스러워졌고 탐욕스러워졌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었고 부패 타락 하게 되었다...탐욕과 경쟁은 아 나라의 문화로 정착되었고 돈은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윤한봉, 2009: 375)

셋째, 더욱 심각해진 지역주의이다. 합수가 DJ에 대해 강렬하게 비판하는 지점도 지역주의 조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판단할 때 DJ이야말로 광주전남의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정치 권력을 획득한 "정치전문가"이자 "사기꾼"이었다. 합수가 DJ에게 기대했던 바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DJ에 대한 합수의 비판과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합수의 관점에서 DJ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할 지도자가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이득을 챙기는 조야한 정치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합수가 볼 때 DJ는 지역감정과 갈등을 완화하기보다는 "호남출신인 자신이 집권해야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남인들을 현혹하여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이던 호남인들을 자신과 자신의 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세력으로 오도, 변질시켜 자신과 당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이나 당은 무조건 배척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윤한봉, 2009: 201) 결국 한국의 지역주의는 극복되지 못하고 몇 개 지역에 강력하고도 배타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합법적인 정권 쟁탈전을 벌이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에 대한 충격이다. 귀국 후 합수가 광주에서 들었던 얘기들 중 환멸감과 배신감을 가져다 준 말은 DJ와 그의 지지세력 그리고 5월 단체들과 척을 지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합수가 12년 만에 광주에서 와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5월 관련자나 단체들이 광주 항쟁은 마치 자신들만 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항쟁의 주역이었던 시민들을 5월과 무관한 사람들로 무시하거나 5월을 자신들의 개인적 명예와 채권과 이권으로 간주하는 행태 때문이었다. 그들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여왔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5월을 사유화 혹은 독점화하는 행태는 합수에게 환멸, 배신감, 절망과 분노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3년 당시 5·18 기념과 계승을 위한 재단 설립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에 합수 또한 이 재단 설립 활동에 뛰어들었다.

5·18 재단설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5·18을 어떻게 의미화할 것이냐를 둘러싼 상징투쟁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해충돌이 핵심이었다. 합수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들이 5월을 더럽히고, 가신님을 욕되게 하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케 한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80년 5월의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재단 설립 이후 합수는 5월 관련자나 운동권 동료들로부터 온갖 협박과 모함 중상을 당했다. 특히 5·18재단 사무실 현판식을 앞두고 망월동을 찾았으나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모욕과 횡포는 합수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합수는 재단 설립 이후 5·18 관련 기념행사장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합수의 5·18재단을 향한 각별한 애정은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5월 기념하는 활동에서는 정신계승 차원에서. 518기념재단이 이제 잘해나가도록 그 부분은 내가 죽는 날까지는 신경을 써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무안으로 병이 깊어 가지고 내려간다고 하니까 호시탐탐하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지. 못된 놈들이 이사장 되거나 상임이사가 되거나 사무국장 되거나 어떻게 해갖고, 일종의 권력처럼 기득권처럼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거 용납을 안 할거니까 그래서 5월이 제대로 기틀을 잡도록.”

V. ‘트랜스로컬 광주’의 가능성

합수의 회고록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면서 끝을 맺는다. 대강 시기가 5·18재단 설립 과정에서 겪은 여러 고충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던 때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청련 회원들이 방문하여 망월동 묘지에 참배하러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이다.

“참배를 마친 한 여자 회원이 비닐봉지에 묘역의 흙을 하도 많이 담기에 물었다. “마당집마다 다 있는데 또 어디다 쓸려고 그렇게 많이 담지?” 여자 회원이 이렇게 대답했다. “회원들 결혼 선물로도 주고 아기를 낳을 때마다 축하 선물로 줄려고 그래요.”(윤한봉, 2009: 408)

이 여성 회원의 소박하고 평범한 대답은 ‘트랜스로컬 광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5·18의 세계화, 전국화, 탈광주화 등 5·18 정신과 가치를 광주, 더 좁게는 오늘날 자신들을 ‘5·18 당 사자’라는 개념으로 재규정하려는 관련자 및 단체들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논의들이 지난 수년 동안 논의되어 왔다(김찬호, 2020; 정근식, 2005). 하지만 이론적, 담론적 수준의 진일보한 논의와는 달리 현실세계에서의 5·18 정신과 계승은 오히려 트랜스로컬로서의 광주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합수는 5·18 항쟁정신과 가치를 여러 나라의 지역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국제민주주의연대를 구축하는데까지 꿈을 꾸고 계획했다. 광주에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국제연대는 명망가나 유명 정치인이나 소수 엘리트들의 활동무대가 아니라 민중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운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예측하기 힘든 재앙적 미래 혹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빈부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극우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자본시장의 무절제한 횡포를 제어하지 못하며, 전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생태위기와

결합하면서 견잡을 수 있는 위험 속으로 민중을 내몰고 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위험을 제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민중은 길을 잃고 있다. 길을 잃은 민중을 ‘좀비’에 빗대는 건 지 나친 과장일까.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광주를 소환한다는 건 철 지난 야망일까. 또 는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막연히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상상하는 노스텔지어적 퇴행일까. 합수가 꿈꾸고자 했던 세상이 어찌면 불가능해졌을지 몰라도 그가 현실세계와 맞서면서 지칠 줄 모르는 투쟁으로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켜나간 역사와 그 정신은 쉽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 현재 인류는 그때 와는 또 다른 재앙을 겪고 있고 더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수의 생물학 적 생명이 이미 끝난 지금 그는 벤야민의 ‘새로운 천사’의 날개와 같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도 없이 결국 오고야 말 미래를 향해 펼쳐진 진보의 날개가 되었다. 이를 계승하고 기억하고 기념 화하는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이후의 트랜스로컬 광주는 합수가 남긴 경험과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면서 실천할 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완모·황광우(역음). 2019. 『바르게 살자: 광주의 정신을 미 대륙에 퍼뜨린 젊은이들의 이야기』. 심미안.
- 김미경. 2020. “트랜스내셔널 광주: 재미한인사회의 5·18민주화운동.” 『21세기 정치학회보』 제30집 4호: 1-33.
- 김성. 1988. “광주·전남 ‘의식권’ 탄생주역 윤한봉.” 『월간예향』 11월.
- 김찬호. 2020. “‘5·18 세계화’는 이루어졌는가? - 5·18 세계화의 의미, 역사, 과제.” 『Issue & Review on Democracy』 49호.
- 김현창. 1989. “김현창이 본 『윤한봉』 그는 누구인가.” 『창살』 2월.
- 문규현·임재경·유홍준 외. 2010. 『민족운동가 합수 윤한봉 선생 추모문집』. 서울: 한마당.
- 문병란. 1992.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망명 12년.” 『창살』 5월.
- 안재성. 2007. 『5.18 민주화 운동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창작과 비평사
- 윤정모. 1989. “한청련과 윤한봉을 찾아.” 『월간말』 9월.
- 윤철호. 1994. “광주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귀향일지.” 『월간 사회평론 길』 94(6): 38-45.
- 윤한봉. 2006. “5·18 항쟁사 정리를 위한 인물사 연구.” 구술녹취문. 윤한봉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자료실.
- 윤한봉. 2009. 『망명』. 서울: 한마당.
- 은호기. 2010. “윤한봉식 민족운동의 성과와 갈등.”
- 문규현·임재경·유홍준 역. 『민족운동가 합수 윤한봉 선생 추모문집』. 서울: 한마당. pp. 96-114.
- 임재경. 2010. “‘광주사람’ 윤한봉.” 문규현·임재경·유홍준 역. 『민족운동가 합수 윤한봉 선생 추모문집』. 서울: 한마당. pp. 22-29.
- 전용호. 1988. “5·18주역 윤한봉 미국 망명기.” 『월간경향』 5월.
- 정근식. 2005.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 전망』 10권.
- 정종주. 1993. “망명객 윤한봉 12년만의 귀국 2.” 『월간말』 7월.
- 정희상. 1993. “광주항쟁 씨뿌린 윤한봉.” 『시사저널』 5월 27일.
- 조진태. 2010. “철저함, 그리고 깊은 해안.” 문규현·임재경·유홍준 역. 『민족운동가 합수 윤한봉 선생 추모 문집』. 한마당. pp. 178-195.
- 최용주. 2020. “광주항쟁과 초국적 네트워크.” 『한국학』 제43권 1호: 49-83.
- 황광우. 1993. “내가 만난 윤한봉.” 『길을 찾는 사람들』 93(7): 82-91.

<Memo/메 모>

5·18의 국제화에 대한 성찰: 5·18기념재단의 한인 디아스포라 관련 사업과 자료를 중심으로

박경섭 (5·18국제연구원)

<목차>

- * 들어가며
- * 5·18의 초국적 성격과 세계화에 대한 논의
- * 5·18기념재단의 국제화 사업과 연대의 방향
- * 5·18기념재단 소장 해외 오월운동 자료와 연대의 의미
- * 5·18과 연대의 미래

들어가며

본 발표는 5·18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5·18기념재단이 수집한 자료, 구술, 관련 국제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항쟁 과정과 그 이후 관련 보도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을 접한 한인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지에서 5·18 관련 시위를 진행하고 모임을 결성하여 연대를 표명했다. 5·18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하에서 5·18과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독 한인들과 재미 한인들을 비롯한 디아스포라들이 5·18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비롯해 추모식과 기념식을 열었기에 1988년부터 진행된 공식화와 합법화 이전에 5·18은 초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5·18의 전국화는 장벽에 부딪혔다. 1993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문민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기초로 하고 있음 밝히고 5·18관련 기념사업과 추가보상을 약속했다.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1993년 말부터 5·18성역화와 관련된 논쟁이 전개되었고 광주 시민사회와 학자들은 시민주도 기념사업을 천명하면서 국제화를 추진했다. 1994년 5·18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5·18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5·18기념재단은 독일, 호주, 미국의 5·18 관련 행사(기념식, 학술대회, 전시 등)를 후원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초청 행사, 구술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5·18의 초국적 성격과 연대의 의미를 5·18기념재단의 국제연대사업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오월운동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18의 초국적 성격과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시점의 문제

5·18민중항쟁에 대한 ‘세계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 5·18민중항쟁 직후 관련 진상규명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와 현지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해외의 동포와 지식인들은 5·18민중항쟁 당시 현장을 취재한 외신 보도를 접하고 주저 없이 항의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5·18 진상과 전두환 신군부 만행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김찬호 2020: 5). 5·18은 전국화 이전에 ‘국제화’되었다고 강조한 김원은 5·18의 진실이 신군부의 언론의 보도지침 속에서 1980년대 당시 은폐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지만, 일본·미주·유럽으로 정보, 자료 등이 확산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초국적 확산의 중요한 사례로 들고 있다(김원 2024: 37).

초 청 장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바라 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국여대는 수많은 부모,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신문, 방송들은 처군 광주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총알에 쓰러진 희생자의 숫자만도 수천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국내 정세에 따라 이곳 서백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과 독일 동료들은 처량한 국내 실정을 알고
견딜수가 없어, 무사내란 근나 국내 정권을 멋대로 규탄하며
광주 시민과 연대하는 시위 및 "성문대행"을 아래로
강제 집회 금지나 모든 교포들은 물론 많은 독일 동료들이
참석을 모았 합니다

시일 : 1980년 5월 30일 금요일 16시 (오후 4시)

장소 : 출발 : Olivaerplatz.
경유 : Kdamm
도착지 : Wittenbergplatz
성도 대학

주최 : 한독 친선회

연락처 : Jung-Sook Markgraf
Steinmetzstr. 58
1000 Berlin 30 Tel. 216 71 50
49

<고(故) 김정숙 선생 기증자료 중 일부. 5·18기념재단 소장>

5·18이 전국화 이전에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논의는 진상규명 운동이 진전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광주정신을 해외에 전파하고 해외 현지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공간적 영역이 확장되었다(나간채 2009: 100)는 기존의 논의와 다르다. 5월운동의 초국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 이전 해외의 5·18관련 운동은 5월운동에 대한 논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5월운동의 초국적 성격에 대한 미진한 논의로 인해 국제적 연대활동을 전개한 최초의 사례는 1994년 5월에 열린 '해외에서 바라본 5·18광주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움과 5·18의 국제화를 추진한 '오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이하 '시민연대')의 활동(나간채 2009: 104)으로 제시된다. 5·18세계화의 출발점을 1994년으로 삼는 이유는 5·18의 국제화와 오월운동의 주체를 한국의 5월운동 단체와 광주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18의 세계화, 5·18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의 출발점을 1994년 시민연대의 활동에서 찾는 이유는 해외의 5월운동을 소홀하게 생각하기보다 세계화라는 목표 설정이 필요했던 상황의 중요성 때문에 기인한다. 1990년대 중반은 오월운동이 마주했던 정치적 상황과 운동의 한계로 인해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5월운동은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민주화운동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5월운동과 중첩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 중반에는 5월운동의 일정 정도의 성과 이후의 과제로 국제화 논의되기 시작했고, 운동목표가 투쟁보다는 국제연대를

통한 인권운동으로 초점이 모아졌다(나간채 2009: 104). 5·18의 국제화는 항쟁에서 가해자였던 신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냉전수구세력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광주항쟁을 국지화하고 광주를 고립화시키려는데 맞선 전략이었다(나간채 2012). 정근식 또한 1992년 선거에서 김대중의 낙선으로 인해 광주시민들은 고립감을 느꼈고 광주의 전국화가 지역주의 정치의 장벽에 가로막히자 광주 시민사회는 국제화를 통한 우회로 선택했다고 서술하고 있다(정근식 2005).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5.13 담화를 통해 5·18기념사업을 본격화하자 광주 시민사회와 5·18관련 단체들은 5원칙(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배·보상, 기념사업)을 확립하여 대응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전제로 한 기념사업 및 성역화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정신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1994년 초에 결성된 시민연대모임¹²⁴을 주축으로 하여 1994년 5월 「해외에서 바라본 5·18광주민중항쟁」이라는 국제 심포지움¹²⁵, 1995년 5월 「반인륜행위와 처벌」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 그리고 1996년의 국제청년 캠프로 이어졌다(정근식 2005: 85). 국제화 활동의 주체인 시민연대모임은 5·18관련 단체나 당사자가 아니라 지역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들이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기념사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5·18 국제화 논의 속에서 오월정신의 핵심은 ‘인권’과 ‘평화’로 설정되었다.

시민연대의 국제연대와 1980년대 한인 디아스포라의 5월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1980년대 5·18 ‘세계화’가 해외 현지의 지식인과 한인들에 의한 활동이었다면 광주시민연대의 ‘5·18 세계화’는 광주에서 시작된 최초의 국제연대활동이었다. 또한, 1980년대 활동이 주로 5·18의 참혹한 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 제3세계에서는 한국이 민주화 이행과 함께 과거사 청산에 성공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에는 ‘5·18 항쟁’이 놓여져 있었다. 그렇기에 광주시민연대는 주로 아시아 개도국 인권피해자와 활동가에게 모범적인 사례로서 ‘5·18’ 사례를 제공하고 이들 나라의 저항운동에 촉매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김찬호 2020: 5). 1994~1995년 시기가 오월운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유는 국제연대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흐름은 5·18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5·18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아시아의 민주화투쟁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흐름은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연구자들 중심으로 시민연대가 구성되면서 ‘인권’과 ‘평화’를 테마로 한 네트워크가 등장했다. 전자의 오월운동은 아직 민주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국가의 사회운동가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광주’를 모델로 삼고 싶어 했다. 또한 그들은 ‘광주’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고자 했기에 이것이 국제적 ‘연대’의 객관적 기초로 작용했다(정근식 2005: 89). 한편 해외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국제연대 활동은 오월운동의 연잔성상에서 ‘통일’과 ‘평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1989년 3월에는 유럽지역, 북미지역, 일본지역에서 연이어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남한 정부의 거부로 범민족대회는 1989년 8월 15일 서울과 판문점으로 나뉘어 분산개최되었다.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 11월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3자 합의를 통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광주의 미래를 ‘통일’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남북화해 무드 속에서 1998년부터 2000년 기간에 크게 확대되었는데, ‘광주’의 남은 과제 중의 하나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 속에 광주를 재정립할 필요성(정근식 2005: 91)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오월운동과 통일운동은 결합되지 못했고 서로 분리된 채 진행되었으며 신냉전체제과 미·중 대립 국면

¹²⁴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은 광주YMCA, 광주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명의로 1994년 1월에 제안되었고 모임의 역할은 ‘1.시민여론 수렴 및 실천방안 강구 2.기념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행작업의 감시감독 및 지원 3.국제적 연대’ 등이었다(오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47).

¹²⁵ 국제심포지움에 참여했던 이토 나리히코는 1994년 7월 8일 “국제심포지움에서 나는 「광주민중항쟁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광주시민이 세계로 향한 자치, 민주, 평화를 부르짖는 메시지였다」라고 보고하였다. 그후 광주체제 중 사실을 알면 알수록 광주민중항쟁은 시민이 냉전의 논리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아시아 최초의 민주항쟁으로서 「광주」의 빛이 세계에 미치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감상을 밝혔다.(오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224)

속에서 통일운동의 활력은 점차 상실되고 있다.

‘인권’을 강조한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은 아시아인권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1998년 5월에 광주에서 개최된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는 아시아 16개국 인권전문가와 운동가 36명이 모여 아시아 인권현실, 인권 침해사례, 인권기구 필요성을 토론하고 ‘아시아인권헌장’과 ‘광주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김찬호 2020: 7). 하지만 오월추.18 진상규명운동을 주도한 당사자와 5·18관련 기관 및 단체 진영에서는 이러한 확장된 ‘인권’ 개념이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광주시민연대의 인권 지향성이 운동을 통한 사회변화보다는 기존 체제 안에서 개인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간주되었다(김찬호 2020: 7). 2000년 이후에는 시민연대 활동이 축소되고 5·18기념재단이 국제연대의 주축이 되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시민연대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재단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약화되거나 상호협력이 단절(나간채 2009: 115)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에서는 인권을 테마로 한 국제연대 및 네트워크가 점차 5·18 관련 단체 및 기관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시민연대의 국제연대 활동은 1999년 광주국제교류센터로 결실을 맺고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광주시가 후원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점차 5·18과 국가폭력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가 주관하는 기획위원회가 주제를 선정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실행 영역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현안 및 인권운동과도 거리가 생겨나고 일회적인 이벤트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5·18기념사업마스터플랜」(2021)에서는 당시 10주년을 경과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학술대회 형식을 탈피하고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서 인권교육과 연결되고, 민간과 지방정부가 공통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하며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실천적 방향으로 전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142).

5월운동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과정을 통해 5·18이 공식화되었고 민주화운동이 다양한 부문운동으로 확대되고 발전됨에 따라 점차 5·18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광주와 5·18관련자들만의 과제가 되어갔다. 1995년 특별법 제정과 12.12와 5·18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일부가 처벌받으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자 오월운동은 새로운 과제와 미래를 모색하면서 통일 및 평화 운동, 인권운동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 전국화·세계화가 새로운 오월운동의 목표로 설정되었지만 목표 달성의 기준은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전국화·세계화는 구체적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세계화의 내용은 국제연대의 구체적 주제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5·18의 세계화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면 국제연대에 대한 질문은 5·18의 초국적 성격 및 영향력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월운동의 다른 흐름을 형성했던 초기 해외의 오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최정기(2021)는 5·18민주화운동이 해외로 알려지기 시작한 경로를 첫째, 국내·외 언론인들의 노력, 둘째, 기독교나 인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폭력 및 민주화쟁의 전파, 셋째, 재외 한인민주화운동 조직들을 통한 전파(6쪽)로 구별한다. 특히 일본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기독교 네트워크는 5·18의 국제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75년 결성된 한국민주화기독교자동지회의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 자료, 정보 등이 도쿄로 모아져 잡지 『세카이(世界)』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중심으로 1980년 광주의 진실은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확산됐다(김 원 2024: 41-42). 5·18의 진실을 일본과 해외에 알리는 또 하나의 채널인 가톨릭 측의 통로는 김정남(1942~)과 재일한국인 송영순(1931~2004)의 서한 교환이었다. 1980년 일본 시민사회에서 생산된 광주 5·18과 ‘김대중 구명운동’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일한연대’ 활동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한 이미숙(2019)은 재일한국인, 일본 기독교인, 지식인, 활동가들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일한연대’ 활동의 전개과정 및 담론을 분석한다. 최정기는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¹²⁶의 기관지인 『민족시보』의 1980년

¹²⁶ 한민통은 1973년 8월 16일 재일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목표로 설립한 단체이다. 이 단체의 설립에는 김대중이 1973년 7월 6일 미국 한인들과 함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국 본부를 결성한 것과 그의 반 유신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은 1973년 7월 6일 한민통 일본본부를 결성하기 위해 일본에

하반기 기사들(5월 25일 발행된 283호에서 12월 15일 발행된 300호까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일한인의 입장과 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최정기 2021). 정진현(2023)은 현재까지 재유럽오월민중제를 주최 주관해온 주요 활동가들속에서 진행한 인류학적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발현되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고찰한 글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국제연대는 5·18진실의 추구라는 공통의 목표 속에서 수평적·호혜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 연대운동에서 광주에서 발신된 메시지들은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에 의해서 부단하게 순환되었으며 일방향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동안의 5·18의 세계화 논의가 광주를 일종의 발화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광주정신의 지리적 확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원은 1970~1980년대 이뤄졌던 초국적 한일연대를 일본 지식인, 사회운동이 권위주의 아래에서 피해를 받는 한국 민주화운동, 지식인, 민중을 도와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김원 2024: 56). 즉 ‘연대세력’을 민주주의의 모델로 상정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위치지우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경제내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가리고 ‘온정주의’(paternalism)를 내면화할 가능성도 있다(이미숙 2022, 62)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원을 5·18기념재단의 사업비에 의존하는 5·18 국제화 사업이나 연대사업이 독재와 억압이 여전한 다른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러한 온정주의가 작동하지 않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광주와 5·18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대 활동을 제외하면 5·18정신이 아시아에 확산되는 만큼 아시아의 다른 연대세력의 목소리가 광주에서 들리고 있는 것일까?

5·18기념재단의 국제화 사업과 연대의 방향

기념재단의 국제교류 및 연대사업은 5월정신을 국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1980년 5월 당시의 고립을 딛고 5·18을 전국화·세계화하기 위한 5월운동의 실천적 산물이었다(5·18기념재단 2014: 79). 「5·18국제화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2023)에 따르면 5·18 국제화 사업을 초창기(1994~2004), 성장기(2005~2014), 전환기(2015~2023)로 구분하고 있다.

초창기의 5·18국제화는 미국, 유럽(독일, 프랑스 등), 호주 등에서 5·18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은 윤한봉이 1984년 결성한 재미한국청년연합(한청련)을 중심축으로 1992년 3월 호남향우회 등 미주 내 각 지역의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결합해 5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94년부터 ‘5월항쟁 정신계승 걷기대회’, ‘어둠에서 빛으로’ 공연, 강연회, 시낭송회 등 오월제를 개최했다.

5·18기념재단의 국제화 사업은 5·18민주화운동 20주년인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에 진행된 국제학술행사, 해외 인사 초청 및 방문, 아시아민주희생자가족 연대회의, 광주인권상, 해외동포자녀 초청 민주주의 현장 답사 등이 행사가 시작되었다. 5·18기념재단은 1999년 5월 기념행사 기간에 아시아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인권침해 희생자 가족과 시민운동가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바로 이 활동이 5·18기념재단이 시도한 첫 국제협력사업이었다.(김찬호 2020: 9). 또한 2001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와 교류협정 양해각서 조인을 통해 해외 인턴 파견이 시작되면서 해외 인권단체와 직접적 교류가 확대되었다(5·18기념재단 2023: 15).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비롯한 한국 민주화, 인권 관련 자료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종교계 및 외국 학자들에 의해 일본, 독일, 미국 등지에서 생산·유통되었다. 기념재단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광주시의회에서 해외자료 수집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해외자료 수집은 미국의 UCLA 소장자료,

왔고 대한민국거류민단 소속의 민주화운동가들과 일본본부 결성을 협의했다.

일본의 국회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조사 및 수집, 캐나다의 기독교 및 한국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자료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 논의가 확대되었던 국제화사업의 **성장기**에 5·18기념재단은 2008년 국제협력팀을 ‘교류지원팀’으로, 2001년 교류지원팀을 ‘교류연대팀’으로 개편했다. 5·18아카데미는 2005년 아시아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아시아인권학교’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2010년에는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광주아시아포럼을 대규모로 개최하고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가 출범했다. 기념재단은 광주아시아포럼, 광주인권상, 국내외 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제사업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며, 2011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힘썼다.

5·18국제화의 **전환기**의 출발점인 2015년에는 영문 웹진 Mayzine을 발행했고 2016년 해외 5·18사진 전시회를 시작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성 및 정신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활동이 증가했다. 또한 국제 NGO 활동가와 광주와의 직접적 연계를 위해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기념재단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운영하는 GNMP(Global NGO Master's Program)가 시작되었다(5·18기념재단 2023: 16). 2017년 5·18기념재단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등 5·18 관련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기증받아 번역 및 분석을 통한 진실규명 작업 시도했다. UN 본부에서 37주년 5·18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시키기도 했다. 2018년 5·18기념재단은 기념사업부를 ‘국제연대부’로 조직이 개편하면서 국제사업을 다시 분리시키고 위상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5·18 공식 기념일 제정되었다. 이 시기에 5·18기념재단은 ‘세계 군사주의 및 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 운동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인식 제고와 가치의 세계화에 힘쓰기도 했다.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리고 세계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2021년 신설되었다. 2023년 5·18국제연구원 신설하고 국제연대부를 ‘글로벌센터’로 개편하면서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제사업을 추진 및 모색하고 있다.

5·18국제화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활동 지원은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이다. 2005년부터 5·18기념재단은 아시아 인권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으로 개발단체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재단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는 사업(운영비 지원, 행사 지원 등)을 진행했다. 2012년부터 지원 사업의 범주를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실조사사업,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5월정신의 세계화 도모. 공모 배분과 지정지원 방식을 통해 5월정신과 연계된 국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 변경되었다.

해외동포 단체의 5월 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독일에서 개최되는 5월 민중제에 대한 지원과 미국의 한인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이었다.

<5·18기념재단 해외동포 단체 협력 지원 내역>

연도	평화포럼 초청	협력사업	비고
2000		•미국 UCLA학술심포지엄	광주광역시 보조사업
2001		•독일 본 심포지움	
2002			한국민주주의답사
2003			한국민주주의답사
2004	참가		한국민주주의답사, 미주인턴파견
2005	참가	•독일 오월민중제 후원	한국민주주의답사,

			미주인턴파견
2006	참가	•독일, 호주, 미국행사 후원	한국민주주의답사, 미주인턴파견
2007		•독일 오월민중제 공동행사	미주인턴파견
2008		•미국 LA민족학교 공동행사	미주인턴파견
2009	참가	•미국 시카고한인회오월기념식 예술인파견	
2010	참가	•독일 오월민중제 30주년기념행사	대표단 파견
2011		•독일 오월민중제 31주년기념행사	대표단 파견
2012		•미국 워싱턴DC 호남향우회 오월기념식 예술인파견	
2013		•홍성담 대만 전시	

5·18기념재단은 5·18인재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2~2006년까지 ‘해외동포 자녀 초청 민주주의 답사 프로그램’ 개최했다. 초청 대상은 한인단체 및 주재 대사관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서 접수를 통해 선발했고 참가자에게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체재비 일체를 지원했다. 답사 프로그램은 판문점, 서대문구치소, 명동성당, 국립5·18묘지 등 한국의 역사적 현장 답사와 유가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관련 단체 방문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30년간 국제화 사업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군부의 억압과 반민주적인 체제에 저항한 투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게 1980년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는 광주에 노력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 상징적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연대가 가능했으며, 국제연대가 ‘선진국 의존형 국제연대에서 개도국 지원활동으로 변화’했고, ‘5·18에 대한 세계화에서 5·18에 기반한 세계화’로 자리매김했다(5·18기념재단 2024: 192)고 정리하고 있다.

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제연대사업이 공통의 현안과 의제 모색을 중심으로 한다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 사업은 한국 초청과 답사 프로그램, 5·18관련 행사의 지원 등 연대활동이라기보다는 후원에 가까운 사업이었다. 5·18기념재단은 국제사업의 중심을 아시아지역에 두고 있으며 적지않은 국제행사가 공통의 의사결정과 협동이 아니라 자원 공여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행사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원의 공통 분담, 의제 중심,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18기념재단 소장 해외 오월운동 자료와 연대의 의미

5·18기념재단은 2014년에야 비로소 해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 독일, 미국 3개국의 5·18기록물 조사 및 수집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해외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5·18 관련 기록물 수집하였다. 해외 기록물 수집에 나섰던 일차적인 이유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왜곡과 폄훼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5·18기념재단은 우선적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보관소(NARA) 소장 오월 기록물 수집에 이어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생산 문서 및 1980년 5월에 주한미대사관과 미 국무부 간 전통문 등 기록물을 수집하고 연구 및 해제를 추진했다.(5·18기념재단 2024: 310-311)

재단은 2016년부터 국외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상시적인 해외 기록물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2016년에는 3월 미국 USC(남가주 대학)와 협약 체결 협의를 하였고, 1980년5월 독일 신문 관련 보도 스크랩 확보, 미국과 일본으로 5·18 진실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의 증언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5·18기념재단 해외 기록물 수집 및 연구 현황>

연도	수집 및 연구 내용
2014	•일본·독일·미국 5·18기록물 조사 및 수집
2015	•일본·독일 5·18기록물 조사 및 수집 •미국 NARA 소장 오월기록물 수집 및 연구 해제
2016	•일본·독일·미국 5·18기록물 수집 및 번역(시사주간지 ‘QUICK’ 5·18 보도 자료 포함)
2017	•미국 UCLA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5·18기록물 수집 •5·18왜곡담론의 확산과 대응과제 •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 프레임 전환과 5·18 •안보우선의 경로종속성-1979~1980년 5월까지 미국의 대한정책 분석
2018	•미국 UCLA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5·18기록물 수집 및 분석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해제 •신규발굴 영문자료 3건 소개 •불처벌을 넘어서-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 •칠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 •광주항쟁기 미국의 역할 관련 논문 3건 발굴 및 번역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의회도서관에서 5·18 및 광주 관련 기록 6점 수집 •미국 국가안보기록관 소장 기밀문서(1977~1988) 해제
2019	•외국인 10인의 증언·회고 자료 수집 및 제본 •재독 오월운동 관련 기증자료 수집
2022	•5·18기념재단, 아사히신문사 특별전에서 소장기록물 공개

2018년에는 연구위원 초빙을 통해 해외 5·18 관련 기록물 수집에 이어 그동안 수집한 기록물의 검토 및 검증, 분석을 시작했다. 이어 2020년에는 재단 소장기록 및 수집한 5·18 관련 기록물 활용 일환으로 5·18아카이브 전시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5·18기억저장소’ 개관으로 이어졌다. 소장 기록물에 대한 번역은 2021년 독일 기록물 28종 번역, 2022년 일본 기록물 번역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시집) 등의 성과가 있다. 하지만 5·18기념재단 아카이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기록물에 대한 번역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구술 기록 수집

2014년부터 재단은 해외 오월운동사 관련 자료 수집과 관련 인사 및 단체에 대한 구술 기록 작업을 수행했다.

	내용	증언자	연도
일본	오월운동 관련 인사(단체) 증언 채록 및 수집	9	2014

독일	오월운동 관련 인사(단체) 증언 채록 및 수집	11	2014
	재유럽 오월민중제 40주년기념 구술 수집		2020
미국	오월운동 관련 인사(단체) 증언 채록 및 수집	15	2014

2014년 채록된 독일 오월운동 관련 인사에 대한 구술 기록은 참여자들의 검토 이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2020년에 다시 인터뷰 추가 구술을 수집해 2021년 정진헌 교수의 일부 해제가 실린 『5·18의 기억과 역사11: 독일편』으로 출간되었다.

해외 기증 및 수집 자료

	개인 기증자	소장 자료 기증처	관련 자료 소장처
일본	고강호	일본 천주교정의평화협의회, KBS광주방송총국, 이와나미(岩波)출판사 , 이토오 나리히코	김용철 일본프로테스탄트협 의회(NCC)
독일	고 김정숙, 신상전, 정연옥, 고 위르겐 힌츠페터	오월민중제준비위원 회	
미국	조광동, 차철, 김정남, 조재길	시카고한인마당집	뉴욕민권센터 시카고한인마당집

5·18 관련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스크랩북으로 정리한 고강호 기증 자료에는 5·18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 발행 잡지인 Ster Magizin 37호, DER SPIEGEL 39호, QUICK 26호도 포함되어 있다. 재일교포의 기증자료에 비해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건너온 자료는 단체 기증자료가 많다. 일본 천주교정의평화협의회가 5·18 관련 번역 자료, 일본 신문 자료를, KBS광주방송총국은 아오이 가쓰오 아사히 신문 전 기사 사진 자료와 「한국으로부터의 통신」¹²⁷을, 이와나미출판사는 『세카이(世界)』 1972-2003년 발행본 331권을, 이토오 나리히코는 일본, 런던, 뉴욕 발행 5·18 관련 도서 및 자료를 5·18기념재단에 기증했다.

5·18과 관련 해외 자료 중 가장 내용과 분량이 가장 많은 자료는 독일교포와 재유럽 오월민중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1970년 독일 파견되어 간호사였던 고 김정숙 선생은 세종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정숙 선생의 자료는 한독친선회 자료와 항쟁 초기부터 재독 교포들의 관련 시위, 활동, 초기 오월운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손으로 쓴 활동 관련 메모와 성명서,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숙 선생 기증자료에는 한국에서 1980년대 제작된 5·18 관련 자료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신상전은 ‘광주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국학생의 모임’에서 만든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보고」(1980), 서신, Bochum 한국어린이 학교 관련 자료를 기증했다. 정연옥이 기증한 자료는 5·18 관련 교포 활동을 담은 사진들이다.

¹²⁷ 『세카이』지는 19980년 7월부터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에 연속해서 5·18 관련 기사를 싣는데 글을 쓴 T.K생이라는 익명의 인물은 나중에 지명관 교수로 밝혀졌다. 지명관 교수는 2008년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세계로 발신한 민주화운동』(창비)을 출간했다. 지명관 교수는 5·18을 국외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5·18언론상을 수상했다.

미국 교포의 기증 자료의 상당 부분은 동포 단체가 발행한 신문과 잡지,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이 대다수이다. 김정남은 1980년 5월 18일 이후 5·18관련 영문 번역 자료와 더불어 광주항쟁과 관련하여 재외교포 시인들 쓴 시를 엮은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1981), 재일교포 김시종 시인의 『광주시편』(1983)¹²⁸을 재단에 기증했다. 조재길은 <코리안스트릿저널> 1981-1991 신문원본과 마이크로필름 이외에 <통일마당> 창간호(1995년 1월)부터 11호(1996년 11호) 발행분까지를 재단에 기증했다. 차철의 기증자료는 재미동포들이 주최한 5·18행사 안내 포스터, 항쟁과 관련된 미국 언론 보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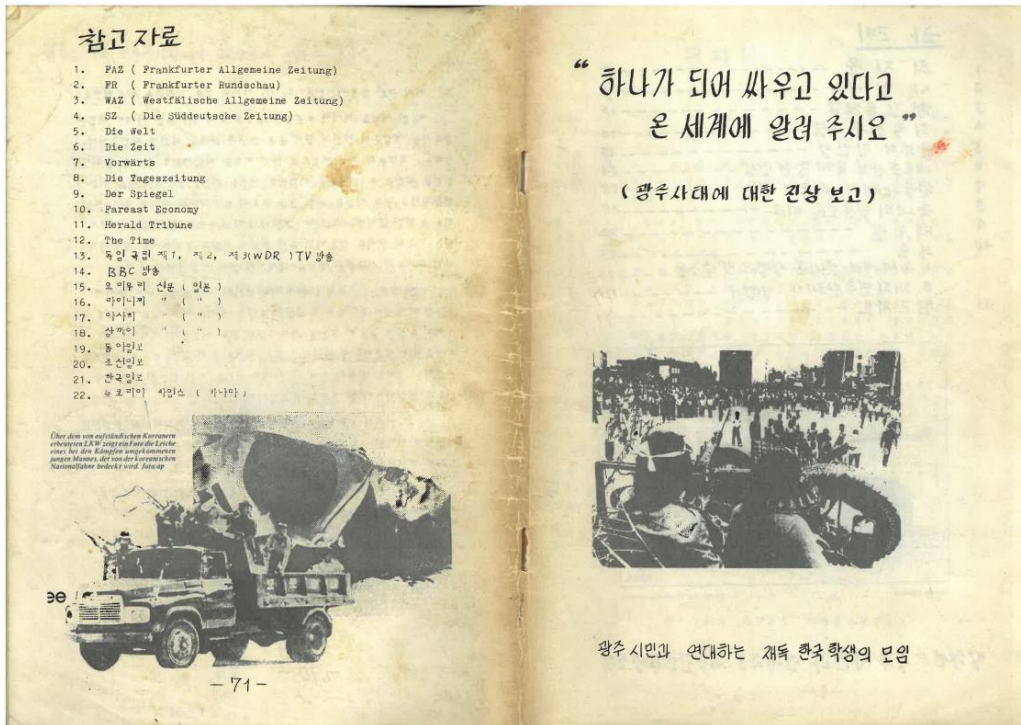
재미 교포들과 관련된 5·18 관련 자료는 뉴욕인권센터, 시카고한인마당집 또한 소장하고 있으며, 오월운동 관련 활동가들의 인터뷰 자료 및 재미교포 단체들의 자료 일부는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및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는 2019년 한청련 회고집 『Know Your Roots 뿌리를 알자』 1~3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가 2024년 9월 26일 전남대학교 윤한봉 정원 제막식을 마지막 행사로 해산기로 하여 관련 자료는 들불기념사업회로 이관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5·18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 오월운동 자료는 단행본을 제외하면 중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상으로 관련 자료에 접근할 방법은 없으며 조사와 연구를 위해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념재단은 검색과 기록물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목록화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에 자료에 대한 해제 및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80년대 재외동포들이 생산한 다양한 자료와 구술 기록을 살펴보면 학살과 항쟁의 종료로 인한 좌절과 분노뿐만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시민의 항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없는 용기를 주었으며, 그것은 또, 비록 유신잔당의 단말마적 발악으로 탄압되었으나 이는 민주투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승리에로의 외침이다.”(광주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국학생의 모임 1980,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 주시오: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보고」 32쪽)

¹²⁸ 5·18기념재단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시집 『광주시편』(1983)을 2014년 번역 출판(푸른역사)했다.



<신상전 선생 기증 자료 중 일부. 5·18기념재단 소장>

5·18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신상전 선생 기증 자료에 따르면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 주시오: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보고」는 1980년 6월 보훔Bochum 독서서클 ‘한국 사회문제 연구회’를 중심으로 각국 언론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독일의 한국유학생들이 1980년 6월 중순경 제작하였고 300부를 만들어 독일, 미국, 일본의 한인단체에 우편으로 배포했다.

1980년 5월 27일 항쟁이 진압된 이후 일본 한민통의 『민족시보』에서 5·18 관련 소식들은 줄어들었지만 관련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광주의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당국의 감시 하에서도 매우 빠르게 일본에 전달되고 곧 『민족시보』에 게재되었다. 『민족시보』 287호(8월 29일 발행)에 게재된 서독기자 게브하르트 힐셔(Gebhard Hielscher)의 목격담은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 주시오-광주사태에 대한 진상보고」에서 전제된 것이다(최정기 2021: 25). 『민족시보』 287호에 실린 다른 기사는 미국연합장로교 총회에서 파견한 의사의 목격담으로 재미교포지 『독립신문』에 6월 24일~25일까지 실렸던 것이다. 이미 5·18과 관련된 진실과 관련된 자료들은 일본, 독일, 미국을 매우 빠르게 오가며 상호전파되고 있었다.

해외 오월운동 자료들에서는 광주시민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들간의 연대¹²⁹ 또한 살펴볼 수 있다. 1980년 6월 일본의 민단 청년 그룹의 본부에 대한 질의서¹³⁰(임영언·허성태·전호성 2022: 17)를 보면 5·18에 대한 연대가 종교의 차이,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면서 고국의 민주화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일관된 지지 성향으로 나아갔음을

¹²⁹ 위령탑 건립 시카고 추진위, 재일동포 인권향상 시카고추진위, 민통연합 시카고위원회, 시카고청년교육문화원은 1988년 5월 20일 ‘5·18 광주의거 제8주기 추모식 및 지문날인 거부 재일동포 초청강연’을 진행했다(5·18기념재단 2016: 84).

¹³⁰ 한국청년동맹의 민단 중앙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6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수부대의 광주에서 만행에 대해 (민단 중앙은) 최극하정권에 항의할 생각이 없는가? 항쟁의 원인은 무차별 발포 때문이고, 책임자는 전두환으로,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대. 민단 중앙의 견해는? 정치발전의 약속을 위반한 최극하정권에 대해 퇴진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가? 김대중 선생 등의 석방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가?

확인할 수 있다.

5.18과 연대의 미래

5.18과 관련된 국제연대활동은 점차 ‘추모와 의례’ 성격이 강조되고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저항성과 운동성’이 반영된 연대활동은 축소되었다. 국제연대활동이 사업화됨에 따라 일회적 행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국제연대가 지역 시민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맺지 못했으며, 그 결과 지속적이며 대안적인 국제연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김찬호 2020). 그동안의 국제연대에서 드러난 한계는 전반적으로는 목표와 방향성의 문제이다. 연대는 수평적·호혜적 관계 속에서 공통의 목표를 위한 활동이어야 하지만 광주와 5.18의 과제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서도 5.18의제에 대한 계몽과 당위를 넘어서 국내외 현안과 이슈 결합, 공감을 통해 환류되고, 확장되는 방식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5.18이 시사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공동체를 통한 저항과 협동임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광주공동체의 확장은 광주 내부와 외부에서 5.18의 공공화 및 시민에 의한 재공유화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125).

1980년대의 초국적 오월 운동과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광주 중심의 국제연대는 서로 합류하지 못했다. 오월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5.18문제해결 5원칙과도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설정된 다섯 가지의 과제는 한국에서 과거사 정리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음에도 저항성과 운동성을 갖는 국제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도 이미 5.18문제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미해결 과제는 5.18당사자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문제로 남겨졌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오월운동 및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통일운동과 평화 운동 또한 현재는 5.18과 무관한 것처럼 느껴진다. 2024년 6월 25일 국내 608개 종교시민사회단체¹³¹와 80개 국제파트너단체가 참여한 ‘한반도평화행동 출범식: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가 열렸다. 7월 27일에는 한반도평화행동에 국제파트너 단체로 참여한 한인2세대단체 ‘노뎃돌’이 정전협정을 체결을 기억하며 주최한 ‘미국은 나가라!(US out of Korea)’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다. 노뎃돌은 캠페인의 의의를 재미동포 단체들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이 미증유의 핵전쟁위기를 맞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한반도 지배, 침략 정책에 맞서 새로운 반제자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결의, 선언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5.18과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은 1980년대 한인 디아스포라의 오월운동의 중요한 주제였으며 5.18이 냉전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5.18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보고서인 「5.18진상규명 종합보고서(2024.06.24.)」에는 5.18이 국내적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어 학살과 관련된 미국의 책임은 서술되지 않았다. 한 5.18당사자는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18과 관련된 미규명 과제로 미국의 책임문제를 강조했다.

5.18의 경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보다 피해보상이 선행되었으나 진실규명 국가보고서가 작성되면서 일련의 광주 5원칙을 연계할 수 있는 국면(이영재 2021: 232)이 조성되었다. 진상규명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국가보고서의 발간으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뒀고, 책임자 처벌은 가장 미흡하지만 5.18조사위가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가해자들을 2024년 6월 12일 검찰에 고발했기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중반처럼 현재 5.18문제해결의 5원칙 및 과제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서 5월운동과 국제연대를 평가하고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듯하다. 5.18과 관련한 국제연대의 미래에도 5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5원칙에 따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¹³¹ 5.18 관련 단체로는 5.18민족통일학교,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가 참여했다.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친 것은 무엇인지 1980년대 초국적 오월운동을 통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및 문헌]

- 5·18기념재단 2014, 『5·18기념재단 20년사』.
- 5·18기념재단 2016, 『5·18 해외 아카이브, 당신은 아는가? 5·18, 그 위대한 연대』.
- 5·18기념재단 2023, 『5·18국제화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5·18기념재단 2024, 『5·18기념재단 30년사』.
- 오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진실은 발자국에 고여 있다: 오월성역화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민 활동 보고서』, 새날출판사.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 김 원 2024, 「트랜스내이션 5·18의 과거와 현재: 한-일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5·18신학화 사업 2024년 발표회> 자료집.
- 김찬호 2020, 「‘5·18 세계화’는 이루어졌는가? - 5·18 세계화의 의미, 역사, 과제」, *Issue & Review on Democracy* 49호.
- 나간채 2009, 「5월운동에서 국제연대의 발전과정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 나간채 2012, 『한국의 오월운동』, 한울.
- 이미숙 2019, 「1980년 ‘일한연대’ 활동의 성격과 의미: 일본 시민사회의 광주 5·18과 ‘김대중 구명운동’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4호.
- 이미숙 2022, 「경계를 넘는 연대와 재귀적 민주주의- 1970~80년대 ‘일한연대운동’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민주화운동과 국경을 넘는 연대의 역사> 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임영언·허성태·전호성 2022, 「5·18 광주 민주항쟁의 재일동포와 재외동포사회로의 확산과정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3호.
- 정근식 2005,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 전망』 10권.
- 정진현 2023, 「재독한인들의 생애사로 본 5·18정신의 재해석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열망이라는 사회적 송금」, <2023 한국구술사학회 전기 학술대회> 자료집.
- 최정기 2021, 「5·18민주화운동 이후 1980년의 『민족시보』 기사 분석: 5·18민주화운동과 ‘김대중 구출운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제4호.

<메 모/Memo>